

3만 명 참여한 한국교회 헌혈캠페인, 네 번째 시즌 시작

12일 세브란스병원에서 ‘대한민국 피로회복’ 시즌4 발대식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됐던 지난 2020년 성탄절부터 이듬해 부활절까지 처음 진행했던 ‘대한민국 피로회복’ 캠페인이 올해 시즌4를 시작한다. 이번에도 올해 성탄절부터 내년 부활절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캠페인은 팬데믹으로 인해 헌혈 수급이 어려웠던 시기 지구촌교회, 온누리교회, 선한목자교회 등이 앞장서 헌혈 캠페인에 나섰던 것에서부터 시작됐다. 이후 시즌이 거듭되면서 소아암 및 희귀난치병 환우들도 도왔다. 시즌3까지 진행되는 동안 약 3만 명이 헌혈에 참여했다.

지난 시즌은 연세의료원과 함께 진행했다. 연세의료원의 서울 신촌과 강남, 경기도 용인의 각 병원 내에서 치료받고 있는 희귀성 난치 질환을 겪는 환우를 추천받아 사정을 성도들에게 소개하고 헌혈과 기부를 통해 치료비를 도왔다.

이 과정에서 지구촌교회, 온누리교회, 남서울교회, 선한목자교회, 신촌성결교회, 할렐루야교회 등 첫 시즌부터 꾸준히 이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는 교회들을 비롯해 사립과 섬김, 성남시기독교연합회와 기독교한국침례회에 소속 교회들의 헌혈증 기부 및 헌혈 동참이 있었다. 그 밖에 기념품 판매 등으로 약 1억2천만 원의 치료비가 모금됐다.

12일 서울 세브란스병원 종합관 교수회의실에서 진행된 ‘대한민국 피로회복 포 키즈(For Kids) 시즌4’ 발대식에서 병원 한 관계자는 “올해 피로회복 캠페인을 통해 기부받은 헌혈증이 없었다면 환자들을 위해 쓸 수 있는 헌혈증이 모자랄 뻔 했다”고 감사를 전하기도 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지구촌교회 최성은 담임목사를 비롯해 온누리교회 이재훈 담임목사, 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장 이종성 목사, 성락성결교회 지형은 담임목사, 더사랑의교회 이인호 담임목사, 대구 동신교회 문대원 담임목사, 한마음혈액원 황유성 원장, 윤동섭 연세의료원장, 하종원 세브란스병원장, 김은경 용인세브란스병원장 등이 참석했다.

최성은 목사는 “팬데믹으로 인해 보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나타낼 수 있을지를 고민했다. 그러던 중 피가 모자란다는 사실을 알았고, 이것이야말로 교회가 해야 할 사역이라고 생각했다”고 처음 피로회복 캠페인을 시작하게 된 동기를 설명했다.

최 목사는 “‘피로회복’이라는 캠페인 이름은, 대한민국의 피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회복하자는 의미도 담고 있다”며 “그리스도인들이 행동하는 마음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아” 발대식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진영 기자

가지고, 복음이 갖고 있는 사회적 관심을 이 캠페인을 통해 더욱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한두 번으로 끝나는 이벤트성 캠페인이 되어서 안 된다고 생각한다. 진정성을 가지고 꾸준히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재훈 목사는 “이 캠페인에 참여했던 성도들이 그것을 기쁘고 보람 있는 기억으로 서로 나누고 있다. 올해도 열심히 참여해서 과거보다 더 많은 헌혈이 이뤄

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황유성 원장은 “해를 거듭할수록 이 캠페인을 향한 뜻이 더 모아지는 것 같다. 단지 사람의 힘으로 되고 있는 캠페인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며 “특히 연세대는 우리나라 헌혈운동의 시초가 된 곳 중 하나여서 더욱 의미가 크다. 수혈 받은 환자들이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종성 총회장은 “올해 우리 교단 소속 250개 교회, 1만2천 명의 성도가 이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이룰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형은 목사는 “우리 교회가 내년 설립 60주년을 맞는다. 성도들과 함께 이번 헌혈운동에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 참여하겠다”고 했다.

이인호 목사는 “이 캠페인 한국교회가 함께 연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문대원 목사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큰 도전을 줄 수

는 캠페인이라고 생각한다.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참여하겠다”고 전했다.

윤동섭 연세의료원장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연세의료원이 교회들과 함께 이런 좋은 캠페인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자랑스러운 은혜인지 모르겠다”며 “피로회복 캠페인 환자들에게 희망이 되는 캠페인이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김은경 용인세브란스병원장은 “피가 없고 돈이 없어서 치료를 망설이는 환자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는데 이렇게 도움을 주시는 교회들이 있어서 기쁘다”고 했다.

하종원 세브란스병원장은 “최선을 다해 이 캠페인에 참여하고 또한 이것이 지속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 많은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고 했다.

한편, 대한민국 피로회복 캠페인은 ‘사림과 섬김의 15개 교회(남서울, 동안, 만나, 새중앙, 선한목자, 성락성결, 소망, 수영로, 신촌성결, 온누리, 일산성광, 주안장로, 지구촌, 흥헌, 할렐루야)가 지난 2020년, 적십자, 한마음혈액원과 연합해 처음 시작했다. 최성은 목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코로나19로 인한 혈액 부족 사태 해결을 돕는데 한국교회가 나서자고 제안한 데서 비롯됐다. 김진영 기자

“성경이 보여준 꿈, 우리의 꿈 되길 소원”

한국군목회, 제40-2차 정기이사회 개최

한국군목회(이사장 이윤희 목사)가 12일 오전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제40-2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행사는 제2차 정기이사회, 신임이사 취임축하 및 오찬 순으로 진행됐다. 정기이사 회의는 개회예배, 회무처리 순으로 진행됐으며 예배는 김중순 목사(부이사장)의 인도로 드러졌다. 조일규 목사(부이사장)가 대표기도를 드렸으며 이어 정성구 목사가 거룩한 꿈을 꾸자(히브리서 11:24-26)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정 목사는 “꿈에 대해 성경으로 해석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현미경적인 해석 또 다른 하나는 망원경적인 해석이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망원경적인 해석을 해보려고 한다”며 “성경에는 꿈에 관한 이야기 여러 개가

있다. 먼저 아브라함의 꿈에 대해 생각해 본다면 아브라함은 그의 나이 75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셨다.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의 근원이 된다’고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가지고 순종의 길을 걸었다.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었다”고 했다.

그는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신 꿈은 하나님께서 죄악을 반드시 심판하시는데 그래도 남은 자를 보호하시고 그의 후손은 구원하신다는 확신이었다. 그래서 그는 120년 동안 비탄과 저주와 감당할 수 없는 핍박에도 견디고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며 “모세의 꿈은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왕위, 부귀영화, 정치적 기득권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

신 비전대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더 좋아했고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능력을 애급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긴 것”이라고 했다.

정 목사는 “오늘 본문을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가 왜 왕위를 버렸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모세는 역사의 배후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았다”며 “요셉의 꿈은 하나님의 나라였다. 하나님의 삶과 역사가 중심이 되는 그런 꿈이었다. 이사야 선지자의 꿈은 인간 스스로가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음을 알고 인생과 사회, 국가와 만물이 새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룰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날 권모술수, 모략, 언론과 범죄계, 정치계가 합작해서 민주화를 앞세운 사회주의자들이 국민을 집단 최



한국군목회가 12일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제40-2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행사를 마친 후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군목회

면으로 몰아넣고 가는 이때 우리는 아모스처럼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를 꿈꾸며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성경에서 보여준 위대한 꿈들이 우리들의 거룩한 꿈이 되길 소원한다”고 했다.

예배는 이어 강만원 목사(중경이사장)의 축도로 마쳤으며 이어 회무처리가 진행됐다. 이윤희 목사의 개회선언으로 시작된 회무처리는 이사장명, 회순채택, 전회의록 낭독, 감사보고, 회계보고, 임무보

행 목사(34기, 대신)는 “오늘 이 자리에 이사로 세우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저를 젊은 나이에 군대에 불러주시고 은혜를 넘치게 부여주셨다. 늘 그 은혜를 생각하고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받은 은혜를 늘 보답하는 심정을 가지고 한국군목회를 잘 섬기고 봉사하는 자세로 섬기겠다”고 했다. 다음은 신임이사 명단이다.

- 김상목목사(합동, 30기)
- 조석행목사(대신, 34기)
- 권오영목사(통합, 35기)
- 홍은해목사(기성, 41기)
- 장내성목사(예성, 42기)
- 박기영목사(예성, 43기)
- 최영윤목사(침례, 43기)
- 이주일목사(대신, 45기)
- 고찬영목사(침례, 46기)
- 민상기목사(대신, 48기)
- 윤용진목사(감리, 51기)

최승연 기자

한국가스공사 '23~'24년 동절기 도시가스요금 경감제도 확대 시행

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시설의 따뜻한 겨울을 위해 도시가스요금 경감제도를 확대 시행합니다.

요금경감제도에란 무엇인가요? 에너지 취약계층의 가스요금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사회적배려대상자와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도시가스 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해당지역의 도시가스사, 정부24, 복지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국가·독립유공자·다자녀가구는 도시가스사에서 신청 가능)

준비서류 ① 도시가스요금 경감 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위탁 동의서 *도시가스회사 및 주민센터 비치

동절기 요금경감제도가 어떻게 바뀌나요?

하나,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경감금액이 확대됩니다!

구분	생계/의료 급여	주거 급여	교육 급여	차상위계층	장애인/국가·독립유공자	다자녀가구/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
동절기 '취약계층' 요금 경감금액 (원/월)	3만 6천원 » 14만 8천원	1만 8천원 » 14만 8천원	9천원 » 14만 8천원	1만 8천원 » 14만 8천원	3만 6천원 » 7만 2천원	9천원 » 1만 8천원
비고	단, 에너지이용권 (바우처) 수급자일 경우 8만 6천원					

둘, 어린이집도 지원시설에 추가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어린이집 지원대상 추가

자세한 신청방법은 주민센터 또는 관할 도시가스사에 문의하세요. ※관련근거: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한국교회 다음세대 위기… 치유의 복음 전해지길”

예장 통합 청년목회세미나 열려

예장 통합총회(총회장 김의식 목사)가 11일부터 12일까지 서울 메이필드호텔 아아리스에서 ‘청년에 목회 -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청년목회의 새로운 비전과 부흥을 위한 청년 목회자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예장 통합총회 제108회기 다음세대비전위원회가 주관했다.

첫 날 열린 개회예배는 안준호 목사(총회 다음세대비전위원회 서기, 열매맺는교회)의 사회로, 박기상 장로(총회 다음세대비전위원회 회계, 시온성교회)의 기도, 박경민 청년(청년회전국연합회 총무)의 성경봉독, 박성근 목사(총회 다음세대비전위원회 위원장, 오전교회)의 설교, 김의식 목사(예장 통합 총회장)의 인사 및 축도, 김명옥 목사(총회 교육훈련처 총무)의 참석자 소개 및 광고 순으로 진행됐다.

“우리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시 31:14-16)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박성근 목사는 “초기 기독교는 복음을 전하기 쉬웠겠는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반동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부딪치고 깨쳐야 한다. 본문에서 다윗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를 온전히 의지함을 고백한다”고 했다.

이어 “주님의 살아계심과 내 편이심이 확증이 되면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된다”며 “모든 인생의 문제는 영혼의 문제이다. 나의 앞날이 주님의 손에 있다는 고백이 있으면 기도가 가능하게 된다.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성령의 역사는 기도가 되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면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가 되게 된다”며 “공허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다. 그리고 마음의 열정과 희망과 용기가 생긴다. 나의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



청년목회자 세미나 진행 사진. ©장지동 기자

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 목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게 된다”며 “박 2일간 짧은 기간이지만 모두에게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이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서 인사말을 전한 예장 통합총회 장 김의식 목사는 “코로나19의 비대면으로 인해서 다음세대의 절반 이상이 교회를 떠나갔다”며 “더욱이 초등학교의 복음

화율이 10% 미만, 중고등학생들의 복음 화율이 5%미만, 대학·청년들의 복음화율이 3%미만인 한국교회의 최대의 위기의 현실”이라고 했다.

그는 “청년목회자세미나가 여러분을 영적으로 도전하고 성장시키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이번 제108회기 총회 주제가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이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청년목회자로 부르신 주의 종들”이라며 “이 치유 목회를 통해 청년들이 영혼의 죄악과 마음의 상처와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는 치유의 복음이 함있게 전해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다음으로 김선민 컨설턴트(테일카네기 코리아수석)가 ‘청년이 모이는 교회’라는 주제로 특강했다. 김 컨설턴트는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 청년들, 다양한 삶의 형태들, 가치관들을 바라보

고 인정포용해주는 공동체가 필요하다”며 “오히려 기업은 자신들이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지향하고 있다”고 했다.

김 컨설턴트는 “옳고 그름의 이분법적인 잣대가 강해서 틀에 나를 옥여넣어야 한다는 마음이 들면 청년들은 교회에 더 이상 나올 이유가 없다”며 “복음은 유대인과 이방인, 세리와 창녀를 포용했지만, 한국교회는 어떠한지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후에는 수도권 서울예능교회·중부권 대전신성교회·동부권 포항중앙교회의 각각의 사례발표, 찬양사역자 강찬의 찬양 콘서트, 말씀 및 기도회 순으로 11일 모든 일정이 마무리 됐다.

12일에는 △최현식 소장(아시아미래연구소)이 ‘흔들림 없는 청년목회와 미래, △유익근 목사(KOSTA본부 국제총무)가 ‘청년을 위한 열정의 목회’ 주제의 특강, 파송예배 일정이 진행됐다. 장지동 기자

대구대·경북대·고신대·대구가톨릭대, 다문화 공동 학술대회 개최

대구대학교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는 경북대 사회과학연구원, 고신대 기독교 선교교육연구소, 대구가톨릭대 다문화연구원과 함께 공동 국내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한국연구재단의 후원으로 이뤄진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의 다문화현상과 디아스포라의 트랜스컬러리티 적응’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대구대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는 2단계

연구과제인 ‘유학생의 초국적 실천에 관한 중·횡단적 추적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경북대 사회과학연구원, 대구가톨릭대 다문화연구원 등 공동 주최기관들의 연구 주제를 유기적으로 살펴보는 자리

를 마련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다양한 이주민의 문화 요소들의 새로운 생태계에 적응을 향한 추적 연구들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주요 내용은 ▲제1세션 7-10세기 동아시아의 디아스포라: 蕃坊과 新羅坊-윤재운(대구대) 등 3편 ▲제2세션 다문화가정 남편의 결혼적응에 관한 연구-고경자(다음젠더연구소) 등 3편 ▲제3세션 한국에서 세계시민 담론 형성에 관한 비판적 고찰-김혜옥·육주원(경북대) 등 3편이다.

대구대 윤재운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장은 “이번 공동 국내학술대회는 대구-부



대구대, 경북대·고신대·대구가톨릭대와 다문화 공동 국내학술대회를 마치고. ©대학 측 제공

산지역의 관련 대학이 공동으로 참여해 한국에서의 다문화현상과 디아스포라와 관련된 현안에 대한 다차원적인 실태를 공유하고 나아갈 방향성을 모색해 보는 매우 의미 있는 행사였다”고 말했다. 박준 기자

호정공원·순복음참사랑교회, 기독교 장례문화 보급 부활동산 구성

재단법인 호정공원(이사장 신영욱)과 순복음참사랑교회(담임 남기곤 목사)는 11일 성도의 아름다운 장례 복지 진흥과 기독교 장례문화를 보급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부활동산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신영욱 이사장과 남기곤 담임목사를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대중적인 유교와 불교의 혼합적인 장례문화에 더불어 기독교의 성경적인 천국 환송 문화 또한 확산·정착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의 상호 협력적인 관계 속에서 앞장서 나가기로 했다.

신영욱 이사장은 “호정공원은 예수님의 시신을 정성스럽게 장례했던 요셉의 마음으로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당한 이웃에게 정성스러운 마음을 담아 장례 대행, 장지 분양, 묘지 이상 등 장례 모든 분야에서 도움을 드리고자 만든 믿음의 기관으로 고인에게는 자연에 품어 안겨 평



호정공원과 순복음참사랑교회 협약식 모습. ©교회 측 제공

안한 안식을, 유족에게는 고인의 뜻을 기리며 위로와 힘을 전달해 드릴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남기곤 담임목사는 “이곳 호정공원에서 영원한 삶의 시작, 생명, 추억, 안식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치유의 시간을 소중히 보낼 수 있기를 희망한다”면서 “앞으로 두 기관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하며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발산하는 모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순복음참사랑교회는 성령사역의 복음을 전하는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전북지방회에 소속된 교회다. 김민수 기자

“예배, 형식을 열기 전 마음을 열어야 한다”

박중순 목사, ‘어떤 예배가 바른 예배인가요?’라는 질문에



질문에 대해 답했다.

박 목사는 “우리가 자칫 오용하는 예배 용어들 가운데 회갑예배, 결혼예배, 완공예배, 축하예배 등 행사에 예배 용어를

붙이는 것”이라며 “예식이라고 해야 맞다. 왜냐하면 예배의 경우 사람을 대상으로 설정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 예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면 복장·용어·자세·분위기 등 예배다워야 한다”며 “예배 현장의 분위기나 차림이 케어받은 서드처럼 단단한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오신 사건을 성육신이라고 한다. 구원도

소통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세상에 오셨다”며 “설교자가 티셔츠에 반바지나 청바지를 입고 나서는 것. 그렇다고 서당 훈장처럼 근엄하고 화난 모습으로 나서는 것, 예배의 현장이 난장판처럼 보이는 것, 그리고 장례식장 분위기처럼 보이는 것 등 다 옳지 않다”고 했다.

아울러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열납하시는 예배, 모든 예배자들이 감격을 공유하는 그런 예배여야 한다”며 “예배는 형식을 열기 전 마음을 열어야 한다”고 했다. 장지동 기자

LX 하우스시스
www.lxhausys.co.kr

결국 LX Z:in이거나, 아니거나
편의성에 품격을 더한 프리미엄 창호, 슈퍼세이프

LX Z:in

생소한 문학상담... “자기 이해하고 통찰하게 만드는 힘, 매력 있어”

[인터뷰]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이해성 총장

상담은 립 서비스 아냐... 인간다운 인간으로 성장시키는 것 문학상담, 자기 자신 이해하고 표현하는 것이 핵심 청소년들에게 주입하는 것 그만... 잠재력 끄집어 내야

◆평생 청소년들 위한 교육자이자 상담가로 살아온 삶

‘문학상담’이라는 다소 생소한 영역을 다루고 있는 상담가인, 이해성 총장은 80세가 넘는 나이에도 오랫동안 섬긴 동 안교회의 미술선교부에서 작품활동을 할 정도로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카운슬러협회 회장, 한국청소년 상담원 원장, (사)한국심리학회 의 상담 및 심리치료학회 회장 등 주요 경력만 봐도 청소년들을 위한 상담가로, 대학의 교수로도 평생을 살아온 이 총장은, 현재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를 이끄는 총 장으로 재직 중이다.

60년대, 초등학교나 중학교도 가기 어려웠던 시절에 서울대 국문과를 졸업 후 택한 직업은 중학교 선생이었다. 문학소 녀였고, 청소년들 문학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존경받는 교사로서 삶을 사셨던 아버지의 직업을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재직 5년 후에 진로를 바꾸게 된다. “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는 것이 한 사람이 자신의 생각과 문학적 감수 성을 말과 글로 표현하여 문학을 잘 다 료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실 상은 수업 시간에는 문학의 감성과 본질 을 제대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문법이나 어떤 교육체계의 틀, 시험 문제의 정답을 찾기 위한 공부들이 싫었다”며 “이런 방 식으로는 청소년들의 창의성 개발이나 자신을 깊게 들여다보는 기회를 줄 수 없다. 그리고 학생들은 성장하는데, 나 는 항상 똑같은 교과서로, 똑같은 내용 을 가르치는 것 같이 느껴졌다. 나는 성 장을 원했다”라며 진로 변경의 이유를 설명했다.

1968년 그 시기, 이 총장은 29살의 ‘노 처녀’였다고 한다. “그럼에도, 아버지가 나에게 많은 힘을 주셨다. 그 시대의 한국 사회의 통념과 다르게 여성인 나에게 도 ‘역량과 재능을 키우라’고 격려해 주 셴다. 아버지는 교사로 일생을 보냈었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제자들이 딸 들인 우리 형제들에게 감사를 표하기도 했을 정도로 존경받는 분이였다”고 했다.

부모님은 이북 출신으로 이 총장이 지금 도 미술선교부에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동안교회’(담임 김형준 목사)의 초 창기 성도였다고 한다. 이 총장은 그 교 회에서 평생을 신앙생활을 해 왔다.

국어 교사로 재직하며 한계를 느낀 이 해성 총장은 진로를 변경했지만, 청소년 에 대한 마음은 여전했다. 그래서 청소년 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 심리상담을 선택했고, 미국 유학길에 오른다. 그 후 서 울여대와 이화여대를 비롯한 오랜 교수 생활과, 청소년 사역과 상담에 관한 공 적 일에 헌신해 왔다. 모든 일은 거의 청소년 사역과 관련되어 있다. 그리고 청소년

년 상담과 더불어 ‘여성, 문학상담, 인문 상담’ 등을 비롯한 폭넓은 활동과 저술 도 빼놓지 않았다.

그런, 이해성 총장은 자신의 ‘50년 상담의 결론’을 “로맨틱 카운슬링, 원더 풀 카운슬러(Romantic Counseling, Wonderful Counselor)”라고 제시했다.

왜 로맨틱인가? 이 총장은 이에 대해 “상담실에 가면 내담자들(상담을 받는 사람)은 대개 상처를 위로 받고 공감을 얻고, 수용되고, 이해받고 싶어서 상담을 받으러 간다”며 “결국, 상담자에게 얻을 수 있는 도움은 사랑”이라고 했다.

‘HELP’는, (H: hope, E: encouragement, L: love, P: peace)의 축 약어로, 이 총장이 추구하는 상담의 핵심 소이다. “상담은 삶 속의 삶을 찾아 가는 여정이다. 삶이라는 글자 안에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들이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삶의 여정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상담”이라고 정의했다.

동시에, 현재 상담의 흐름이 급속도로 대중화되면서 ‘피상화’되어 가는 경향에 대한 비판도 빼놓지 않았다. “요즘 사람들은 상담을 너무 쉽고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상담은 그런 것 (가벼운 위로, 단순한 기분 전환용)이 아니다. 내담자가 진정한 자신을 찾고, 자신을 성장시키고, 인간다운 인간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상담이 립 서비스로 끝나면 안 된다”고 조심스 럽게 경고한다.

이해성 총장의 남편인 우천 오병태 회장은 기업 이득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마음으로 자신이 일생 벌었던 재산으로 학교를 설립했다. 아내가 상담학 교수이고, 청소년상담원 원장을 하고 있었음 에 착안해 상담대학원을 고민하게 됐다. “젊은이들이 자기의 인생에 바탕한 실력 을 키우는 것이 상담교육이며, 육성사업 으로 생각”하여, 이들은 ‘한국상담대학 원대학교’를 2010년에 설립하게 된다. 이 총장은 “직접적으로는 아내를 위해서”였 다며 “남편이 ‘당신을 위해서 학교를 세 운다’라는 말을 나에게 종종 했었다”고 미소를 띄우며 고백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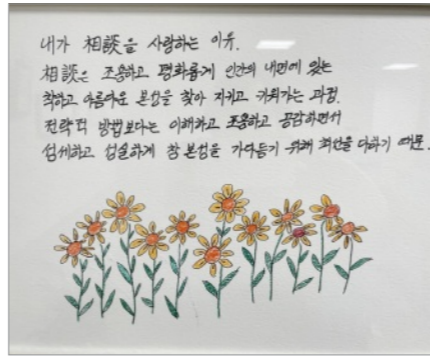
‘성장, 소통, 실현’이 교육목표인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는 인간의 발달단 계별로, 아동, 청소년, 산업, 노년, 등 다양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더불어 철 학 상담과 문학 상담, NLP(Neuro-Linguistic Program) 등의 특정 영역을 활용한 상담도 진행되고 있다. 교수들과 학생들도 단순히 정보를 주고받는 피상 적 관계가 아닌, 멘토와 멘티의 관계로 인격적인 만남을 맺고 있다고 소개했다.

◆문학상담으로 자기 이해와 성숙 과정 도와

아직은 일반인에게 다소 생소한 ‘문학 상담’은 ‘문학활동’을 매개로 하는 상담 이다. 이 총장은 “상담은 자신을 튼튼하 게 키워서 자신답게 사는 삶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기가 자기 삶 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자기 됨됨이를 이해하며 자기 스스로 만족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잘 이해하고 표현하는 것이 핵심’으로, 이런 개념 을 적용하여 문학상담은 ‘성장, 수용 적 용, 실현’ 등 4가지 단계로 진행된다. 내 담자가 언어를 통해 표현하는 과정 속 에 서 ‘문학을 통한 자기표현’과 ‘통찰력’을 통해 자기를 이해하고 성숙하는 과정을 걷게 된다. 이처럼 ‘표현력과 통찰력을 활용하는 것이 문학상담’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문학상담 과정에서는 내 담자가 자기 일을 시와 수필처럼 쓰게 된다. 이 총장은 “글을 쓴다는 것은 ‘자



이해성 총장의 시화작품 ©이상진 기자

기표현’이고, ‘자기해방’으로, 이를 통해 내담자가 자기 자신을 객관화하는 과정 을 통하는 상담”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특정 병리적 현상을 치료하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다. 내담 자가 자기의 생각과 느낌을 제대로 알고 내면과 삶을 성장시키는 과정에 집중하 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문학상담의 주어는 상담이기 때문에 문학상담은 문학 평론이나 문학 비평이나 분석이 아니다”라고 설명한다. 문학상담은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 으로 “전인적으로 사람을 보는 것이다. 자신의 심리를 분석하고 조개는 것에 초 점을 맞추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문학 상담의 한 예시’로 ‘시 콜라주(Collage)’ 작업을 들었다. 상담의 참가자들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쳤거나, 자신의 마음에 ‘울림’이 있는 시가 적화된 종이를 가지고 찢어서 붙이는 시각적 작업이다. 단순히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내담자들이 함께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자신의 시와 연관된 마음과 경험을 서로 나누는 작업이다. 주제로는 ‘영글어 지는 자연과 만남, 친구와 만남’ 등 다채 로울 수 있다.

시 콜라주 작업 매력으로 “참가자들 이 다른 사람들의 다양한 생각을 배우 면서 자신의 지경이 확장되고 다른 이 들과 합일되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된 다”며 “내가 미처 몰랐던 것을 알게 되고 상대방에 대해서도 지평을 얻게 된다. 인생이라는 것이 상대방을 알아가는 것 아니겠는가? 그 과정이 다양하게 해주 는 것이 ‘문학상담의 매력’이라고 했다.

◆청소년들의 잠재력 믿어주고 수용해 줘야

“청소년들이 많이 무너지는 세대이다. 대안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청소년 들과 많은 대화를 해야 한다”고 하며 어른들의 대화법을 지적했다. “어른들은 학생들에게 무엇인가를 집어넣고 가르 치려고 드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자신의 모습으로 창조하셨다. 아이들은 누구나 잠재능력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 잠재력 을 믿어주고 수용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며 성인들의 대화법에 대한 교육을 강조 했다.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뭔가 집어넣는 것이 아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이미 넣어 주신 것을 그들로부터 끄집어내는 것”이 라고 강조한다. 특별히 어린이들도 강력 하게 영향을 받는 미디어가 잠식한 이 사회에 대해 “책 『2024년 트렌드코리아』에서는, 우리 사회는 ‘분초사회’라는 말을 하더라, ‘분초단위로 바쁘게 돌아 간다’는 의미이다. 이런 시기일수록 우리 의 내면의 중심을 잡기가 어렵다”며 “이 를 위해 자신을 침잠시키고, 혼슈하고, 명상하고, 깊게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녀는, “예수님은 ‘원더풀 카운슬러’ 라며 “예수님은 사람을 진심으로 이해 하고 수용하고 그 사람이 진심으로 원하는 것을 일깨워주면서 그 힘이 그 안에 있음을 알려주는 진정한 카운슬러”라고 이야기했다.

마지막으로, 80세가 넘는 이 총장은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질문에도 정력적 인 대답을 내놨다. “상담을 인문학에 기 반해서, 인간을 보다 깊고, 입체적으로 하나님께 창조 때 부여하신 신비한 가능성 을 펴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것 이 인문학에 바탕한 ‘인문상담학’으로, 앞으로 인문상담학 연구회나 학회를 만들어 이것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보급하 는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상진 기자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총장실에서 이해성 총장의 모습. 이 총장은 “청소년들을 가르치려 들 지 말고, 주님이 그들에게 이미 넣어 주신 것을 끄집어내야 한다”고 말한다. ©이상진 기자



문학상담 시간, 한 참여자가 시 콜라주를 만들고 있다.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이해성 총장이 학생들과 수업시간을 갖고 있다. 이해성 총장은 “상담자에게 얻을 수 있는 도움 은 사랑”이라고 말했다.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젊은 날의 이해성 총장과 그녀의 아버지, ©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금융의 모든 순간 NH농협금융

서민의 생활이 나아지도록, NH가 손을 보겠습니다

NH농협금융은 다양한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농민은 물론, 사회 취약계층의 생활을 도와 상생의 가치를 실현해 나갑니다

World EXPO 2030 BUSAN, KOREA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됨 NH농협금융이 응원합니다

NH농협은행 NH농협생명 NH농협손해보험 NH투자증권 NH-Amundi자산운용 NH농협캐피탈 NH저축은행 NH농협카드 NH농협저축 NH농협증권 NH농협보험 NH농협카드

美항소법원, 예배당 총기 소지 금지법 시행 중단

미국 항소법원이 예배 장소에서 총기 등을 휴대하는 것을 금지하는 뉴욕주 법에 반대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해당 법의 시행을 막는 하급심 판결을 확정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8일 제2순회 항소법원은 뉴욕 주의 은닉소지개선법(Concealed Carry Improvement Act, CCIA)에 대한 여러 이의 제기를 중심으로 한 4건의 사건에 대한 261페이지 분량의 의견을 발표했다.

재판부는 예배 장소에서의 무기 소지를 금지하는 법률 조항에 대해 “원고들은 해당 법률(CCIA)이 그들의 성실한 종교적 실천에 부담을 준다고 충분히 주장했다”고 판결했다.

또한 법률이 “대중에게 열려 있는 다양한 유형의 상점을 포함한 많은 종류의 사

유 재산 소유자들이 재산 내에서 총기를 허용할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도록 허용하면서, 예배 장소에는 동일한 자율성을 불허하는 것은 중립적이지 않다”고 명시했다.

재판부는 “이 법률은 (다른 명시된 민감한 장소들과 함께) 예배 장소에 대해 대부분의 다른 개인 소유 사업체 및 자산과 다르게 적용되는 법률을 채택함으로써, 중립적이지도 일반적으로 적용 가능하지도 않다”고 밝혔다.

법원은 “(뉴욕) 주는 교회 지도자들이 교인들의 총기를 규제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다른 재산 소유주들에게 동일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이 법은 종교 단체 전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교회가 총



미국 뉴욕주 호스헤드에 위치한 히즈 터버너클 패밀리 처치의 메인 캠퍼스. ©히즈 터버너클 패밀리 처치

기 허가 여부를 (개인)이 스스로 선택하는 권리를 박탈함으로써 어떤 이익을 증진시키는지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2022년 7월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CCIA에 서명했다. 이 법은 은닉 휴대 면허를 취득하려는 사람들에게 “전망한 도덕

적 성품”을 요구하며, 교회 보호구역과 같은 “민감한 장소”에서의 은폐된 무기 소지를 범죄로 규정했다.

호컬 주지사는 당시 “뉴욕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신속하고 대담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우리의 총기법을 강화하고 은폐된 휴대 무기에 대한 제한을 강화할 이 획기적인 법안에 서명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뉴욕주 상원 의회 원내대표인 안드레아 스투어트-커즌 의원은 “우리는 뉴욕주가 쉽게 숨겨진 무기로 쉽게 범람하는 것을 방지하고 총기가 잘못된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우리가 통과시킨 이전의 총기 폭력 방지 법안과 더불어, 이번 조치는 미국 인구보다 총기가 더 많은 시기에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뉴욕주 호스헤드에 위치한 히즈 터버너클 패밀리 처치(His Tabernacle Family Church)와 마이클 스펜서 담임목사는 2022년 11월, 주정부를 상대로 이 법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무법인 퍼스트 리버티연구소(First Liberty Institute)가 대리했다.

작년 12월 말,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뉴욕 서부 지구의 존 L. 시나트라 판사는 이 법안이 미국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그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주정부가 예배당을 할 수 없게 하는 일을 세속적 활동을 주최하는 수많은 다른 민간 행위자들에게는 허용한다는 것을 입증했다”며 “예배당 배제는 일반적으로 적용 가능한 중립적인 법이 아니다”라고 결론 내렸다.

유진 김 기자

브라이언 휴스턴, 내년 온라인 교회로 복귀 선언

힐송교회 창립자 브라이언 휴스턴(Brian Houston-69) 목사가 2022년 글로벌 힐송교회 담임직을 사임한 지 2년 만에 새로운 온라인 사역으로 복귀할 것을 예고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휴스턴 목사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엑스(X) 구 트위터)에 최근 근황을 알리며, 그와 아내 바비가 새로운 사역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6일 소셜미디어 엑스에 “바비와 나는 2024년에 매주 온라인 사역과 교회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 새로운 커뮤니티를 만들게 되어 매우 흥분된다”고 말했다.

휴스턴 목사는 새 사역에 대한 세부 사항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발표는 휴스턴의 딸 로라 토카니 발루와 남편 피터 노가니발루가 새 교회 개척을 발표한 지 두 달여 만에 나왔다.

이 부부는 휴스턴 목사가 글로벌 담임직에서 물러난 지 1년 만인 올해 5월, 힐송 청년부 글로벌 담임직에서 물러났다.

휴스턴은 1999년 아버지 프랭크 휴스턴 목사의 아동 성추행 은폐 혐의로 고발을 당해, 2021년 9월 힐송교회 이사회에서 물러났다. 이어 2022년 1월, 글로벌 힐송교회는 휴스턴이 형사 고발을 앞두고 교회 이사직을 사임했다고 발표했다. 당시 그는 어떠한 혐의도 부인했고, 2022년 8월 호주 법원은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가레스 크리스토퍼 시드니 치안 판사는 휴스턴이 당시 아버지가 브렛 쉰스톡을 학대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데에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휴스턴은 이후 호주 공영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아버지로 인한 성학대 피해자



힐송 교회 설립자 브라이언 휴스턴이 2022년 8월 22일 워싱턴주 시애틀에 있는 크리스천페이 스센터(Christian Faith Center)에서 연설하고 있다. ©크리스천페이 스센터 유튜브 캡처

들에 대해 “많은 이들의 삶이 비극적인 상처를 입었다. 나는 언제나 깊이 슬퍼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자신을 향한 고소에 대해서는 “오늘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사실 난 항상 죄가 없었다. 당국의

표적 공격의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무죄 선고와는 별도로, 2022년 4월 캘리포니아에서 그는 음주 운전으로 체포돼 140달러 과태료와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유진 김 기자

수감 중인 이란 인권운동가 노벨평화상... 자녀가 대리 수상

수감 중인 이란 인권운동가 나르케스 모하마디를 대신해 그녀의 10대 자녀들이 10일(현지시간) 노르웨이 수도 오슬로에서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51세의 모하마디는 이란 당국에 의한 수많은 체포와 감옥에서 세월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간의 적극성으로 인해 지난 10월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그는 이란에서 여성의 권리와 민주주의를 위해 캠페인을 벌이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오슬로 시청에서 열린 시상식에는 모하마디의 남편과 함께 파리에 망명해 살고 있는 모하마디의 17살 쌍둥이 딸 키아나와 아들 알리 라흐마니가 대리 참석했다. 노벨평화상 메달이 빈 의자가 놓여있을 때 모하마디가 테헤란 감옥에서 쓴 수상 소감을 자녀들이 대독했다.

모하마디는 자녀를 통해 전한 노벨평화상 수상 소감에서 “감옥의 높고 차가운 벽 뒤에서 이 메시지를 쓴다”며 “나는 중동 여성이고, 풍부한 문명에도 불구하고, 전쟁과 테러의 불길, 극단주의 속에 갇혀 있는 지역 출신”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이어 모하마디는 “이란 사회는 전 세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여러분과 언론인, 미디어 전문가들은 이란 정부의 파괴적인 폭정에 맞서 싸우는 우리의 가

장 위대하고 중요한 동맹”이라며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이 우리를 위해 해준 모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했다.

모하마디의 남편 타히 라흐마니(63)는 자녀들이 명망 있는 상을 받는 것을 보기 위해 청중석에 있었다. 그는 이전에 자녀들이 거의 8년 동안 어머니를 보지 못했고, 자신 또한 11년 동안 아내를 볼 수 없었다고 전했다.

모하마디는 여성들에게 머리와 전신을 하잡으로 가리도록 강요하는 엄격한 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해 경찰에 구금된 22세의 마흐사 아미니의 사망으로 촉발된 시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나르케스 모하마디는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19번째 여성이자 2003년 인권운동가 시린 에바디에 이어 두 번째 이란 여성이다. 122년 시상식 역사상 옥중이거나 가택연금 중인 사람에게 노벨평화상이 수여된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한편 이란 당국이 유럽연합의 최고 인권상인 사하로프상을 받기 위해 프랑스로 가려던 아미니의 가족들이 여행하는 것을 금지했다고 미국에 본부를 둔 이란의 인권운동가통신(HRANA)이 9일 밝혔다. 아미니의 가족을 대신해 인권운동가통신이 사하로프상을 대리 수상했다.

박준호 기자

美미시시피 142개 교회, 동성애 분열로 UMC 탈퇴

미국 미시시피 주의 142개 교회가 2019년 이후 동성애에 대한 입장 차이로 분열 중인 연합감리교회(United Methodist Church, UMC)를 탈퇴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UMC 미시시피 연회는 지난 9일 잭슨 앤더슨 연합감리교회에서 열린 소집 총회에서 주의 142개 회원 교회의 탈퇴를 승인했다.

이번에 탈퇴한 잭슨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Christ United Methodist Church)는 미시시피 주에서 가장 큰 교회로, 지난 10월 자체 투표에서 찬성 717표, 반대 112표로 교단을 떠나기로 결정했다. 이 교회는 내년 1월 1일부터 명칭을 ‘그리스도 연합 - 잭슨(Christ United - Jackson)’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샤르 루이스 미시시피 연회 감독은 탈퇴 투표를 승인하며,

개별 교회에 대한 투표 결과는 추후에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루이스 감독은 결과 발표 직후 연설에서 “박수를 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하자 장내에는 침묵이 흘렀다. 그는 “아직도 민감하고 고통스러운 문제이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변화의 길로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6월, 미시시피 연회는 189개 회원

교회의 탈퇴 결정을 승인하는 투표를 진행했는데, 이는 지역 연회의 약 5분의 1에 해당했다.

UMC 장정은 동성 결혼의 축복과 동성애자 성직 임명을 공식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UMC 내 많은 진보적인 지도자들이 이러한 규칙을 거부하자 많은 보수 교회들의 탈퇴로 이어졌다.

유진 김 기자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처방은?

에너지 절약

한국지역난방공사
KOREA DISTRICT HEATING CORP.

깨끗한 에너지로 세상을 따뜻하게

서천성시화운동본부, '2023 사랑나눔행복콘서트' 개최

서천군청, 서천사랑장학회, 샘물선교회 등에 성금 전달

서천성시화운동본부(본부장 정진모 목사)가 최근 서천문예의전당에서 2023 사랑나눔행복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날 콘서트에는 지역 교회 목회자와 성도, 장동혁 국회의원, 김기웅 군수, 김경제 서천군의회 의장, 전이현 도의원을 비롯한 기관·단체장들이 참석했다.

서천성시화운동본부 복지분과위원회(위원장 연기욱 목사)와 찬양분과위원회(위원장 황공주 권사)가 주관하고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충남성시화운동본부, 서천군기독교연합회, 새서천CBMC, 서천사랑통합케어센터가 후원 및 협력한 이날 콘서트는 개회예배와 사랑나눔 성금전달 그리고 행복 콘서트 순으로 진행됐다.

최효장 목사(사무국장)의 인도로 진행된 예배에선 안영규 목사(부본부장)의 기도, 연기욱 목사(부본부장)의 성경봉독에 이어 본부장 정진모 목사가 시편 117편 1절 본문,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정 목사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며 "그렇기에 대통령부터 모든 국민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찬양해야 한다. 그래야 나라가 잘 된다"면서 "우리 성도들은 국가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했다.

정 목사는 "서천군성시화운동본부는 매년 사랑나눔콘서트를 통해 얻은 수익금으로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을 돕는 일을 해왔다"며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성탄을 앞두고 우리 모두가 연약한 이웃의 친구가 되어 사랑과 섬김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진모 본부장은 모야진 수익금으로 서천군청, 서천사랑장학회, 샘물선교회, 경찰선교회, 군부대, 미자립교회, 은퇴목회자선교, 학부모연대, 탈북선교 등에 성금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이어 진행된 행복콘서트에선 찬양시역자 황공주 권사의 진행으로 목양교회가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 학생들의 오카리나 연주, 안단테찬양봉사단의 캐럴송, 찬양시역자 강복선 집사(전주세길교회), 황공주 권사(한산제일교회), 서천성시화운동본부 파워찬양단, 찬양시역자 김귀자 사모(전주영화교회), 찬양시역자 안서연



서천성시화운동본부 '2023 사랑나눔행복콘서트'가 최근 서천문예의전당에서 열렸다. ©서천성시화운동본부



공연하는 모습 ©서천성시화운동본부

전도사(남원금지교회), 가수 선철 집사(기산교회)의 찬양, 여정태 집사(서천교회, 전KBS 관현악단의 색소폰 연주, 변재민(기타리스트, 천안천성교회)의 기타연주, 예장 합동 충청노회 남전노회 4중창의 찬양이 있었다.

이날 행사는 박종렬 장로(교육국장)의 광고와 김철영 목사(세계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의 축도로 막을 내렸다.

지도자들은 서면 축사를 통해 서천성시화운동본부 사역을 축복했다. 김기웅 군수는 "오늘 이 자리가 약자와 소외된 자, 도움이 손길이 절실한 이웃을 돌보고

모든 사람의 빛이 되어 우리 사회를 더 환하게 비추고 모두가 회복되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장동혁 국회의원은 "추운 겨울이지만 서로의 따뜻한 손길과 마음이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들어 줄 것"이라며 "새해에도 늘 주변 이웃에게 사랑과 나눔을 베푸는 삶을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김경제 서천군의회 의장은 "여러분께서 나누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그늘지고 소외된 이웃들의 추운 겨울을 녹이는 따뜻한 선물이 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김병관 서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이웃 사랑과 섬김은 예수님의 가르침이자 우리 사회 곳곳의 공동체를 건강하게 지켜주는 덕목"이라며 "우리 학생들도 이러한 품성을 배워 모두 건강한 서천의 일원으로 성장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 김철영 목사는 "빌립보 감옥에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송했을 때 옥문이 열렸고, 간수장의 가족이 구원 받았던 것처럼 사랑나눔행복콘서트를 통해 서천 땅에 영적 부흥과 생명 살림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충남성시화운동본부 상임회장 오종철 목사는 "사랑나눔행복콘서트를 통해 감동적인 사랑 나눔이 실천되고 다가올 성탄과 새해를 힘차게 준비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서천문예의전당에서는 서천군을 위한 조찬기도회를 개최하였으며, 총선, 대선, 지방선거 공명선거 및 투표참여 캠페인, 사랑나눔 일일카페,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 삭제 개정활동, 파워찬양단 순회 찬양집회, 저출산 극복 캠페인 등 다양한 사역을 펼쳐왔다. 김진영 기자

일산운정벤엘교회, 굿윌스토어에 후원



밀알복지재단은 경기 고양과 파주에 위치한 일산운정벤엘교회가 굿윌스토어에 1000만 원을 후원했다고 밝혔다. ©밀알복지재단

밀알복지재단(이사장 홍정길)은 경기 고양과 파주에 위치한 일산운정벤엘교회(담임목사 박광석)가 굿윌스토어에 1000만 원을 후원했다고 최근 밝혔다.

지난 7일 굿윌스토어 밀알일산점에서 진행된 전달식에는 밀알복지재단 한상욱 굿윌본부장, 굿윌스토어 밀알일산점 송동근 원장, 일산운정벤엘교회 오중식 장로 및 교회 관계자 2명이 참석했다. 후원금은 밀알복지재단 굿윌스토어를 통해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용된다.

일산운정벤엘교회 오중식 장로는 "우리 교회는 벤엘교회 유지재단을 설립하여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교회, 탈북민 단체, 의료 선교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이번 후원을 통해 장애인에게 자선이 아닌 기회를 선물할 수 있어 감사하다"고 밝혔다.

밀알복지재단 한상욱 굿윌본부장은 "장애인과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해 따뜻한 기부금을 전달해주신 일산운정벤

엘교회에 감사드립니다"며 "후원금을 바탕으로 장애인과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해 따뜻한 기부금을 전달해주신 일산운정벤

장애인과 그 가족들도 평범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했다. 최승연 기자

월드비전,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메시지 국제사회에 전달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회장 조명환)은 한국시간으로 지난 9일 밤, 제28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8)에서 <기후위기에 있어서 기후탄력성으로: 취약지역에서의 기후 적응과 평화증진 노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1일(월)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기후위기가 취약국가 아동과 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리고 또 이들이 단지 피해자이자 또 수동적인 수혜자가 아닌 기후변화 대응 노력의 적극적인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분쟁 및 취약지역에서의 글로벌 기후행동을 주제로 취약지역의 기후탄력성 강화를 위해 각 분야에서의 전략과 대

응에 대해 발표했다. 테레사 왕(Theresa Wong) 유엔식량농업기구 근동&북아프리카지역 사무소 자원관리 전문관이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전략과 대응을 발표했고, KOICA의 전략과 대응에 관해서는 김경아 한국국제협력단 기후감염병 위기대응팀 과장이 맡았다. 마지막으로 월드비전의 전략과 대응에 대해서는 알레마예후 마르코스(Alemayehu Markos) 에티오피아월드비전 식량안보&생계지원본부 농민주도산림복원 전문관이 에티오피아 현지에서 주민들이 겪는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전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월드비전이 진행하고 있는 농민주도산림복원에 대해 소개했다.

이러진 토론에서는 '취약지역에서의 역



월드비전이 <기후위기에 있어서 기후탄력성으로: 취약지역에서의 기후 적응과 평화증진 노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월드비전

량강화: 기후변화 피해자에서 변화의 주체'라는 주제로 학계와 국제기구 등이 취약국가 현황의 상황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최승연 기자

대구서문교회, 중구청에 '이웃돕기 김장김치' 기탁

대구서문교회(담임 이상민 목사)는 최근 중구청(구청장 류규하)을 방문, 이웃돕기 김장김치 5kg 150상자(600만원 상당)를 기탁했다.

대구서문교회 이규찬 장로는 "장기화

된 경기침체 및 고물가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구 저소득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번 기탁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류규하 중구청장은 "모두가 어려운 시

기에 구민을 위해 나눔을 실천한 서문교회 구성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리며, 기탁해주신 성품은 꼭 필요한 곳에 소중히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노형구 기자

임실교회, 임실군에 소외이웃 돕기 성금 기탁

임실군은 임실교회(담임목사 송희중)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관내 소외계층을 위한 이웃돕기 성금 3백만원을 임실군에 기탁했다고 최근 밝혔다.

임실교회는 그동안 어르신이 행복한 노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대학 및 아동들의 정서 함양과 학습향상을 위해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송희중 담임목사는 "교회 성도들이 모금한 성금이 추운 연말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정이 되어 작은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노형구 기자

동화약품

무좀, 이젠 붓으로! 한번에!

*이 약은 단 1회 적용한다.

권순우
한국 최초 남자 프로테니스 통산 2회 우승

일반의약품

바르지오 원스

외용액 (테르비나핀염산염)

발가락 사이 무좀엔 바르지오 원스
손발톱 무좀엔 바르지오 네일라카
발가락 밑바닥 안쪽 무좀엔 바르지오 모두리핀

“민주화 운동으로 투옥되었을 때, 김지하 시인이...”

김지하 시인과 김진홍 목사의 엇갈린 길
부어나팍 교회 사경회, 김진홍 목사 창세기 강해

부어나팍 사경회 첫째날인 12월 4일(월) 두번째 강의에서 김진홍 목사는 창세기 3장 타락한 아담을 향한 하나님의 질문, 아벨을 살해한 가인을 향한 하나님의 질문에 담긴 함의를 설명한 후, 1970년대 민주화운동을 하다 투옥되었던 경험, 청계천에서 도시빈민선교에 몸 담았던 경험 등을 나누며 창세기 후반부 믿음의 열조들의 삶을 풀어내었다.

김진홍 목사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이 “인간이 가장 중요하게 대답해야 될 질문”이라며, 하나님 앞에 내가 어디 있는가, 내 정체성에 관한 질문이라고 말했다. 또 가인과 아벨 사건을 통해, “인간 역사가 계속되는 한 전쟁은 없어지지 않는다. 사람 마음 속에 전쟁이 들어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의 자리는 이 수평과 수직이 만나는 자리

그는 “첫째 질문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과 나와 관계에 대한 것이며, 두번째 질문은 이웃과의 관계에 관한 것이다. 두 질문에 제대로 대답할 때 영적으로 균형잡힌 신앙이 된다”며,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의 자리는 이 수평과 수직이 만나는 자리”라고 말했다.

“신약에 가면 두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으신다. 이게 영적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이다. 예수님을 누구로 믿고 고백하는가?”

◆김지하 시인과 그의 엇갈린 구원의 길

김진홍 목사는 이 질문에 대해 논하며, 그의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헌법에 반대했다가 정치범으로 감옥에 갔을 때, 그의 옆방에 함께 투옥되어 있던 김지하 시인과 자신의 엇갈린 구원의 길에 대해 나눴다.

“30대에 박정희 대통령 유신헌법에 반대하다가 감옥에 갔다. 내 옆방에 김지하 시인이 있었다. 그는 성경책을 읽은 후 예수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아름다운 인간 예수. 역사상 공자님보다 더 아름답고 석가모니보다 더 수준이 높은 아름다운 인간’ 그러니까 고백이 없다. 그래서 감옥에서 나온 뒤 김지하는 자기에게 영세 세례준 신부님을 찾아가서,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우리 민족의 모순과 아픔을 해결하는 데 기독교로는 안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김지하 시인은 석방되어 나온 후 창조화회를 만들었다. 그곳에서 특강을 하는데 기독교는 서구 제국주의의 앞잡이라고 비판했다. 김지하 시인은 나중에 뭐라고 썼냐면, ‘우리 민족이 나갈 길은 단군 신화이고 전통의 동학 사상이 인류의 대안이다.’”

“지금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이다. 예수님을 누구로 믿고 고백하느냐가 그 사람의 본질이고, 가치이다.”

◆네번째 질문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는 요한복음 5장 6절에 네번째 질문이 있다며, 그의 빈민촌에서 사역할 때의 경험을 나눴다.

“요한복음 5장 6절에 네번째 질문이 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빈민촌에 들어가 가난한 사람들하고 일하는데 참 답답해요. 돈 좀 생기면 술 먹



김진홍 목사가 창립 2주년을 맞아 말씀 잔치를 준비한 부어나팍 교회에서 사경회를 인도했다. ©부어나팍 교회

고, 아이들 학교에 안 보내고 공장에 보내고, 초등학교 애가 공장에서 얼마 받아오면 그 돈을 빼앗아 술을 먹는다. 내가 열 받아서, 내가 설교에서, ‘내가 볼때 청계천 빈민촌에 안 올 사람이 온 사람 없습시다. 절약 안하고 술 마시고, 애들 교육도 안시키고 마침내 빈민촌에 다 온게네요.’ 그랬더니, 듣기 싫어한다.”

그는 하나님의 복이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듯 오는 것이 아니라 인내와 기도를 통해 누리게 되는 것이라 말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현찰로 탁 주는 게 아니다. 인내하고 절약하고 기도하고 마침내 주는 복을 누리게 되길 바란다. 창세기 35장, 야곱이 객

지에 나갔다 30년 만에 돌아오는데 빈털털이가 되어 오기도 못하는 외통수에 몰렸다. 그런데 하나님이나 나타나셔서 벨로 올라가 단을 쌓으라고 하신다. 창 35:9절이 중요하다. 야곱이 빈손 털고 돌아왔는데 하나님은 복을 준비하고 있었다. 거기서 야곱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다. 야곱은 육의 사람, 이스라엘은 영의 사람이다. 우리가 야곱으로 살아왔을 지라도 이스라엘로 변화될 수 있길 바란다.”

◆꿈 없는 사람은 부자집 아들도 자살

야곱에 이어, 김진홍 목사는 야곱의 아들 요셉의 삶을 이야기하며 젊음과 늙음은 세월에 달려 있기 보다는 꿈의 유무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나이 많은 청년이 있고 젊은 늙은이가 있다. 꿈이 없고 변화가 없으면 늙는다. 세월이 간다고 늙는 게 아니다. 꿈꾸는 사람이 야곱의 아들 요셉이다. 창 37장 18절, 야곱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별명이 꿈쟁이였다. 꿈 없는 사람은 부자집 아들도 자살한다. 한국이 14년째 자살률이 14년째 1등이다. 노인 자살률, 중고등학생 자살률이 14년째 1등이다.”

“꿈이 있고 변화가 되면 그 사람이 쓰임 받는다. 창세기 39장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가 4번 나온다. 종으로 팔려가도, 감옥에 가도 함께 하신다. 신앙의 네 기둥이 있다. 첫째는 창조신앙, 두번째는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신앙이다. 세번째는 십자가, 네번째는 부활신앙이다. 이 네가지가 신앙의 건물을 받쳐주는 네 기둥이다.”

◆요셉, 작은 예수

“요셉의 일생이 예수님의 일생과 다섯가지가 닮았다. 그래서 요셉을 작은 예수라고 한다. 첫째 요셉은 형들에게 팔렸고 예수님은 30년에 팔렸다. 요셉은 형들에게 배반당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배반당했다. 예수님은 제자에게 팔려 십자가에 죽고 무덤에 묻혔다.”

그는 두번째 강의를 마무리 하며, 요셉의 두 아들의 이름에 담긴 의미를 통해, 신앙인이 가져야 할 삶의 자세에 대해 나눴다.

“요셉이 두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의 이름이 중요하다. 장남의 이름이 므낫세, 과거의 상처와 트라우마 하나님이나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뜻이다. 과거에 매이는 사람은 미래가 단단하다. 옛날에 상처 받은 것, 돈 때인 것, 사기 당한 것 다 잊어버리게 바란다.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 번영이다. 과거는 청산하고, 미래에 번영하는 자가 되길 바란다.”

세계한인기독언론협회, 신앙도서 독후감 시상식 가져

세계한인기독언론협회(회장 이영선 목사)의 정기총회 및 제9회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 시상식이 12월 7일(목) 오전 10시 30분, 미주복음방송 앰버하임 본사 공개홀에서 열렸다.

조명환 목사(크리스천위클리)의 사회로 시작한 1부 예배에서는, 이성우 목사(크리스천헤럴드 대표)가 대표로 기도했고, 설교는 민중기 목사(KCMUSA)가 설교했다. 민중기 목사는 ‘복된 좋은 소식의 파수꾼(이사야 52:7-12)’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기독교인의 중요한 역할에 대해 강조했다. 세상의 위기를 먼저 볼 수 있는 눈과 시각을 갖춰 신속히 전하는 역할, 환경에 지체 받지 않고 진실을 전하는 바르게 전하는 역할, 전달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반응하며 따르게 하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민중기 목사는 “언론기관은 제 4의 권력이라 할만큼 영향력이 큰 기관인만큼, 예수님이 ‘말

씀으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전해주시는 것처럼, 기독교인도 언어의 칼을 예리하게 갈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세상에 바르게 전할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1부 예배를 마치고 서중천 목사(크리스천투데이 발행인) 축도를 맡았다.

이어진 2부에서는 윤우경 본부장(크리스천헤럴드 총괄본부장)의 사회로, 제 9회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 시상식이 진행됐다. 이성자 전도사가 (미주)크리스천신문사 LA 지사장) 도서 선정 및 시상 과정에 대해 설명하며 “이번 공모에는 총 29편이 최종심사에 올랐으며 남가주 뿐 아니라 미 동부, 캐나다, 브라질, 한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지역의 참여와 관심에 큰 의미가 있었다”고 이야기했다.

백승철 목사는 평론가(문학평론가, 에피포도에 출판협회 대표)는 “올해 가장 많은 수상자가 나왔고 응모작의 수준도 눈에 띄게 향상되어 선정

이 쉽지 않았다는 심사 소감을 밝히며 “올해는 몇 가지 특이한 상황이 있다. 먼저 9회째 이르러 목회자가 처음 수상자 명단에 올랐다. 두 번째는 사모들이 글을 많이 보내왔다. 이번에도 두 명의 사모가 수상을 했다. 사모가 책을 읽으면 그 영향력이 목회자, 성도로 이어지는 긍정적 측면이 많다. 마지막으로 공모전이 이제 작가들의 통로가 되었다는 점과 독후감 수준이 상당히 평준화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9회째 가장 많은 수상자를 냈다. 그만큼 질이 높아졌다는 것에 감사한다”고 전했다.

시상은 이영선 목사(미주복음방송 사장, 제25대 세기언 회장)가 직접 꽃다발과 상패 등을 전했고 시상식에는 수상자 총 8명 중 남가주 지역에 거주하는 5명이 시상식에 직접 참가했다.

우수상에 조진석 목사(주의길교회, CA), 임보라 사모(북가주새누리교회, CA), 윤주미 성도(베델교

회, CA)가 선정됐고, 장려상에는 양유나 집사(생수의강선교회, CA), 임지영 집사(얼바인교회, CA), 임은아 집사(남가주영광교회, CA), 구계자 사모(뉴욕광명교회, NY), 한미란 집사(가스펠교회, CA)가 뽑혔다. 현장에 참여하지 못한 수상자들은 영상과 글로 소감을 담아 보내오기도 했다.

독후감 시상식에 이어 세기언 제26차 총회가 열렸다. 먼저 지난 24, 25대 세기언 회장직을 연임한 이영선 목사가 지난 회기 소회를 밝혔다. 이 목사는 “세기언이 더 확장하기 위해 동부 지역을 시찰했다. 하지만 염려만 더 크게 늘었다. 남가주도 그렇지만 다른 지역 기독교인 상황이 어렵더라. 세기언이 남가주에만 머물지 않기를 바랐는데 그래도 이번 다음 회기 회장이 북가주에서 나와서 그나마 연결고리가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세기언은 이날 총회를 통해 제26대 회장직으로 임승쾌 장로(크리스천타임스 발행인)를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임승쾌 장로는 “사실 지난 18, 19대 회장직을 하면서 많은 활동을 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 이번 기회를 통해 어떻게 그것을 만회하면 좋을지 고민하겠다. 미국에서 기독교가 위축되는 상황이다. 북가주도 그렇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타개하면 좋을지 방법을 여러 회원들과 논의해 보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세기언은 신임 임승쾌 회장을 포함 제26회를 이끌 임원진으로 부회장에 조명환 크리스천위클리 발행인, 이성자 미주크리스천신문 LA지사장, 이영선 미주복음방송 사장을, 서기에 윤우경 크리스천헤럴드 총괄본부장, 회계에 서인실 크리스천투데이 사장을 선출했다.

한편 신임 임원단은 2024년 1월 중 역대 회장단들을 초청, 모임을 갖고 협회의 이끌어 온 노고에 감사하며 아울러 협회의 미래를 위한 의견을 교류하기로 했다. 미주복음방송 제공

광고심의필 : 2017-1405-1900

소화 · 정 장 · 변 비 · 영 양 에 는 **일반의약품** Since 1956

원기소플러스 정



일반의약품으로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서울약품 | 주 인터넷 창에서 원기소플러스, 원기소 를 검색하세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첨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약사와 상의하십시오.

효모 · 효소 · 유산균 · 복합제제

腸(장)은 비우고, 영양은 채우고 소화력은 높이세요

- ✓ 효모는 각종 성분의 영양공급원입니다
- ✓ 효소는 소화를 도와주고 활성화해줍니다
- ✓ 유산균은 저하된 장기능을 개선해줍니다
- ✓ 효모속 베타글루칸 성분은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 ✓ 효모속 비오틴 성분은 탈모를 예방합니다
- ✓ 어린이, 남·녀·노·소, 누구나 복용 할 수 있습니다

| 효능 · 효과 | 소화불량, 소화촉진, 정 장, 변비, 영양, 과식, 체할, 설사, 묽은변, 구역, 구토, 식욕감퇴, 식욕부진, 복부팽만감, 위부팽만감, 장내이상발효.

| 복 용 방 법 | 물과 함께 삼켜서 복용, 또는 입안에서 녹이거나 씹어서 복용.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길 72-1 소비자 상담 : 02-407-5535, 02-533-2992

“각국 이주민 사역과 의료선교·다음세대 선교 등 위해 기도 요청”

한국선교연구원(KRIM) 세계 선교 기도 제목

◇지난해 OECD 국가로 망명 신청 최고 기록

OECD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38개 회원국은 이민자 610만 명을 받아들였고, 이중 망명 신청자 수는 200만 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코노미스트(Economist)는 최근 15년 동안 부유한 국가로의 이민이 이전과 비교해서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OECD 국가에서 약 10%의 사람들은 모국을 떠나는 이민자라고 분석한다. 2023년 1월부터 11월까지 서아프리카와 스페인 카나리아 제도 사이의 해상 경로를 이용해 이민을 시도한 사람은 약 3만 명에 이른 다. 올해 콜롬비아와 파나마를 연결하는 다리엔(Darién) 정글을 건너 미국에 도착한 사람도 5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이는 2010년대 시도됐던 횡단의 4배가 넘는 수치이다. 우크라이나와 중동, 아프리카에서 전쟁과 내전 등으로 수백만 명이 타 국가로 이주한 가운데 근래에는 극심한 빈곤이 범죄와 갱단 폭력으로 이어지면서 이민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유럽과 북미의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직업 안전성이 높기 때문에 이민자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OECD 국가에 정착한 이민자들 중 70% 이상이 직장에 다니고 있고, 현재 EU의 평균 임금에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12배가 넘는다. 국제이주기구(IOM)의 포프(Amy Pope) 사무총장은 고령화되고 있는 유럽과 캐나다, 호주 등에서 이민자들이 잘 관리된 다면 해당 국가의 노동 수요를 충족하고 이민자들은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이민자를 수용하고 있는 국가들이 배려와 환대에 기초해서 적절한 정책들을 마련하고, 이들도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면서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자. (출처 www.economist.com)

◇헬스케어로 확장하는 의료선교

의사로 은퇴하고 국제 OMF에서 의료선교 컨설턴트로 사역하고 있는 톰슨(Neil Thompson) 박사는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한 자비롭고 통합적이며 전인적인 보살핌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지금까지 의료선교의 역할과 공로에 대해서 평가하면서 현 시대에도 온전한 복음을 보여주고 선포하기 위한 창의적인 방법들이 적극적으로 개발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중 하나로 지역 사회의 건강한 생활 방식과 위

생, 질병 예방을 뒷받침할 수 있는 헬스케어(health care) 사역으로의 확장이 필요하다. 여전히 의료선교를 바탕으로 전문화된 병원과 의료시설 확충이 요구되지만, 이 시대의 기술 발달과 의학 발전을 기초로 더 넓은 범위에서 헬스케어 사역이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특히 외딴 시골 지역이나 전문 진료가 어려운 오지에는 원격 진료와 위성 진료 시스템이 도입될 수 있고, 정부와 연계하여 글로벌 공중보건 사업도 더욱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다. 그리고 훈련된 지역 사회 보건 종사자들을 통해 전문화된 의료 인력이 없더라도 보건과 위생 교육이 꾸준히 실시되는 건강한 지역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 또한 이전에 서구권 의사가 현지에서 파송됐던 방식에서 벗어나 남반구 국가들의 의료 인력들을 훈련시키는 교육 파트너십을 마련하는 시도가 확장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헬스케어 사역을 통해 아직도 수인성 질병이나 전염병으로 생명을 잃고 있는 많은 곳에서 생명을 살리고 건강한 지역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출처 EMQ 59, no. 4)

◇외로움을 겪는 Z세대를 일으키는 교회의 사역

소셜미디어에 둘러싸인 젊은 세대들은 마치 개인의 가치를 ‘좋아요’와 ‘구독’으로 측정되는 세계 속에 가두면서 눈에 보이는 하이라이트에만 집중하는 라이프스타일을 가지기 쉽다. 아시아 전역에서 기독교 지도자 개발에 힘쓰고 있는 A3G Asian Access)의 대표인 핸들리(Joseph W. Handley) 박사는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들이 극심한 상실감과 외로움을 겪고 있다면서 보살핌과 관심이 필요한 때라고 말한다. 최근 미국의 시그나(Cigna) 그룹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Z세대는 일주일 동안 의미 있는 사회적 상호 작용을 거의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은 지난 23년 동안 33%가 증가했고, Z세대의 79%가 외로움을 느끼고 있으며, 42%는 항상 소외감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핸들리 박사는 인간관계에 목마른 세대에게 교회가 긴밀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이어가면서 젊은 리더들이 유대감을 갖고 만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또한 이들의 역량을 교회 안으로 국한하지 않고 자신의 선교지가 곧 일터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면서 Z세대들이 크리스천 리더로서 사회에 자



인간관계에 목마른 Z세대에게 교회가 긴밀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이어가면서 젊은 리더들이 유대감을 갖고 만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pexels

리매김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교회들이 젊은 세대들을 끌어안고 소통하기 위한 장을 만들어가면서 앞으로 이들이 교회의 리더로 성장할 뿐만 아니라 일터와 직장에서도 크리스천 리더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출처 LGA 12, no. 6, thecignagroup.com)

◇브라질, 연말까지 아프리카 밀항자 85,000명 도착 예상돼

서아프리카인들이 미국으로 밀항하려는 계획이 어긋나면서 브라질로 도착하는 수가 늘어나고 있다. 브라질 해군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7년 사이에 브라질에 도착한 아프리카 밀항자는 234명에 그쳤다. 그러나 최근 3년 사이 이 숫자가 급증했다. 2021년에는 30,110명이었고, 2022년에는 두 배가 증가해 64,500명이 브라질로 입국했다. 이 런데 올해는 상반기에만 42,634명이 이미 도착했고, 연말까지 최대 85,000명이 브라질로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상파울루에서 난민 보호소를 운영하는 파리세(Paolo Parise) 신부는 이들은 대개 범죄 조직에게 속아 배를 잘못 타고 브라질에 도착한다고 말했다. 아프리카인 밀항에 대한 조사를 맡고 있는 브라질(Pedro Henrique Branco) 검사는 이들이 주로 시에라리온, 나이지리아, 기니, 세네갈, 가나, 앙골라 출신이며, 포르투갈어를 사용할 수 있으면 일자리를 찾기 쉽다는 점을 이용해 브라질에 정착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고 했다. 브라질 정부가 서아프리카인 밀항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 대책을 강구하고, 갈 곳 잃은 이들을 위해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이들을 위로하고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사역들이 생겨나도록 기도하자. (출처 www.wsj.com)

◇우루과이, 농촌 노인 인구 자살 증가하고 있어

인구 340만 명으로 남미 국가들 가운데 부유하고 안정적인 나라로 꼽히며 가장 행복한 나라로 여겨졌던 우루과이에서 자살률이 급증하고 있다. 2022년에만 823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 인구 10만 명당 연간 자살자 수는 남미 평균의 두 배를 넘었다. 이는 역사상 가장 높은 수치로 2013년 16.1명에서 2020년 23.2명으로 50% 가까이 증가했다. 자살률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은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사망률과 관계가 깊다. 우루과이는 남미에서 평균 연령이 높은 나라 중 하나로, 65세 이상 인구가 15%를 넘고 있어 고령사회에 진입해 있다. 수도 몬테비데오(Montevideo)에 위치한 공화국대학교(University of the Republic)의 마차도(Ana Machado) 박사는 많은 노인이 외로움에 시달리고 있고, 특히 농촌 지역에서 젊은이들의 돌봄을 받는 노인들은 극소수에 그친다고 말한다. 또한 우루과이 정사에서 정신 건강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금기시되기 때문에 고령의 남성 자살과 죽음의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60세 이상 남성 노인의 자살이 전체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고, 이는 남미 평균보다 3배가 높다. 지난해 몬테비데오의 자살률은 주민 10만 명당 18명이었다. 하지만 30년 전과 비교해 농촌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든 트레인타이트레스(Treintay Tres)는 38명, 라발레자(Lavalleja)는 36명, 소리아노(Soriano)는 34명을 기록했다. 우루과이 정부는 공중보건 시스템을 통해 항우울제를 무료로 배포하기 시작했지만, 의료적인 처방 이외의 실질적인 대안이 필요해 보인다. 정부 차원의 노력과 함께 우루과이 교회들이 농촌 노인 인구의 외로움과 자살 예방을 위해 친구



미국 뉴욕 도심에 위치한 트리니티교회. 미국 도시 교회 출석자들의 지역 현안에 대한 관심도는 36%로, 도시 외곽이나 시골 교회 출석자들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와 이웃으로 찾아가 이들을 보살피고 돌보는 데 힘을 보탬 수 있도록 기도하자. (출처 www.economist.com)

◇베네수엘라, 갱단이 자국 이민자를 인신매매 표적 삼아

베네수엘라 최대 갱단 중 하나인 트레 데 아라구아(Tren de Aragua)는 2011년 토코론 교도소의 치안 업무를 맡으면서 활동 규모를 키웠는데, 이 갱단은 코로나 이후로 국경이 폐쇄되는 상황에서 베네수엘라를 떠나는 이민자를 대상으로 착취와 인신매매 등의 범죄를 벌여왔다. 초인플레이션과 독재로 인해 베네수엘라 경제가 무너지고 갱단 폭력이 급증하면서 최근까지 약 800만 명의 베네수엘라인들이 자국을 떠났다. 워싱턴DC에 있는 싱크탱크인 인사이트 크라임(InSight Crime)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이 조직은 남아메리카에서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규모로 인신매매를 산업화했고, 남미 6개국(베네수엘라, 콜롬비아, 페루, 볼리비아, 칠레, 브라질)에 네트워크망을 가지고 활동한 것으로 밝혀졌다. 2020년에 갱단은 밀수와 뇌물을 이용해 국경 통제권을 갖기 시작했고, 이후부터 인신매매에 뛰어들어 수천 명의 여성을 보고타와 리마, 산티아고에 팔아넘겼다. 수많은 여성이 온라인 취업 사이트에 속아 성매매에 이용됐고, 이를 거부한 여성들은 무참하게 살해당하기도 했다. 지난 10년간 교도소 내에 레스토랑과 클럽, 카지노, 야구장, 동물원, 수영장 등을 운영할 정도로 규모를 키워온 트레 데 아라구아는 지난 9월 베네수엘라 정부군의 급습으로 해체됐지만, 갱단 두목인 게레로(Héctor Guerrero)는 감옥을 탈출하여 남미 전역에서 추적을 받고 있다. 베네수엘라 정부가 이 범죄조직에 대한 단호한 조치와 처벌을 시행하고, 인신매매로 타국에서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루속히 자국과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자. (출처 www.economist.com)

◇미국, 도시 교회 출석 기독교인 지역 현안 관심도 높아

최근 미국 바나(Barna) 연구소는 도시 교회 출석자의 지역 현안에 대한 관심도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2022년 말 미국의 8개 주요 대도시에서 거주하는 2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 도시 교회 출석 기독교인들은 자신이 속한 지역에 대한 지식과 필요 사항에 있어 상대적으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 교회 출석자들의 지역 현안에 대한 관심도는 36%로 도시 외곽이나 시골 교회 출석자들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또한 교회에 출석하는 기독교인의 25%가 지역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유대감을 소중하게 느끼는 반면,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의 소속감은 12%에 그쳤다. 도시와 비도시 교회 출석자를 비교했을 때 도시 교회 출석 기독교인들은 27%로, 비도시 교회 출석자에 비해 5% 이상 높게 조사되었다. 지역 사회 현안 참여에 있어서는 교회에 다니지 않는 대도시의 성인들은 9%에 그쳤다. 이에 반해 대도시 교회에 다니는 기독교인의 25%는 지역 문제와 관련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이 출석하는 교회 중 42%가 지역 문제와 관련하여 크고 작은 사역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개인적인 신앙 영역에만 국한하지 않고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문제와 현안에 관심을 가지면서 선한 영향력 미칠 수 있도록 기도하자. (출처 www.barna.com)

한국선교연구원(KRIM,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Mission)

주변 시세대비 30% 낮은 분양가
최대 5억 저렴한 혁신적인 공급가

부담 없는 실투자금 중도금 전액 무이자 청약통장 무관

Harrington Tower

지금부터의 강남 부동산! 투자하지 말고 소유하라

부동산 시장의 회복세가 보이는 지금, 강남 3구의 알짜부동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높은 가격대의 넓은 공간을 선호하던 투자생황이 수준 높은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리는 생활까지 중심의 새로운 트렌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디오페라 서초 해링턴 타워

따져보면 불수록 합리적인 여유가!
2ROOM 3BAY 특화평면

TYPE. 2 (전용면적 58.82m)

2.6미터 층고+2룸 3베이 혁신평면 설계
소형 그 이상의 가치! 개방감과 공간감을 극대화한 쾌적한 아파트형 주거공간

차원이 다른 레지던스형 컨시어지 서비스 (088)
하우스키팅, 핏케어, 조식배달서비스 등 수준이 다른 고품격 레지던스 라이프

트리플 역세권 프리미엄에 개발비전까지
정보사 이전 부지 개발, 양재R&CD특구 개발 등 강남·서초 특급호재 프리미엄

주택전시관 OPEN 02.525.0905

“코로나19 교회 폐쇄 조치, 교인들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영향 미쳐”

코로나19로 인한 교회 폐쇄가 가톨릭 신자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뒤, 다시는 폐쇄를 강요받아서 안 된다고 한 가톨릭 단체가 밝혔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가톨릭 연합(Catholic Union)은 1천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중 3분의 2(62%)가 팬데믹 기간 동안 강제 폐쇄된 예배 장소로 인해 신체적 또는 정신적 건강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외로움과 우울증에 대해 설명했으며, “인생에서 가장 괴로운 경험 중 하나”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응답자는 “나의 일부가 사라진 것

같았다”고 느낌을 묘사했다.

대다수의 응답자(90%)는 향후 다시 전염병이 발생한다면 예배장소는 식품점 및 의료시설과 함께 ‘필수’ 서비스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응답자 중 4분의 1만이 팬데믹이 시작될 때 교회와 기타 예배 장소를 강제 폐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대부분(93%)의 응답자는 “정신인들이 팬데믹 기간 동안 결정을 내릴 때 신앙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대다수의 응답자(89%)는 영국의 여러 지역에 걸쳐 서로 다른 제한 사항을 적용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보리스 존슨 전 영국 총리가

영국 코로나19 조사에 대한 증거를 제시한 것과 같은 주에 발표했다. 가톨릭 연합은 이번 결과가 조사에 대한 증거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톨릭 연합 회장인 홀린스 남작은 이 결과에 대해 “충격적이고 고통스럽다”고 말했다.

그녀는 “교회 봉쇄가 큰 인기를 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안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라고 말했다.

이어 “폐쇄의 직접적인 결과로 외로움이나 우울함을 느끼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한 것은 특히 충격적”이라며 “코로나 조사에서 팬데믹 기간 동안 교회를 폐쇄하고 재개하기로 한 결정을 적절하게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다. 이미경 기자



©Pixabay

英·美 종교인 47% “직장에서 신앙 표현 불편해”

한 연구에 따르면 영국과 미국의 많은 종교인들이 직장에서 신앙을 표현하는 것을 불편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컨설턴트 그룹인 퍼넌 칸돌라(Pearn Kandola)의 연구는 유대교, 이슬람교, 시크교, 불교, 힌두교 또는 기독교를 따르는 미국과 영국 근로자 6천명 이상의 의견을 물었다.

설문조사 참석자 중 절반(47%)은 직장에서 종교 축제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불편하다고 느꼈다.

응답자 중 3분의 1(36%)만이 직속 상사가 종교 축제를 위해 휴가를 내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느꼈다.

5분의 1(19%)은 고용주가 거부한 종교적 휴일이나 축제를 기념하기 위해 연차 휴가를 요청한 적이 있다고 보고했다.

응답자 중 4분의 1 미만(23%)은 직장에서 종교적 복장이나 상징물을 입을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렇게 한 사람들 중 16%만이 그렇게 하는 것이 편안하다고 답했다.

보고서는 직장에서 신앙을 표현한 결과 긍정적인 결과와 부정적인 결과가 혼합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긍정적인 결과에는 더 나은 인식과 이해, 동료와의 관계 개선, 직장에서의 웰빙 향상이 포함되었다. 부정적인 결과에는 “고정관념과 차별, 조롱과 학대, 배제, 고립감”이 포함되었다.

어떤 경우에는 근무 일정과 종교 의식이 충돌하는 경우도 있었다.

보고서는 “근무 일정으로 인해 일부 응답자에게는 종교적인 의식을 지키기 어려웠다. 예를 들어 일부 유대인 직원은 주말 근무로 인해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고 일부 기독교인은 일요일을 지키지 못했다. 비슷한 맥락에서 일부 무슬림은 금요일 기도에 참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Unsplash/Headway

퍼넌 칸돌라 보고서는 “우리 연구에 따르면 직장에서 종교적 신념을 표현하는 데 많은 긍정적인 이점이 있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장벽이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다”라며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서 종교적 신념을 표현하거나 실천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보고서는 “종교는 다양성과 포용성 전략에서 간과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관리자는 직원이 자신의 신념을 표현하거나 준수하는 데 필요한 조정 사항을 인식하지 못할 수 있다”면서 “종교적 표현이 억제되는 것으로 인식되는 조직에서 직원은 자신의 요구 사항을 고용주에게 전달할 수 없다고 느낄 수 있다”고 했다.

기업에 관한 보고서는 “종교에 관한 편견을 이해하고 줄이는 것”과 종교를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포함된다.

보고서는 “(우리의) 연구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서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표현하는 것을 불편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조직에 이러한 포용성과 개방성이 부족하면 직원들은 종교적 신념을 표현한 결과를 두려워하거나 신념을 공개하기로 결정한 경우 판단과 배제에 직면할 수 있다”라고 했다. 이미경 기자

美 캘리포니아 대형교회, 도움 필요한 가정 위한 크리스마스 행사 개최

미국 캘리포니아 대형교회는 이번 크리스마스에 도움이 필요한 지역 가정의 어린이들에게 장난감, 책, 옷을 전달하는 행사에 2천여명을 초대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T)에 따르면, 로클린과 새크라멘토에 캠퍼스를 두고 있는 데스티니 기독교 교회(Destiny Christian Church)는 지난 9일(이하 현지시간) 6만4천평방피트 규모의 커뮤니티 센터에서 ‘Love Our City’라는 제목으로 크리스마스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크리스마스 테마 공간이 마련됐다. 모든 어린이는 크리스마스를 맞아 장난감, 신발, 의류, 가족 친화적인 책을 받았다. 산타클로스도 등장해 아이들과 함께 사진을 찍었다.

데스티니교회 대변인 테너 디벨라(Tanner DiBella)는 CP와의 인터뷰에서 “교회가 2013년부터 사랑의 도시 크리스마스 행사를 주최해 왔

다”면서 “이 프로젝트는 지역사회를 축복하려는 열망에서 비롯됐다”고 밝혔다.

그는 “연휴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충족되지 않는 실질적인 필요 사항이 있다. 음식, 의복, 보안은 많은 소외 계층 가족에게 손이 닿지 않는 것처럼 보이며 이는 연휴 기간 동안 더욱 두드러진다고 말했다.

디벨라 대변인은 데스티니 교회가 올해 더 많은 가족을 수용하기 위해 공간을 추가했다고 말했다. 교회는 또한 아이들이 집에 가져갈 책을 선택할 수 있는 ‘스토리랜드(Storyland)’라는 공간을 추가했다.

그는 “2천명 이상의 소외 계층 가족이 이 행사에 등록했으며 2백여명의 자원봉사자가 이 모임에서 다양한 역할을 도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질적인 필요 사항 외에도 각 가정은 얼마나 진정으로 사랑받고 있는지 알기를 원

한다”라며 “크리스마스는 상실, 결핍, 외로움을 상기시키는 날이 될 수 있다. 우리는 각 자녀와 부모들이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갖기를 바란다. 크리스마스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 자비, 사랑과 구원이라는 심오한 선물을 상기시켜 준다”라고 했다.

올해 초 데스티니 담임 목사인 그렉 페어링턴(Greg Fairington)과 캐피털 크리스천 센터 담임 릭 콜(Rick Cole) 목사는 새크라멘토에 본부를 둔 캐피털 센터가 데스티니 워싱턴 캠퍼스에 합류할 것임을 알리는 공동 서한을 발표했다.

페어링턴과 콜 목사는 서신에서 “지난 몇 년 동안 캐피털은 재무 기반이 불안정해지는 것을 경험했다”라며 “데스티니와 협력하고 그들의 영적 리더십 아래 단결해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이 지역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는 데 필요한 재정적, 정신적 힘을 얻을 수 있다”라고 했다. 이미경 기자

유엔 안보리 특사단, 라파 국경 방문... 미국·프랑스 불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사들이 11일(현지시간) 포위된 가자지구로 통하는 라파 국경을 방문하기 위해 이집트에 도착했다고 알자지라 등이 보도했다.

아랍에미리트(UAE)와 이집트가 마련한 하루 일정의 이번 비공식 방문엔 안보리 이사국 중 12개국도 참여했다. 미국과 프랑스는 불참했다.

이집트 외무부 관계자는 특사단이 도착한 뒤 브리핑에서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주민들에게 가해진 고통과 아픔을 외면할 명분은 없다”고 했다.

라나 누세이베흐 주유엔 UAE 대사는 참가국들이 “국가적, 개인적 지위”에 따라 동참했다면서

“이번 방문은) 가자 주민들이 겪는 고통과 파괴 뿐만 아니라 그들의 희망과 힘을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8일 유엔 안보리에서 가자지구 휴전 촉구 결의안이 부결된 가운데 이뤄졌다. UAE가 제출한 결의안에 대해 13개국도 찬성표를 던졌지만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영국은 가권했다. 안보리에선 상임이사국 5개국(P5: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 한 곳이라도 반대하면 결의안은 채택되지 않는다.

이에 이집트와 모리타니는 유엔총회 결의 제 377호(평화를 위한 연합)를 발동, 12일 긴급 유엔

총회를 소집했다. 이것은 안보리가 국제평화와 안보를 유지하는데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총회에서 무력 사용을 포함한 집단적 조치에 대해 유엔 회원국에게 적절한 권고를 내릴 수 있도록 한다.

한편 CNN에 따르면 이날 구호 트럭 6대가 이날 라파 국경 검문소를 통해 이집트에서 가자지구로 들어갔다. 연료 트럭 3대와 요리용 가스를 실은 트럭 2대가 포함됐다.

또 팔레스타인 부상자 34명과 외국인을 태운 버스 4대가 가자지구에서 이집트로 건넜다고 CNN은 덧붙였다. 신정원 기자

기회를 **캠**

가치를 **캠**

가능성을 **캠**

대한민국 희망을 캠 (캠코)

부채로 힘든 **서민**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위기에 빠진 **기업**이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국민이 **국가자산**을 누릴 수 있도록
 언제나 당신편에 서서 **대한민국 자산**을
희망으로 바꾸는 일, 캠코가 하고 있습니다

국민에 안정을, 기업에 활력을, 국가자산에 가치를 더하는 리딩플랫폼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태로운 기업의 기회를

-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 소상공인 자영업자 채움발기금

집재된 국가자산의 가치를

- 유류 지형권 국유재산 관리
- 노후 국공유재산 개발
- On-Bid (온비드)

재기를 꿈꾸는 기업의 가능성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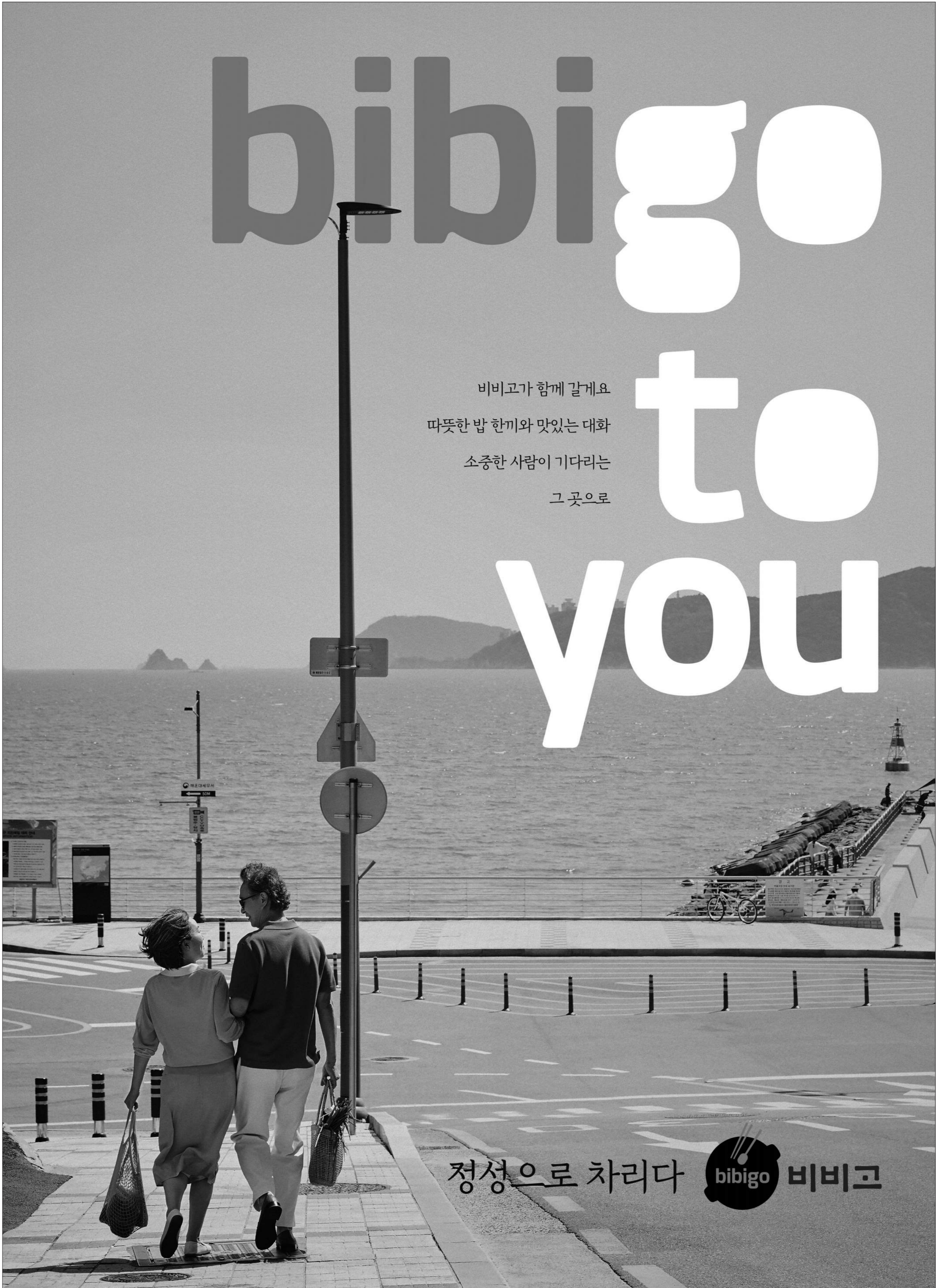
- 기업구조혁신펀드
- 경호 산책금융
- 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대기업)

금융위원회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 www.kamco.or.kr 문의 1588-3570

bibigo to you

비비고가 함께 갈게요
따뜻한 밥 한끼와 맛있는 대화
소중한 사람이 기다리는
그 곳으로

정성으로 차리다



장제원 불출마... “저를 밟고 총선 승리, 윤정부 성공 이뤄주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총선 불출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스

현역 의원 중 첫 불출마... 인적 쇄신 신호탄 전망

‘친윤(친 윤석열) 핵심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22대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며 백의종군을 선언했다. 여당에서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것은 장 의원이 처음이다.

인요한 혁신위원회의 ‘주류 희생’ 핵심 대상이었던 장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인적 쇄신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 분석이다.

장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명이라고 생각한다. 22대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며 “역사의 뒤편에서 국민의힘 총선 승리를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번 백의종군의 길을 간다. 이번에는 제가 가진 마지막 공직인 의원직”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승리보다 절박한 것이 어디 있겠나. 총선 승리가 윤석열 정부 성공의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가 가진 마지막을 내어놓는다. 이제 떠난다. 버려짐이 아니라 뿌려짐이라

고 믿는다”며 “당원 동지 여러분, 부족하지만 저를 밟고 총선 승리를 통해 윤 정부의 성공을 이뤄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장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부산 사상 주민들을 향해서는 “가슴이 많이 아프다. 의원직에 대한 미련도, 정치에 대한 아쉬움 때문도 아니다. 한결같이 응원해 준 사상주민들께 죄송한 마음 때문”이라며 “평생 살면서 하늘 같은 은혜를 갚겠다. 사상구민과 함께 만들어간 꿈이 반드시 이뤄지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

나 “언제부터 불출마를 고민했느냐고 묻자 “제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이 되는 순간부터 모든 각오는 해야 되는 것 아니냐”며 “윤명이라고 본다”고 했다.

이어 불출마 후 행보에 대해서는 “(당 분간) 지역주민들께 양해를 구하고, 사과 드리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 이후에는 조금 쉬고 싶다”고 답했다.

또 취재진이 ‘윤 대통령과 상의를 했느냐, 정계 은퇴를 선언한 것이냐, 당 지도부에 하고 싶은 말은 없느냐’고 물었지만 모두 대답하지 않고 자리를 빠져나갔다.
홍세희 김경록 기자

여당, 장제원 불출마에 ‘김기현 거취’ 결단 압박

친윤 핵심 장제원 의원이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혁신위 희생 요구에 무응답으로 일관한 김기현 대표가 불출마한 코너에 몰린 모양새다. 당 내에선 김 대표가 자신의 거취 및 향후 총선 전략에 적절한 답을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장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김기현 대표의 결단을 압박했다.

김기현 1기 지도부에서 수석대변인을 지낸 유상범 의원은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장 의원이 불출마하면서 국민의힘 지도부나 윤석열이 ‘헬빙 정당’의 모습으로서 자기 자신의 보신만을 위해 정치한다는 이미지는 희석시켰다”고 말하고, “지도부도 필요하다면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산에서 3선을 지내고 서울 종로 출마를 선언한 하태경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 의원의 불출마 선언을 높이 평가한다. 친윤 핵심과 당 지도부의 희생 없이 총선 승리는 어렵다”며 “다 죽어가던 혁신의 불씨를 장 의원이 되살렸다”고 글을 올렸다.

당내 비주류로 분류되는 한 중진 의원은 기자에게 “우리가 내년 총선에서 이겨야 하는데, 그러기 위한 여러가지 일들이 바람직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이날부터 공개일정을 취소하고 잠행에 돌입한 김 대표는 주류 희생의 불꽃

가 터진 상황이어서 더 이상 버티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당초 김 대표는 당대표의 거취 결단 타이밍이 현재로서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혁신위 조기 종료 시점과 맞물려 ‘인적 쇄신’ 시계가 빨라진 점 등을 고려해 김 대표가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야 한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준석 전 대표 체제에서 혁신위원장을 지낸 최재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 쇄신을 국민들에게 보여 줄 수 있는 분명하고 확실한 방법이 당 지도부의 교체이고 당대표의 희생과 결단을 통해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고 적었다.

지도부의 적극적인 희생을 강조해온 김병민 최고위원은 “김기현 대표도 비슷한 결단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이번 주가 사실상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지금까지 제기했던 당의 문제를 한 번에 바꿔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때”라고 촉구했다.

친윤계 한 초선 의원도 통화에서 “김 대표가 더 우물쭈물해서는 안 된다. 대표가 자신의 주도대로 할 수 있는 타이밍을 너무 많이 놓쳤고 장 의원이 결단을 해버림으로써 굉장한 코너에 몰리지 않았나”라고 꼬집었다.

또다른 중진 의원은 “불출마 선언을 한다면 빨리하면 좋을 것”이라며 “김 대표가 사퇴를 빠르게 결단하면 그 점에 관해서는 (여론에) 많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영서 하진기 기자

이낙연 신당 창당에 민주당 내 ‘의견 분분’

이낙연 전 대표가 내년 1월 신당 창당까지 시사했음에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이 대표의 침묵은 신당을 창당하려는 이낙연 전 대표를 설득할 카드가 없어서다. 이 전 대표가 요구하는 대표직 사퇴와 일부에서 요구하는 불출마 등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이 대표의 입장이다. 이 전 대표가 이 대표에 줄 수 있는 타협책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수용 정도 뿐이다. 하지만 이 전 대표는 당의 비민주적 시스템 타파와 공정한 공천 등을 위해 이 대표의 사퇴가 필수적이라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이 전 대표와 이 대표 간 회동도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최근 이 전 대표와 만날 뜻을 밝혔지만 공식 제안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의 단합과 소통은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누구나 열어놓고 소통하고 대화하고 협의해 나갈 생각”이라고 했다. 그러면

서 “무너진 민주주의를 살리고 민생을 회복하려면 가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야 한다. 배제의 정치가 아닌 통합과 단결의 정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당의 화합을 위해 자신의 정치적 라이벌인 이 전 대표를 직접 만날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하지만 이 전 대표가 이를 거부하면서 회동 가능성은 일단 불투명해졌다. 이 전 대표는 지난 7일 YTN에 출연해 “민주당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고 의지가 확인된다면 오늘이라도 만나겠지만, 지난번처럼 사전 한장 찍고 단합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라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 대표를 직격했다.

당내에선 두 사람의 만남이 성사되더라도 이 대표가 제시할 카드가 많지 않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 전 대표는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강성 지지층과의 결별, 위성정당 포기를 전제로 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 등을 이 대표에게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중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 요구는 타협의 여지가 있

는 미지수다. 위성정당 포기를 전제로 하는 준연동형제 유지가 시대 요구에 맞다는 이 전 대표의 주장에 공감할 하면서도 선거제 문제를 두고 여당과 각을 세우는 현실 또한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전 대표가 민주당의 도덕성 회복 등을 이유로 이 대표의 대표직 사퇴, 내년 총선 불출마 등을 요구할 경우 명목회동이 ‘빈손 회동’에 그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한 재선 의원은 “내년 총선을 이끌어야 할 이 대표로선 사퇴는 절대 수용할 수 없는 요구고, 이 전 대표 역시 선거대책위원장 등 자리를 받아도 거부할 것”이라며 “상황을 뒤집을 방도가 없으니 이 대표가 관망 모드로 전환한 것 같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의 신당 창당이 가시화되자 친명계는 견제 모드로 전환하며 이낙연 패라기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김민석 의원은 이날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전두환·노태우 시절의 민주한국당이



과거 단식투쟁 중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단식투쟁 천막에서 이낙연 전 대표와 대화를 나누기 전 자리 안내를 하던 모습. ©뉴스스

후 안철수·손학규로 이어졌던 일종의 정통 여당과 다른 수쿠라 노선”라고 비판했다.

오기형 의원은 “민주당의 대표를 지낸 분으로서 당을 강화하고 확장하기 위해 조용히 도와줘야 할 것으로 기대하는데 오히려 당의 분열과 갈등의 과정의 축으로 나서는 것 아닌가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주희 기자

윤재옥 “이재명 위증교사 재판 지연 말고 신속 진행해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사진)는 12일 법원을 향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건의 관련자들이 느끼고 있는 극심한 불안감을 고려해 재판 지연 전술에 더 이상 흔들리지 말고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표회의에서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 재판에서 공범으로 기소된 김모씨가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재판을 서둘러달라고 요청했다”며 “신속한 재판으로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혼란을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김모씨는 재판을 하기도 전에 이 대표로부터 여러번의 전화 통화를 통해 부탁받고 위증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재판 절차를 빨리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이례적으로 자백부터 한 이유는 이 대표가 관련된 여러 사건에서 관련자들이 연달아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교통사고를 당하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김모씨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무슨 일을 겪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신속하게 재판 받을 권리를 주장한 것”이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 “이 사건은 이미 통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이 증거로 제출돼 있어서 재판이 오래 걸릴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이 대표가 다른 사건에서와 마찬가지로 재판 지연 전략을 펴고 있고, 이 사건에서도 재판 준비에 시간이 걸린다고 주장하고 있어 김모씨가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성원 기자

프리미어리그 아시아 선수 최초 골든부츠(득점왕) 수상 **손흥민**

안티푸라민 클리어파스 에어로솔 의약품

대한민국이 당신과 함께 달리겠습니다.

유한양행

ASML 방문 윤, 네덜란드행 비행기서 참모들과 1시간 ‘반도체 회의’

윤석열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네덜란드 국민 방문을 위해 암스테르담으로 이동 중인 공군 1호기 내에서 2시간 가량 참모들, 부처 장관들과 회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네덜란드 방문의 핵심이자 ‘반도체 동맹’으로 격상할 계기가 될 ASML 방문과 관련하여 1시간 가량 토론을 했다고 한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암스테르담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취재진과 만나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참모들, 관계 부처 장관들은 우리나라와 네덜란드 간의 오랜 역사를 꼭 짚어보면서 이번

순방을 계기로 한 향후 관계의 방향성에 대해 열띤 토론을 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윤 대통령이 네덜란드 순방 길에 오르기 직전 AFP통신과의 인터뷰에서도 밝혔듯 기술 패권 경쟁과 공급망 재편에 따른 반도체 산업환경 변화 속에서 이번 순방이 네덜란드와의 반도체 협력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윤 대통령은 기대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특히 세계 유일의 극자외선(EUV)노광장비 생산기업인 ASML사 방문이 한-네덜란드 간 ‘반도체 동맹’ 구축뿐만 아니라 우리 반도체 기

업이 대만 등 글로벌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삼성전자 등 우리 반도체 기업들은 최첨단 파운드리 공정의 2나노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윤 대통령의 네덜란드 순방에서 12일 ASML사를 방문하는 것은 2나노 공정 장비를 누가 먼저 선점할 수 있느냐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나노(1nm10억분의 1m)는 반도체 회로 선폴을 의미하는 단위로, 선폴이 좁을수록 소비전력이 줄고

처리 속도가 빨라진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앞선 양산 기술은 3나노다.

2나노 기술은 차세대 반도체 시장의 게임 체인저로, 이 기술을 개발하게 되면 660조원 규모 시장을 선점하게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ASML사가 생산하는 극자외선(EUV)노광장비는 웨이퍼에 자외선을 쬐 화학적 성질을 내도록 하는 것으로, 이번에 ASML사가 윤 대통령 등에 공개하는 신장비는 2나노 개발까지 가능하게 하는 최신 기술이다.

윤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과 동행해 이 장비 생산 공정 과정을 시찰함으로써 최대 경쟁사인 대만의 TSMC나 미국 인텔과의 미세공정 경쟁에서 상당한 우위를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대통령실은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은 ASML본사 방문에는 알렉산더르 국왕, 페터르 베니크 ASML 최고경영자(CEO),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이 함께 한다.

세계 정상으로는 최초로 ASML의 ‘클리닉’과 최신 노광장비 생산 현장을 시찰한다. 박미영 기자

조희대 취임일성 “신속 재판” 정치인 재판 빨라진다

법원장 추천제 등 제도개선 검토



조희대 대법원장(사진)이 취임 일성으로 ‘재판지연 해결’을 강조한 만큼 그동안 지연됐던 정치인들의 재판도 빨라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전날 취임사에서 “평등의 원칙을 말하면서 살더라도 빈부 간에 심한 차별을 느끼게 했다.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데도 법원이 이를 지키지 못하여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사과했다.

그는 “법원은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 재판 제도와 사법 행정에 걸쳐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국민들의 높은 기대를 충족시키기에는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고 고백했다.

특히 재판지연과 관련하여 그는 “재판 지연의 원인은 어느 한 곳에 있다고 할 수 없다. 세심하고 다각적인 분석을 통하여 영계는 문제의 실태를 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하고, “구체적인 절차의 사소한 부분에서부터 재판 제도와 법원 인력의 확충과 같은 큰 부분에 이르기까지 각종 문제점을 찾아 함께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지연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문제다. 사법정책연구원에 따르면 민사 분야(1심 합)의 처리 기간은 2013년 245일에서 지난해 420일로 증가했다. 형사공판의 경우 같은 기간 158일에서 223일로 늘었다.

특히 김병수 전 대법원장 시절 주요 사건과 관련한 재판이 지연되면서 사법부의 신뢰를 저하시킨다는 주장도 나온 바 있다. 최광욱 전 의원의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사건이 대법원 유죄판결까지 3년8개월이 소요된 점,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이 기소 이후 3년10개월이 지난 지난달 29일에서야 1심이 선고된 점 등이 주요 비판 대상이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선거법 위반 재판도 1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공직선거법 관련 소송은 혼란을 줄이기 위해 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내 처리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판 지연으로 인해 아직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국회 청문회에서 재판지연 해결을 위해 장기미제사건을 각 법원장에게 우선적으로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을 내놨다. 종전까지 각 법원장은 재판을 하지 않았지만, 장기미제사건을 배당해 적체된 사건들을 해결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도 법원장 추천제에 대한 제도 개선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장 추천제는 법원 소속 판사들이 투표를 통해 법원장 후보를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추천후보중 한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법원장 추천제는 대법원장의 권한을 나누고 사법행정의 집중을 막는다는 장점이 있었다. 다만 자칫 인기영합주의로 흐를 수 있는 문제와 더불어, 어렵고 복잡한 사건을 ‘눈치보기’로 인해 배당하지 않으면서 재판이 지연된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조 대법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법원장 추천제와 관련한 질문에 “신속한 재판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비판을 알고 있다”며 제도개선 의지를 밝혔다.

한편 그는 오는 15일 예정된 전국 법원장회의에서도 재판지연 해법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할 계획이다.

법원장회의는 사법행정사무에 관해 대법원장 또는 법원행정처장이 부의한 안건에 대해 지문하는 기구로, 매년 12월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하종민 기자

연말 거리서 캐럴 안 들리는 이유... 알고보니 이랬다

최근 연말 거리에서 캐럴이 들리지 않는 이유가 생활 소음 규제와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2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추가열·한음저협)와 현행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르면, 매장에서 외부에 스피커확성기 등을 설치할 경우 발생하는 소음이 기준치(주간 65dB, 야간 60dB 이하)를 초과할 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음저협은 “일상적인 대화 소리가 60dB, 스마트폰 벨 소리는 70dB 정도임을 감안하면 사실상 지나가는 사람들이 들려게끔 음악을 듣기 어렵다는 얘기”라고 짚었다. 매장 내에서 노래를 틀고 문을 열어 길거리까지 들리게 하는 방법 또한 난방 효율 저하에 따른 에너지 규제 정책으로 인해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

한음저협은 “저작권 문제로 인해 거리에서 캐럴 음악이 사라졌다고 오해하고 계신 시민들이 아직 많다”면서 “캐럴 음악에만 저작권료가 별도로 책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저작권법에 따라 대부분의 매장은 저작권과 무관하게 음악을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다만 “저작권료 납부 의무가 있는 특정 업종(카페, 대형마트, 피트니스 센터 등)은 기존처럼 저작권료를 납부하면 저작권



크리스마스 연휴를 2주 앞두고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에서 시민들이 크리스마스 소품을 고르고 있다. ©뉴스1

걱정 없이 캐럴 음악을 사용할 수 있다”고 했다.

현행 저작권법상 공개된 장소에서 음악이 사용되는 행위는 ‘공연’으로 간주되지만, 관련 법에 저작권료 납부 의무를 부과한 업종(커피 전문점, 기타 비알코올 음료점, 생맥주 전문점, 기타 주점, 대규모점포·전통시장 제외, 체력단련장 등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참고)이 아닌 대다수 매장은 저작권료 납부 의무가 없어 캐럴 등 각종 음악을 저작권료 납부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카페, 주점 등 저작권료 납부 대상 영업장의 경

우에도 50㎡ 미만(15평 미만)의 소규모 매장은 저작권료 납부가 면제되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영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은 음악을 사용하는 데에 별도 제약이 없다.

저작권료 납부 기준은 최소 면적 50~100㎡(약 15~30평 미만) 월 2000원부터 최대 1000㎡(300평) 이상 매장에서 월 1만 원의 월정액만 납부하면 음악을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다.

한음저협 추가열 회장은 “대부분의 영업장은 저작권료 납부 의무가 없는 것이 현행 저작권법으로, 소음규제와 정부 에너지 정책 등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실내 캐럴 음악을 적극 사용해주시고,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음악으로 작은 위안을 얻어 시민들이 따뜻한 연말을 보내시길 바란다”며 매장 내 음악 사용을 장려했다.

한편 이날 오후 1시 기준 국내 최대 음원 플랫폼 멜론 톱100에서 그룹 ‘엑소’의 ‘빛의 눈’이 8위를 차지하고 미국 팝스타 머라이어 캐리의 캐럴 ‘올 아이 원트 포 크리스마스 이즈 유(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AIWFICY)’가 31위에 오르는 등 연말을 맞아 겨울 노래들이 음원 차트에 대거 다시 진입하고 있다. 이재훈 기자

안산시단원구노인복지관, ‘어르신 즐거터 성과 공유회’ 개최

안산시단원구노인복지관(관장 황인덕, 복지관 지역거점센터 대부 다시 썬센터는 최근 경기복지재단 공모사업으로 7개월 동안 결과를 보고하는 ‘어르신 즐거터 성과 공유회’를 복지관에서 가졌다.

‘어르신 즐거터 사업’은 민간시설 및 유휴 공간을 활용해 지역 거점 어르신의 문화 여가 프로그램 운영 및 동아리사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대부 다시 썬센터는 대부도 중심에 소재한 은미 피아노학원(원장 임은미), 실크스크린 디자인 공방

(대표 최준수)과의 협업을 토대로 7개월간 어르신들에게 새로운 문화예술을 경험하도록 지원해 지역상생에 공헌했다고 한다.

이번 성과 공유회는 색다른 배움의 기회를 통해 쉽게 접하지 못하는 피아노 연주와 내가 직접 디자인하는 실크스크린 디자인 작품까지 연주와 전시를 열었다.

단원구노인복지관 대부 다시 썬센터(갈마지 1길 1)는 대부도 어르신의 건강한 삶을 위해 센터 내 다양한 취미, 여가 프로그램(사예, 요가 등)과 찾아가는 어울림학교(경로당 17개소)를 통해 노인복지



행사를 기념하며. ©주최 측 제공

발전에 공헌하고 있다. 노형구 기자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준법감시필 2022-11

푸른씨앗심고! 희망 미래 열고!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대한민국 30인 이하 사업장에서 선택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푸른씨앗 가입자 10,000명 돌파

푸른씨앗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 및 근로자께서 맡겨주신 소중한 퇴직급여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주에게 좋은 점

- 사용자부담금 지원 : 월평균보수 230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부담금의 10%를 지원합니다.
- 보다 낮은 수수료 : 0.2% 이하의 낮은 수수료를 책정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낮췄습니다.
- 쉽고 간편한 가입절차 : 퇴직연금 가입 시 복잡한 절차(규약서, 운용·자산관리계약서 등)가 표준계약서 하나로 해결됩니다.
- 법인세(사업소득세) 절감효과 : 사용자부담금 납입액이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손급 및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 분할적립하여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 장기근속 유도 : 퇴직금을 분할하여 사외 적립하므로 장기근속에도 안정적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좋은 점

- 공적 기금형 퇴직급여제도 : 공공기관인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합니다.
- 안전한 노후보장 : 퇴직급여가 근로복지공단으로 사외적립되어 근로자의 수급권이 보호받습니다.
- 안정적인 수익률 추구 : 공동으로 조성된 기금을 바탕으로 노사정 대표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수익률을 관리합니다.
- 믿을 수 있는 투자자결정 : 근로자 선택을 대신하여 노사정 대표 및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공정하고 전문적인 의사결정을 진행합니다.

문의 |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콜센터 1644-0083 검색창에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를 쳐보세요!

성경으로 본 우리 민족 기원 II



조덕영 박사
창조신학연구소장

3. 우리 민족은 아벳의 후손인가?

아벳은 일곱 아들을 낳았다. 그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아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였다(창 10:1-2절). 고멜(Gomer)은 노아의 16 손자들 중 맨 처음 언급된 인물이다. 일반적으로 악카드어로는 김미라이(Kimmirai)라 부르고, 고대 호머(Homer) 시대 헬라의 자료들에는 흑해 북부의 기메리아(Cimmeria)라고 부르던 사람들과 같은 족속으로 알려져 있다. 고멜의 아들들은 '아스그나스(Ashkenaz)와 리파트(Riphath)과 도갈마(Togarmah)'였다(창 10:3). 에스겔서에 보면 고멜의 초기 자손들은 도갈마와 함께 북쪽 지역(극한 북방)에 살았다고 기록되어 있다(에스겔 38:6). 이곳은 현재 신약 성경에 나오는 터키(Turkey)의 갈라티아(Galatia)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유대인 역사학자인 플라비우스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그가 살던 시대인 AD 93년경에는 갈라티아인(Galatians) 또는 고울(Gauls)은 이전에는 고멜릿(Gomerites)으로 불려졌었다. 고멜족 일부는 흑해와 카스피해 북쪽에 살던 스키타인(Scythians, 일명 스키타이

족)에 의해 러시아 남부에서 추방 당했다고 알려진다. 과거 천산 산맥을 넘어 동서양의 실크로드(비단길)를 개척한 민족은 소그드(Sogd)인이었다. 아무나 비단길 상인이 될 수 없었다. 천산산맥 양편의 언어와 지리와 역사와 사회와 문화에 익숙해야 한다. 그리고 용감하고 개척 정신을 가진 상인들이야 했다. 그들이 바로 비단길의 주인공 수구디아인이었다. 수구디아나 또는 수구디아(Σουδιανή)는 현재 이란의 고대 문명을 지칭하기도 하고, 아케메네스 제국의 속주를 말하기도 한다. 수구디아인들은 전통적으로 오늘날의 우즈베크스탄의 아랄해로 흘러드는 아무다리야와 사르다리아 강 사이의 사마르칸트, 부하라, 후잔트와 케시 등과 타지키스탄의 수그드 주에 포진하고 있었다. 이들 소그드인과 스키타이족은 지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언어적 유사성이나 실크로드의 길목을 넘나든 족속이라는 점에서 많은 유사성을 보인다. 넓은 의미에서 문화적 유사성 많은 족속이다. 수구디아는 역사적으로 비록 정치적 통합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사마르칸트를 중심으로 우즈베크 지역을 관통하는 아무다리야 강과 시르다리아 강 사이(고대 폴리테무스의 비옥한 계곡에서 그들의 정체성을 유지하였다. 이들 수구디아인이 개척한 비단길에 동서양의 문화적 고속도로를 놓은 것은 놀랍게도 중앙아시아 지역 정벌에 나선 멸망한 고구려 출신의 당나라 장수였던 고선

지(高仙芝) 장군이였다. 천산과 파미르고원을 넘나든 고선지 장군이 개척한 길들은 전쟁의 루트이기도 하였으나 당시 최첨단 기술이었던 중국의 한지 등이 전파되면서 동서 문명의 고속도로가 열리게 되었던 것이다.

같은 아벳의 자녀들 가운데 형들이 고멜과 마곡이 아니라 산의 서북쪽을 향한 것과 달리 마대(Mada)의 후손들은 티그리스 강 북쪽 카스피해 남쪽의 자그로스(Zagros) 산 동쪽을 중심으로 정착하였다. 마대족(族)은 페르시아 서북의 험준한 자연 환경과 마대족의 북쪽에 살며 강력한 제국 스키타이를 세운 마곡족의 영향을 받으며 일찍부터 아란의 거친 민족성을 보인다. 아벳의 아들인 마대의 후손들은 마대의 조상이 되어 셈의 아들인 엘람(Elam) 후손들과 함께 오늘날 한 국가를 이루게 되었다. 과거 페르시아 지역 즉, 페르시아 만을 중심으로 마곡과 신장전을 벌이며 맞서고 있는 지금의 이란 지역이 바로 마대족(族)들이 뿌리를 내린 땅이다.

아완은 헬라 문화를 일군 장본인이었다. 아벳의 넷째 아들 아완(Iavan, 'Iwauv)은 그리스(Greece)의 히브리 단어이다. 그 뜻은 분명치 않으나 어원상으로 이오니아(Ionia)와 일치한다. 따라서 그 이름은 예언서들에서 이오니아 본토(소아시아 서부 연안)와 헬라 마케도니아에 거하는 아완의 자손들을 가리키는 데 사용되었다. 헬라(Greece, KJV는 Grecia로 표현) 또는 헬

라 족속(Grecians)은 구약에 다섯 번 나타나며(8:21, 10:20, 11:2, 유 3:6, 속 9:13 등), 그 때마다 항상 히브리어로는 아완이라 쓰여졌다. 다니엘은 '헬라 왕(다니엘 8:21)'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문자 그대로 '아완의 왕'이었다. 그리스와 아수르, 애굽 문서들이 헬라 사람들과 그들의 거주 지역을 가리킬 때 늘 아완이라 불렀듯이 구약 성경도 정확히 일치한다. 에스겔 선지자는 아완을 노예와 노그릇 무역상으로 묘사한다(겔 27:13). 맞는 말이다. 과거 헬라는 온갖 노예를 사고팔며 해양 무역을 주도하던 민족이었다. 요엘서 3:6에 보면 유다와 에루살렘 백성들은 이 민족에게 노예로 팔려갔었다.

우리 민족도 고조선, 백제, 고구려, 신라, 발해, 고려, 조선 등의 시대에 당나라, 원나라, 몽골, 일본, 러시아 등에 너무나 많은 동포들이 팔려나갔다. 오죽하면 저 멀리 태국 북쪽 산악 지대 소수민족들에게서 옛 우리(고구려 등) 언어와 풍습의 원형을 찾아낸 선교사나 학자도 있다. 이들 소수 민족 중 일부는 당나라에 잡혀간 패망한 고구려, 백제의 유민 중 정치적 이유로 남으로 남으로 이동한 무리와 관련되어 있음이 분명하다. 아완은 엘리사(Elishah)와 달시스(Tarshish)와 깃담(Kittim)과 다나돔(Dodanim)이라는 4들이 있었다(창 10:24; 대상 15:7). 이들은 모두 헬라 사람들과 관계가 있다. 고대 헬라인들의 명칭인 엘리시안(Elysians)은 엘리사(Elishah)로부터 그들의 이름을 물려받았음이 분명하다. 겔 27:7에 보면 두로가 엘리사 섬과 교역을 했다는 기록이 보인다. 이오니아와 헬라 지역에 분포하며 해양을 지배한 아완의 후손 가운데 엘리사 후손들이 살았던 섬이 분명하다. 달시스(Tarshish) 또는 타르수스(Tarsus)는 실리아(Cilicia, 현재의 터키) 근방에 위치했었다. 깃담(Kittim)은 구브로(키프로스, Cyprus)의 히브리식 명칭인 키티온(Kition)과 연관된다. 또한 키티온은 키프로스섬 남동 해안에 위치한 페니키아의 주요 도시였다. 헬라 사람들은 쥬피터 도다네우스(Jupiter Dodanaeus)라는 이름으로 쥬피터 신을 숭배했었다. 이것은 아마도 아완의 네 번째 아들인 도다님(Dodanim)에서 파생된 말로 여겨진다. 그 성소(oracle)는 도데나(Dodena)에 있었다. 맛소라 사본은 도다님을 로다님(Rodanim)으로 표기하고 있다(대상 1:7). '로다님'도 예게해 지역에 분포한 섬주민들과 관련된 이름이었다. 결국 이들 아완의 네 후손들은 헬라와 이오니아를 중심으로 부근 에게해 주변 섬 지역에까지 널리 흩어져 살았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인구가 늘고 문명이 발달하면서 자연히 지중해 쪽 섬들로도 진출하였을 것이다.

아벳의 아들 가운데 둘째 아들이었던 마곡(Magog)은 우리 민족과 관련하여 주목된다. 마곡은 '곡'의 장소란 뜻이다. 즉 마곡은 문자적으로는 곡(Gog)이 최고 통치자로 다스리던 땅(혹은 백성)을 말하고 있다(겔 38:2; 39:6). 성경 안에서 마곡(Magog, 창 10:2; 대상 15)은 정확한 헬름 계보가 뚜렷하지는 않다. 하지만 에스겔서를 참조할 때 마곡은 분명 곡(Gog)과 연관(겔 39:6; 계 20:8)되며, 한 통치자(주된 왕, 겔 38:2, 미국 표준역 ASV) 밑에서 메섹과 두발(지금의 터키 북동쪽 아수르인의 영토였던 무쉬루와 타발)과 연합했다는 사실(겔 27:13)은 마곡이 북방의 아란 민족이 되었음을 말해준다(에스겔 38:15, 39:2). 전통적으로 마곡족은 수구디아인(일명 스키타이족)이 되었고 일부 후손은 에티오피아족이 되었다는 설도 있다. 결국 많은 학자들은 성경의 마곡과 곡을 동일한 민족으로 간주한다. 요세푸스는 북방(겔 38:15, 39:2)에 살던 사람들은 마고자이트(Magogites)라고 불려졌는데, 그리스 사람들은 이들을 수구디아인(Scythians)이라고 불렀다고 설명한다. 지금의 루마니아(Romania)와 우크라이나(Ukraine)를 포함한 지역의 고대 이름도 수구디아(Scythia)였다.

우리에게는 스키타이족이란 이름으로 더 유명한 이들 수구디아는 누구일까? 놀랍게도 이들은 세계 최초 유목 정권을 이

룬 민족이다. 이들은 서쪽으로는 헝가리와 터키 그리고 한반도 남부까지 그 영향력을 확장하여 세계 최초로 글로벌화 된 민족이었다.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을 일으킨 것도 이들이요 동유럽 토착민들이 두려움의 대상인 드라큐라 전설을 만들어 낸 것도 이들 스키타이 민족 때문이었다. 이들은 서기 370년경 유럽 남동부를 침략한 이후 140여 년 동안 유럽 남동부와 중부에 거대한 제국을 건설한 유목민족이 되었다. 넓게 보면 흉노(匈奴)나 훈족(Hun)도 스키타이 계열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들 마곡족은 우리의 신라 왕족과도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문무왕릉비문>에 보면 투후제천지윤(柁侯祭天之胤)이란 구절이 있는데, 투후는 흉노 후도왕의 태자로서 한 무제의 총애를 받았던 김일제(金日磾)를 가리킨다. 경주지역 신라 김씨 왕가의 김일제 후손들은 자신들을 흉노계인 김일제의 후손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본래 신라 건국자는 박씨 성을 가진 혁거세(赫居世)였다. 신라 초기 왕호(王號)인 거서간(居西干)을 나타내는 거서간(居西干)은 몽골의 게세르(keser) 영웅사사(사)에 등장하는 '게세르 칸'과 언어학적으로 연관된다. 변한 지역에 존재하던 귀틀집의 기원인 한반도가 아니라 바이칼 호와 알타이 지방 및 에네시강 유역이라는 것은 역사적 정설이다. 김해 대성동과 양동 고분에서 출토된 솥인 동북(銅鑊)과 철북(鐵鑊) 3개는 모두 북방 기마민족이 사용하던 것들이었다. 삼국사기는 "박혁거세 즉 위년에 (고조선 유민들이 산곡(山谷)에 나누어 거주하여 6촌을 이루었다"고 하여 신라 기원을 고조선 유민들의 이주에서 찾는다. 신라 총 56대 992년(B.C. 57-935) 동안 박씨 성을 가진 왕이 10명, 석씨가 8명, 김씨 성을 가진 왕들이 38명이었다. 건국 초기에는 주로 박씨와 석씨가 왕위에 올랐으며 김씨들이 왕조에 오르기 시작한 것은 17대 내물왕과 19대 눌지왕 사이에 성립된 것으로 보인다. 이때 왕호도 거서간에서 마립간(麻立干)으로 바뀐다(삼국사기는 19대 눌지왕부터 22대 지증왕까지 4대, 삼국유사는 17대 내물왕부터 지증왕까지로 봄). 마립간은 임금이 있는 곳 곧 강력한 통치자를 지칭한다. 왕호까지 바뀐 것에서 박씨와 석씨를 능가하는 강력한 북방 세력이 어느 시기 남하하였음을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들은 분명 스키타이의 피를 받은 무리들이었다.

스키타이족의 또 다른 두드러진 특징은 황금장식과 함께 땅을 파서 시신이 담긴 목곽(木槨)을 안치하고 그 위에 돌을 쌓아올린 소위 돌무지덧널무덤(積石木槨墳)이라는 무덤양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바로 우리들이 신라의 거대 왕릉에서 보는 무덤 양식이다. 유명한 천마총은 바로 그 대표적 왕릉이다. 스키타이족은 활을 잘 다루는 민족이었다. 유희사거리가 멀고 강력한 '백궁'이라는 화살과 몸을 돌려 쏘는 '배사법'을 특징으로 하는 스키타이족은 말을 타고 능숙하게 활을 다루었다. 한 자 '동이(東夷)의 이(夷)는 오랑캐' 이가 아니고 '큰 활'을 의미한다. 즉, 동이는 동방의 큰 활 민족을 의미한다. 이들은 중국 진(秦), 한(漢) 시대에는 흉노(匈奴), 수(隋), 당(唐) 시대에는 돌궐(突厥) 또는 위구르, 타기, 고대 그리스(폴리스 시대)에서는 스키타이, 로마(제정시대)에서는 훈(후)족으로 불리게 된다. 따라서 흉노(스키타이)가 인종학적으로는 아시아족에 속하는 황인종 퉁구스(시베리아)만주. 한반도 사람들이 지칭하는 칭호로 전통적인 동이족을 말한 계열에 속하고, 19세기 이후 발달한 언어학적인 민족계열로 분류하면 몽골어군에 속한다. 고구려의 서울이었던 집안현(輯安縣)의 국내성(國內城), 환도성(丸都城) 지역 이름이 퉁구(濛濛)인 것도 의미심장하다. 흉노가 중국 땅에서 주목 받은 것은 BC 318년 중국 전국시대 제후국인 한(韓)·위(魏)·조(趙)와 함께 진을 공격했으며, 그 뒤 중국 땅을 빈번히 침입하면서부터였다. 이에 중국 땅 여러 나라들은 흉노의 침입을 막기 위해 각각 성벽을 쌓았는데, 이것이 훗날 만리장성이 되었다. 흉노족이 강성해지기 시작한 것은 이들이

선우(單于)라고 불리는 단일 지도자 밑에서 광범위한 부족연합을 형성한 때부터였다. 그러기에 고대 중국 삼국지에 나오는 오나라의 왕 손권이 고구려를 '흉노의 왕'이라는 의미의 '흉노의 선우'라고 지칭한 것도 주목된다. 백제는 일부 고구려 유민들이 세운 나라요 가야도 기마민족의 후손이었다. 가야를 흉노인 김씨의 나라라고 논증한 서동인(徐東仁)이 "이란계인 타지키스탄을 제외하고 카자흐스탄, 우즈베크스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중앙아시아 공화국들이 우리와 친연성이 있다"고 결론을 내린 것도 같은 흉노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점 때문이었다. 이렇게 볼 때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로 대표되는 우리 민족의 모든 주류는 심정적 셈족이나 서구 신학자들과 헨리 모리스(H. M. Morris)가 말하는 함족이 아니요 아벳 계열이 되는 셈이다.

일본이 세계 유일의 독창적 모체라고 자랑하는 일본천황릉인 전방후원분의 원형도 실은 한반도의 전라도, 충청도, 경남 지역에서 그 원형이 나올 뿐 아니라 스키타이 계열의 가라족 무덤이었다(김성호 박사).

기독교인들은 우리 민족이 단일 민족이라는 허구적 역사관을 빨리 버려야 한다. 우리 민족은 예부터 각 지역에서 유민들이 쏟아져 들어온 역동적 다문화국가였다. 북방 스키타이 계열의 흉노 뿐 아니라 남방계 몽골계, 베트남계, 일본에서 역유입된 왜(倭)계, 심지어는 아라비아계도 있었다. 다만 그 가운데 문화적 주도 세력은 분명 북방계였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혈통을 하나로 만드셨다(행 17:26). 흉노 주민들은 흔히 유목민으로 정착 생활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렇지만 박씨 성을 가진 왕이 10명, 석씨가 8명, 김씨 성을 가진 왕들이 38명이었다. 건국 초기에는 주로 박씨와 석씨가 왕위에 올랐으며 김씨들이 왕조에 오르기 시작한 것은 17대 내물왕과 19대 눌지왕 사이에 성립된 것으로 보인다. 이때 왕호도 거서간에서 마립간(麻立干)으로 바뀐다(삼국사기는 19대 눌지왕부터 22대 지증왕까지 4대, 삼국유사는 17대 내물왕부터 지증왕까지로 봄). 마립간은 임금이 있는 곳 곧 강력한 통치자를 지칭한다. 왕호까지 바뀐 것에서 박씨와 석씨를 능가하는 강력한 북방 세력이 어느 시기 남하하였음을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들은 분명 스키타이의 피를 받은 무리들이었다.

스키타이족의 또 다른 두드러진 특징은 황금장식과 함께 땅을 파서 시신이 담긴 목곽(木槨)을 안치하고 그 위에 돌을 쌓아올린 소위 돌무지덧널무덤(積石木槨墳)이라는 무덤양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바로 우리들이 신라의 거대 왕릉에서 보는 무덤 양식이다. 유명한 천마총은 바로 그 대표적 왕릉이다. 스키타이족은 활을 잘 다루는 민족이었다. 유희사거리가 멀고 강력한 '백궁'이라는 화살과 몸을 돌려 쏘는 '배사법'을 특징으로 하는 스키타이족은 말을 타고 능숙하게 활을 다루었다. 한 자 '동이(東夷)의 이(夷)는 오랑캐' 이가 아니고 '큰 활'을 의미한다. 즉, 동이는 동방의 큰 활 민족을 의미한다. 이들은 중국 진(秦), 한(漢) 시대에는 흉노(匈奴), 수(隋), 당(唐) 시대에는 돌궐(突厥) 또는 위구르, 타기, 고대 그리스(폴리스 시대)에서는 스키타이, 로마(제정시대)에서는 훈(후)족으로 불리게 된다. 따라서 흉노(스키타이)가 인종학적으로는 아시아족에 속하는 황인종 퉁구스(시베리아)만주. 한반도 사람들이 지칭하는 칭호로 전통적인 동이족을 말한 계열에 속하고, 19세기 이후 발달한 언어학적인 민족계열로 분류하면 몽골어군에 속한다. 고구려의 서울이었던 집안현(輯安縣)의 국내성(國內城), 환도성(丸都城) 지역 이름이 퉁구(濛濛)인 것도 의미심장하다. 흉노가 중국 땅에서 주목 받은 것은 BC 318년 중국 전국시대 제후국인 한(韓)·위(魏)·조(趙)와 함께 진을 공격했으며, 그 뒤 중국 땅을 빈번히 침입하면서부터였다. 이에 중국 땅 여러 나라들은 흉노의 침입을 막기 위해 각각 성벽을 쌓았는데, 이것이 훗날 만리장성이 되었다. 흉노족이 강성해지기 시작한 것은 이들이

두발(Tubal)은 아벳의 후손 가운데 다섯 번째로 소개되고 있다. 두발도 일반적인 아벳족의 지리적 행로를 따라 정착하였다. 아벳 일족은 셈족과 함족과 달리 바벨탑 분산 사건 이후 다시 인류의 고향 아라랏산 방향으로 이동한다. 그런 점에서 같은 아벳 계열인 고멜유럽, 독일, 터키, 아르메니아 등과 마곡(스키타이)과 마대(현 이란의 북부와 남쪽)였다. 요세푸스는 두발의 땅은 로만 이베리아(Romans Iberia)라고 불려졌다고 말한다. 현재는 (구소련 연방인) 그루지아 또는 조지아(Georgia)라고 알려진 지역이다. 이베리아는 두발의 땅 말고도 스페인에도 있었다. 어원적으로 남북카프카스어족과 이베리아 반도의 피레네산맥에서 쓰이고 있는 바스크어는 유사성을 보인다. 하지만 유럽의 이베리아인 이 카프카스 지방으로 이주한 것인지 이들과의 친족 관계는 확실하지 않고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오늘날 조지아 공화국의 수도 이름 트빌리시(Tbilisi)는 두발(Tubal)로부터 파생된 이름이다. 그리고 일부 두발족 일행은 이곳으로부터 코카스 산맥을 가로질러 북동쪽으로 이주하였는데, 이때 그들 부족의 이름을 따서 강의 이름도 토크(Tobol)이라 불렀고, 유명한 토크스(Scythia)였다. 이에 중국 땅 여러 나라들은 흉노의 침입을 막기 위해 각각 성벽을 쌓았는데, 이것이 훗날 만리장성이 되었다. 흉노족이 강성해지기 시작한 것은 이들이

롯데칠성음료

상큼함 MAX 칼로리 X

TAMS ZERO

유통기한 확인하여 식품선택 올바르게

북부에서 시베리아 서쪽 저지대 남서부를 흐르는 1591km에 달하는 대단히 큰 강이다. 토볼강 합류지점 부근에 있는 이르티슈강 오른쪽 연안에 있는 토볼스크는 16세기 타타르인이 세웠던 시베르한국(汗國)의 수도 이스켄이 있던 곳으로 (시베리아)라는 명칭은 러시아인이 이곳을 (시베리)라고 부른 데서 유래한다. 따라서 두발족은 오늘날 조지아공화국의 주요 구성원이요 일부는 러시아 남부 시베리아 지역에 걸쳐 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들 그루지아(두발)족이 유달리 우리 민족과 많이 닮았다는 점은 흥미롭다. 첫째 우리나라와 그루지아족은 산지가 많고 세상을 호령하기 보다 주로 외세의 침략에 늘 시달려온 약소국가라는 점이 많이 닮았다. 강대국의 탐바구니에 긴 모습도 많이 닮았다. 둘째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음식 만들기를 좋아하고 진하고 매운 향신료와 허브와 마늘을 좋아하는 민족이라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이슬람과 무신론 공산주의의 팽배 아래서도 전혀 굴하지 않고 오랫동안 깨끗하게 기독교 계열의 조지가 정교를 지켜왔다는 사실은 예사롭지가 않다. 비록 기독교 역사는 짧으나 조선 후기 유교 사회와 625를 거치면서 믿음의 선배들의 뜨거운 순교의 피가 흐르는 우리와 많이 닮았다. 카프카스산맥 북쪽 러시아 영역에 거주하는 북(北)오세티아인들은 이슬람교 수니파(派)에 속하고 일부 소수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아지르나아제르바이잔인쿠르드족 등은 이슬람교를 믿는 하나 남오세티아인들은 동방정교를 신봉하며 이슬람 9.9%, 카톨릭 0.8%, 일부 불신자, 유대인들을 제외한 대부분이 조지아 정교회에 속해있다. 비록 주변의 러시아나 타타르에 비하면 작고 협소한 땅에 자리 잡고 있으나 두발족은 조지아 남쪽 고델 계열의 아르메니아와 더불어 무신론 공산주의와 이슬람 세력을 쫓아 막아선 민족이요 이슬람과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와 유럽 탐바구니의 정중앙에 있는 민족으로 마치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의 탐바구니에서 기적처럼 곱들여지는 우리 민족과 너무나 많이 닮은 민족이다. 우리 민족의 주류는 분명 수천 년 전 두발의 땅 시베리아를 거쳐 한반도까지 들어왔을 것이다. 이것은 음분토기(陰文土器)의 분포 지역과도 일치한다.

메섹(Meshech)의 이름은 “늘이다”, “키가 큰”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역대상 1장 17절에는 셈의 아들로 묘사 되나 셈의 아들 가운데 메섹은 없었으므로(장 10장) 이는 아마 아람의 아들 마스(Mash)의 오기(誤記)일 가능성이 있고(장 10:23) 그렇지 않다면 우리들이 모르는 다른 족명이 있을 거라고 본다. 고대 약카드 문헌에 보면 무슈키(Mushki)라는 이름이 나타나고 아수르 문헌에는 무스키(Mushki)라고 불려지는 북방 족이 등장한다. 이는 메섹 일족을 말함이 분명하다. 헬라는 전통적으로 흑해 남동쪽에 자리 잡은 이 민족을 무스코이(Muschoi, Mooroi)라고 불렀다. 즉 아벳의 후손 메섹은 같은 형제 두발과 동행하면서 바벨탑 사건 이후 인류의 생명의 고향이요 조상의 근원인 아라랏 산 방황으로 되돌아와 북쪽 카프카스(Kavkaz, 영어 명은 코카서스Caucasus) 산맥을 향하였고 중동에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같은 무력의 지배자들이 나타나면서 카프카스 산맥을 넘어 시베리아와 지금의 광활한 러시아 땅으로 들어가 오늘날 러시아 땅의 주인이 되었다.

메섹의 성경적, 역사적 출발점이 카프카스 산맥 남쪽 두발 땅이었다는 것은 우리 민족의 기원과 관련하여 대단히 흥미롭다. 우리 민족의 주류를 북방에서 찾는 것은 역사학계에서도 아주 자연스러운 정설이 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가라(kara)라는 지명이다. 이병도(李炳濤) 박사는 가라라는 지명이 김해의 가라(加羅)에서 비롯되었다고 하였으나 이것은 너무 시야가 좁고 순진한 발상이다. 가라(加羅)는 한반도 전역에 퍼져있는 가장 대중적 지명이다. 놀랍게도 이 고대 지명은 오늘날까지 한반도 전역에 퍼져있다. 가라(加羅, 가야)를 지명으로 하는 곳은 한반도 전역(영북, 황해, 강원, 경기, 서울, 충남, 충북, 경북, 부산, 전남, 경남)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한반도 고대 변진 12국 중 10국이 모두 '가라'라는 이름을 가진 제국이였다. 그리고 이 '가라' 제국들은 모두 신라의 박혁거세 세력과 닿아있는 이름들이다.

변한 지역에 존재했던 귀족집은 우리 민족 특유의 집이 아니라 그 기원이 바이칼 호수 서부와 알타이 지방 및 에니세이 강 유역이다. 따라서 기원전 북방계 주민이 한반도 변한 지역에 들어왔다는 것은 학계의 정설이다. 그럼 kara라는 이 말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 이 말은 사실 '검다'는 뜻의 아란어 kara에서 유래된 말이다. 이 말은 검다는 뜻의 일본어 '흑(黑, kuro)와도 연결된다. 이란어는 또 있다. 서울 '한강물의 순수 우리말인 '하리수의 아라(Ali, ara)는 아란어로 강(江)을 말한다. 영국 필립스는 <The University Atlas>(1974)에서 세계의 '가라'계 지명을 추적한 결과 무려 200여개를 찾아냈다. 그 중 60%는 터키와 카라카스와 이란 북부에 집중 되어 있고 이 지명은 카프카스 산맥을 넘어 우리 민족과 닿아 있는 스키타이 족의 활동 무대와 모스크바 지역 그리고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과 시베리아의 고퍀 토벌을 가진 지역에 집중 분포되어 있다. 우즈베키스탄의 소수 민족 자치구 이름 가운데 하나인 카라칼팍(Kara-kalpak)에서도 '카라'가 남아있다. 이 끈질기고 강렬한 이름은 우리나라와 일본으로까지 연결되고 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는 한강변과 낙동강변의 고대 부족국가 주변에 '가라'의 지명이 많이 남아 있다. '가라'라는 지명은 놀랍게도 넓은 중국 대륙과 동남아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 지명이다. 일본에서는 한(韓)도 'kara'로 읽힌다. 고대 일본인들이 볼 때 자신들의 고향 한국(韓國)은 얼마나 '가라'라는 지명이 많은지 '가라(韓)의 구니(國)였다. 심지어 일본의 대마도(對馬島)도 '쓰시마'가 아니라 고대에는 'kara sima'로 읽혔다. '가라'라는 지명은 분명 우리 민족의 기원을 추적하는 데 아주 중요한 지표 자료가 아닐 수 없다.

우리 땅에서 출토되는 돌무지덧날무덤(積石木槨塚), 출자형 금관(出字型 金冠), 황금제 장식(裝飾), 환두대도(環頭大刀), 동물양식 대구(帶飾) 등도 모두 중국 대륙과는 무관한 북방 스키타이 관련 유물들이다. 스키타이인들은 동북이나 철북을 말안장 뒤에 달고 다니며 그곳에 식량을 담아 저장하거나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였다. 놀랍게도 이 청동술 모형은 경주 금령총에서 출토된 도제가마인물상에도 뚜렷하게 조각되어 있다. 그리고 김해의 옛 가야 지역에서 발굴되었다. 전형적 돌무지덧날무덤인 경주 천마총의 천마(天馬)를 보면 어깨 위 날개와 몸 전체에 발달형 무늬가 있다. 발달형 무늬는 전형적인 스키타이 기법이다. 이들 모든 자료를 따라 우리 민족의 주류를 역추적 해보면 남방이나 중국 대륙이나 산동 반도가 아닌 한반도-만주(고조선, 부여, 고구려)-대몽골-시베리아-흑해 연안(스키타이, 두발, 메섹족)-카프카스(코카서스) 산맥-터키, 아르메니아의 아라랏 주변(또는 시날방 바벨론)으로 연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우리 민족은 역사적 굴곡을 따라 한반도로 진입한 크고 작은 부족과 씨족들이 이룬 다문화 국가요 문화적 주류는 북방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렇다면 셈이나 함보다 아벳의 영향력이 좀 더 강하다고 볼 수 있겠다. 서울대 명예교수 신용하 박사는 낯선 종교(둔근신앙?)를 가졌던 에스토니아, 마지르족(말갈족?)의 형가리, 불가리아, 부리아트, 스페인의 바스크족, 아발족, 몽골족 등이 모두 고조선 멸망 후 변방 군사와 유인들이 경주까지 남하하듯 내륙 초원 지대로 흘러진 고조선의 후예들이라는 주장을 펴다. 대부분 아벳의 터전과 일치한다는 점에서는 살펴볼 여지가 있다.

IV. 한반도와 주변 국가
우리 민족 기원에 대한 성경적 시선은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 민족과 주변 국가들에게로 돌려진다. 지리적, 영토적, 문화적으로 우리 민족과 가장 큰 영향력을 주고받은 것은 당연히 지금의 중국이다. 우리 민족 성씨의 기원이나 많은 씨성들이 중국에서 귀화한 성씨인 것도 그것을 증거한다. 하지만 중국과 구별되는 상이한 한자 문화권임에도 전혀 다른 언어와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해 왔다는 것이 그것을 증거한다. 오죽하면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면서 우리말이 중국과 다르다는 것을 명시하였을까.
문제는 일본이다. 일본이 자신들 천황과 국가 기원의 기준으로 삼는 일본서기가 주



스키타이와 흉노의 초원 문화 영향을 받았음을 보여주는 동북. ©국립박물관

로 한반도의 삼국과 가야의 역사를 다루면 특별히 백제사가 주로 다루어진다. 이것은 주목할만하다. 고대 일본의 왕성(王城) 지역이었던 오사카의 역사박물관은 역사관 입구부터 백촌강 전투(白村江の戦い)를 소개하고 있다. 백촌강 전투(白村江の戦い)는 주후 663년 8월, 한반도의 백강(현재의 금강, 만경강, 동진강 중의 하나)에서 벌어진 백제-왜의 연합군과 당-신라의 연합군 사이의 전투였다. 제망야체를 대신해 천지(天智, 덴지) 천황에 오른 중대(中大) 황자는 2만 7천명으로 이루어진 백제-구원군을 파견하였으나 백제-왜 연합군은 이 백촌강 전투에서 전선 400척을 잃고 패배한다. 백제부흥운동이 실패로 돌아간 이후 백제 부흥군의 지휘부, 그리고 백제 유민의 대부분은 당시 백제의 '우호국'이었던 왜로 망명의 길을 택했다. (일본서기)에 따르면 663년 9월, 주류성이 함락되었을 때, 야마토(大和), 즉 나라(奈那)의 난바(難波, 난파) 사람들이 "주류(州流)가 함락되었으니 이제 어쩔 도리가 없게 되었구나. 오늘날서 백제라는 이름이 끊어졌으니 조상들의 무덤이 있는 그곳을 어찌 다시 찾아볼 수 있을 것인가"라고 탄식하였다. 지금의 오사카 중심지 난바는 고대 백제들의 새로운 나루터(難波津)의 이름이었다고 볼 수 있다. 심지어 일본 (고사기)(古事記)에 나타난 천황가의 일본황실 조상 귀신(鬼神)인 아마테라스오미가미(天照大神)의 손자인 나니기노미코(瓊瓊杵尊)의 천손(天孫) 강림 신화는 "이 곳이 한국을 바로보고 있으니 큰 길지(吉地)"라고 말하여 일본천황의 원적(原籍)이 한국임을 분명히 하면서 길지인 고향 한반도를 그리워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일본의 천손강림신화(天孫降臨神話)가 한국 고대 왕조의 시조 신화와 매우 유사하다는 것은 한일 양국 학자들이 이미 다양하게 지적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 씨성(氏性)으로 한일 민족 기원의 연관성을 밝혔을 뿐 아니라 삼국사기, 삼국유사, 광개토태왕비문, 일본서기 등을 통합적으로 분석하여 일본의 응신(應神) 천황이 곧 비류 백제 마지막 임금이었음을 논증하며 비류(沸流) 백제(百濟)의 역사적 부활을 시도한 김성호(金聖昊) 박사의 논증은 한일 학계 모두에 큰 충격을 준 주목할만한 논문이 아닐 수 없다. 왜가 국호를 일본으로 바꾸게 되는 것도 바로 이 같은 국제적 질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백제와 고구려의 멸망으로 백제계, 고구려계 난민 등이 몰려들자 왜의 조정은 이러한 상황을 국내 정치에 반영하여 천지 천황 때에 책정된 오오미령(近江令)부터 덴무 천황 때에는 일본 최초의 율령법으로 여겨지는 아스카기요미하라령(飛鳥淨御原令)의 제정이 이루어지면서 율령국가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한다. 그리고 다이호 율령(701년)의 제정으로 국호를 왜에서 일본으로 바꾸어 신국가의 탄생을 완성하였다. 이후 서기 815년 편찬된 <신찬성씨록>(新撰姓氏錄)은 외국에서 건너온 중요한 성씨 328개 가운데 백제계가 158개, 고구려계 42개, 신라계는 9개, 임나(任那) 10개로 분리하여 백제계가 고대 일본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일본서기> (敏達紀)나 (舒門) 또는 <新撰姓氏錄>이 일본 천황이나 천황의 아들들을 땀땀하게 백제에서 왔다고 밝히고 있는 것도 심상치 않다. 따라서 일본 학자들도 해석을 잘 못하는 수수께끼같은 책 '일본서기'가 주장하는 '임나일본부'는 어쩌면 '임나백제부'로 해석하면 모든 수수께끼가 풀리기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 일본서기 서문은 끊임없이 자신들의 근원은 '담로'임을 수수께끼 풀듯이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즉 백제계 도래인이 중심이 되어 고조선, 가야, 백제 역사서를 참고하여 일본 천황의 만세일계를 조작하면서 서술한 일본서기 서문의 키 워드는 '백제의 지방



신라 금관. ©국립박물관

통기 기구인 '담로'임을 여러 군데서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조상을 한반도와 관련 짓지 않으려는 일본학자들의 주장은 눈물겨울 정도이다. 가미민족이 빠른 속도로 북방에서 한반도로 남하하여 백제를 건국한 이후 경남 김해 지방에 근거지를 확보하고 변한(任那)을 지배한 다음 일본으로 입성하였다는 에가미 나미오(江上波夫) 교수의 소위 가미민족설(1948년)도 실은 스키타이족의 남하를 한반도를 배제하고 설명해보려는 눈물겨운 시도인 것이다. 만세일계(萬世一系)의 황국사관에 길들여진 일본인들 입장에서는 이같은 주장이 큰 충격이었겠으나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매우 애처롭게 보인다. 모든 인류를 한 혈통으로 만들었다는 성경의 기록과 통섭의 거대사적 관점에서 볼 때 우리 민족과 일본은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어쩔 수 없이 피를 나눈 민족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 쓰러진 사실이 복음과 선교에 있어 우리 민족에게 부여된 신앙적 고린을 하게 만든다.
V. 나가면서



김해 대성동고분군에서 스키타이계 유물 출토를 보도한 부산의 국제신문. ©김해박물관

성경적 관점에서 우리 민족 기원을 탐구하는 문제는 이제 그 출발점에 서었다고 할 수 있다. 다행히 창조사학회가 조직되어 1997년 제 1차 탐사를 시작으로 성경 기록의 진실성 탐구를 시작한 것은 그나마 희소식이였다. 그만큼 본격적인 탐구가 없었다. 이 탐구에 있어 일차적 문제는 관련 문헌 부족과 세속고고학을 성경과 연결하는 문제 등이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문제는 기원과 고고학을 탐구하는 모든 학문의 달레마이기도 하다. 어렵더라도 이 작업은 결코 멈출 수는 없다. 다음의 세 가지 이유를 살펴보자.
먼저 진리의 책 성경이 역사적으로 정확무오한 말씀이라는 것을 증거해야 하기 때문이다. 역사적 진실을 도출해내지 못하면 결국 문헌의 가치와 진실성을 상실하게 된다. 세속 학문은 여러 측면에서 성경

과 기독교에 영향을 주고 있다. 세속학문이 긍정적 영향도 많으나 부정적 영향도 못지않았다. 왜곡된 '임나일본부' 해석은 일제 침략의 도구로 되었으며 중국은 '동북공정'이라는 이름으로 역사를 왜곡하며 우리 민족을 압박하고 있다. 바른 역사를 빼앗기면 민족 정체성을 잃게 될 수도 있다. 일본의 침략 근성은 한국을 점령하는데 그치지 않고 역사를 왜곡시켜 놓았다.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가 세계 문명을 23개로 분리하면서 중국과 일본 문명은 강조하면서 한국을 그 아류(亞流)로 누락시킨 것은 바로 그런 일본이 저지른 역사왜곡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역사의 하나님인 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는 우물안의 개구리가 되지 말아야 한다. 반드시 바른 역사적 진실을 바탕으로 복음을 바르게 알릴 수 있는 당위성이 있다.
둘째 성경의 출발은 성경이 족보의 책이라는 것이었다. 이 족적 족보의 책 성경은 결국 영적 족보로서의 생명의 책으로 구속 사역을 보여준다. 성경 족적 족보의 역사적 근거가 영적 족보로서의 구속 사역의 진실성을 논증한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9-11장)에서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을 향한 절절한 사랑을 보여준 것처럼 성경은 선교 지향의 책이다. 성경은 결코 민족을 무시하지 않는다. 모든 영광은 열방과 열국을 통해 나타날 것이다(겔 39:21). 즉 역사적 진실은 열방을 향한 민족적 역사적 소명을 깨닫게 만든다고 할 수 있다. 성경과 우리 민족 고대사에 대한 바른 역사적 진실과 정체성을 바탕으로 우리 민족을 향한 소명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5가지 서비스로
튼튼하고 든든하고 탄탄하게**

트든타

고객케어

유용한 보험
보험료 할인부터
플리자 예약까지
편리한 보험 생활의 시작

쉽고 빠른 청구
보험금 청구의 모든 것을
쉽고 빠르게 해결

특별한 케어
고객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와 자산 관리

빈틈없는 보장
꼭 필요한 보장을
배짐없이 점검

솔솔한 혜택
건강과 생활까지
챙기는 혜택

1588-3114

삼성생명 홈페이지/모바일 앱 '트든타 고객케어', 메뉴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하마스가 인질과 포로교환을 왜 중단했을까

이만석 목사
4HIM 대표,
한국이란인교회



2023년 10월 7일 초막절 마지막 행사를 위해 서 청소년 음악 축제가 준비되고 기쁨의 분위기가 한껏 부풀어 있던 안식일 아침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무차별 공격함으로써 시작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악몽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하마스는 20분간 5천발 정도의 로켓포를 무차별 발사함으로써 건물들이 파괴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어 나가는 대참사가 일어났었다. 1시간 정도 이 정도로 파괴되었으니 계산해 보면 약 1만5천발 정도의 로켓포를 쏘았다는 말이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마스의 로켓포가 공포스러운 이유는 이 로켓이 어디로 향하는지 쓰고 있는 하마스 대원들도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이스라엘 측의 미사일 반격은 정밀준비가 가능한 정확한 목표가 정해진 타격이라는 점이 다르다. 이스라엘측은 공격 대상이 정해지면 미리 그 지역에 알린다. 내일 정확하게 몇 지 정박에 어느 건물을 폭격할 것인지 민간인들은 그 지역에서 대피해서 원치 않는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란다는 방송도 하고 그 인근에 비행기로 전단지도 뿌려서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한다.

그러나 하마스는 오히려 이스라엘이 알려준 목표 지점에 민간인들을 모아놓고 팔레스타인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은 민족의 영웅이 되고 순교자가 되는 최선의 행동이라고 선동하여 희생자 수를 늘려 이스라엘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을 증폭시킨다. 대원들은 이어서 멈추지 않고 이스라엘과 가자지구를 분리하는 장벽을 파괴하고 오토 바이를 타고 이스라엘 지역으로 무장한 하마스 대원들이 침투하더니 불도저로 무너진 틈을 키워서 자동차로 돌진하기도 하고 패러글라이더를 통해서 하늘을 날아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침투하여 축제 분위기에 들떠 있는 젊은이들을 향해 무차별 총격을 가했다. 무장한 하마스 대원들은 즉시 인근 집단 농장으로 들어가 닥치는대로 살해하고 (약 260여명) 이스라엘 사람이건 외국인이건 보이는대로 납치하여 240여명을 끌고 가자지구의 각 처로 분산시켜 수용하고, 하루아침에 약 1400여명(후에 1200명으로 정정함)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목숨 빼앗는 대 재앙을 안겨 주었다. 마치 일본이 갑자기 미해군을 공격했던 진주만 공격이나 평안하던 뉴욕시에 비행기를 납치하여 월드 트레이드 빌딩을 들이받아 하루에 3000명의 목숨을 앗아갔던 9/11 테러를 당한 것과 방불한 대참사였다.

이스라엘 정부는 즉각 보복 공습에 착수하였고 공습에 이어 지상군을 투입하여 하마스 교멸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그 좁은 가자 지구의 땅을

에 서울 지하철 노선보다 더 긴 580km의 땅굴을 뚫어 놓고 곳곳에 부비트랩이나 지뢰 또는 저격병들을 숨겨 놓은 하마스의 전략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측에 비판적인 전망을 예견했으나 이스라엘 측은 땅굴 속에 숨어있던 하마스대원들을 특수장비를 동원하여 효과적으로 제거해 나가고 있다. 이스라엘의 정확한 정보를 통한 효과적인 공습으로 더 이상 견디기 힘들었던 하마스 지도부는 인질 석방을 댓가로 휴전을 간청하게 되었다. 발전기를 돌릴 연료가 떨어져서 병원에서 의료장비들이 멈춰서게 되고 죄없는 민간인 환자들에 피해를 입게 되자 하마스는 휴전에 응하게 되었다.

이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4일간의 일시 휴전이 이루어졌다. 공습을 멈추고 동시에 이집트를 통해서 생필품 반입까지 허용되어 정말 골짜기는 휴전이었다. 휴전은 조건부로 연장 가능한 상태였다. 이스라엘 포로나 인질 1명 당 팔레스타인 포로 3명을 석방하는 조건이었고, 인질 10명을 석방하면 휴전을 하루 연장하는 식이었다. 전쟁 시작부터 47일만에 맞보는 공습이 없는 하늘을 볼 수 있었던 휴전이었다. 4일간의 휴전을 마치고 2일간의 휴전을 연장했다. 그러나 돌연 하마스 측에서 휴전에 제동을 걸었다. 소위 이스라엘 측이 휴전 합의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기는 했지만 이스라엘 측은 휴전 합의를 잘 지키고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후에 밝혀진 바로는 이들이 휴전 연장과 포로 교환을 거부한 이유는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 있었다.

석방된 포로들이 자신들이 겪었던 성폭행 등의 사실들을 폭로하면서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게 되자 여성 인질들을 석방시키는데 브레이크가 걸리게 된 것이었다. 사실 이것은 이슬람의 본질적인 문제였고 이슬람 율법적으로는 '할랄(합법적인 것, 허용된 것)'이었다.

꾸란 4장 24절에 보면 남편이 있는 여인들을 취하는 것은 금지(하람)된 행위였다. 그러나 예외가 있었다. 전쟁포로들과 하녀들은 예외라고 꾸란은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꾸란에는 '오른손이 소유하는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전쟁포로나 노예소녀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하마스 대원들에게는 분명히 전쟁을 통해서 납치해 온 여성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마음대로 성폭행을 하든지 죽이든지 살리든지 마음대로 해도 되는 이슬람 율법에 의해서 자신의 소유권을 합법적으로 인정 받은 '할랄'여성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석방하는 것은 대원들의 사기를 위해서 문제가 많았을 것이다.

12월 5일 미국의 워싱턴 DC의 케네디 센터에서 있었던 연례만찬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5일 (현지 시각) "하마스가 10월 7일 이스라엘 공격 초기부터 여성과 소녀들을 겁에 질리게 만들기 위해 성폭행을 이용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분명히 말하겠다. 하마스가 남아 있는 젊은 여성(인질)들을 석방하기를 거부한 것이 (이스라엘과



최근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서 이스라엘 인질 구출 및 안보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갖던 모습. ©한국 안의 이스라엘

의 협상을 파기시켰고 교전 중지의 종단을 가져왔다"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하마스가 교전 중지 협상에 따라 석방하기를 거부했던 이들은 주로 20세에서 39세 사이의 민간인 여성"이라고 말했다.

전날 매튜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국무부 브리핑에서 "(인질에 대한 성폭행이) 하마스가 인질로 잡고 있던 여성들을 남겨주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 중의 하나인 것 같다"면서 "교전 중지 협정이 결렬된 것은 여성들이 구금 기간 동안 일어난 일들에 대해 말하는 것을 (하마스가) 원치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에 더해 이번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하마스의 성적 학대 문제를 거론하고 나섰다.

이날 정치자금 모금행사를 위해 매사추세츠주(州) 보스턴을 방문한 바이든 대통령은 행사에 앞서 "시작하기 전에 이스라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 먼저 몇 마디 하겠다"면서 하마스의 성폭행 문제를 꺼냈다.

그는 "지난 몇 주 동안 (하마스) 공격의 생존자와 목격자들은 상상할 수 없는 잔혹 행위에 대한 끔찍한 얘기를 공유했다. 여성들이 반복적으로 강간 당하거나, 살아있는 동안 신체가 훼손됐고, 여성의 시신들이 훼손당했다는 보고가 있었다"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하마스는 여성과 소녀들에게 그들을 살해하는 것보다 더한 고통을 야기하고 있고 이는 정말 끔찍한 일"이라며 "세계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 그저 눈을 돌려서는 안 된다. 하마스 테러리스트들의 성적 폭력에 대해 분명하고 예외 없이 강력하게 규탄하는 것은 정부, 국제 단체, 시민 사회, 기업 등 모두의 책임"이라고 말했다.(조선일보 2023.12.6)

바이든 대통령은 인질들이 겪었던 일들을 폭로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인질 석방을 거부한다고 말했지만 필자의 견해는 약간 다르다. 하마스 대원들은 무슬림들이다. 이슬람 율법에서는 이들을 취하는 것은 '할랄'(허용된 것, 합법적인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꾸란4:24) 그러므로 전쟁 때문에 여인들을 가까이 하지 못했던 하마스 대원들은 여인들에 대한 성적 욕구가 매우 컸을 것이다.

그래서 이슬람 초기부터 전쟁에 승리한 대원들에게는 무함마드가 여성포로들을 무슬림 병사들에게 포상 또는 전리품으로 나눠 주었다. 병사들은 이 여인들을 합법적인 성적 노리게 감으로 활용하다가 무기와 바꾸기도 하고 돈을 받고 팔기도 했다는 것이 이슬람 역사가 증명하는 사실이다. 이슬람의 제2의 경전이라고 하는 하디스에는 이런 기록도 있다.

아부 사이드 알 쿠드리가 전하기를 무스탈릭 부족과 전쟁할 때 무슬림들이 여성포로들을 잡았는데 그들을 임신시키지 않고 성행위를 하고 싶었다. 그래서 선지자(무함마드)에게 질의사정에 대해서 물었다. 그랬더니 선지자(무함마드)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너희에게 더 좋다. 왜냐하면 부활의 날까지 알라께서 태어나게 하기로 작정하신 자는 다 태어나기 때문이다."(Sahih al Bukhari Volume 9, Book 93, Number 506.)라고 대답하셨다.

전쟁터에서 포로로 잡은 여성들과 성행위를 즐기면서 임신을 피하게 하고 싶어서 질의사정을 했는데 이슬람의 창시자 무함마드는 굳이 그럴 필요 없다는 것이었다. 임신을 피하고 싶었던 이유는 아마도 임신을 한 여성포로는 제값을 받기 어렵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그렇게

하든 하지 않든 태어난 자는 태어나게 되어 있으니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더 좋다는 가르침이 있었다는 것이다. 부카리(Bukhari)의 하디스는 모든 하디스 중에서 가장 신뢰도가 높은 하디스라고 인정받고 있다. 이슬람의 창시자 무함마드의 모든 행위는 모든 인류의 최고의 훌륭한 모델이기 때문에 그의 행위는 가장 훌륭한 본보기다 된다는 우스와 하사나(Uswa Hassana)라는 이슬람의 교리가 있다.

그래서 하마스 병사들은 포로 혹은 인질로 잡은 젊은 여성들을 보면 알라께서 허락하신 성적 노리게감으로 보았을 것이다. 젊은 여성 인질들을 풀어주면 자신들의 원할 때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즐기던 노리게감이 줄어들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휴전 연장을 거부했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모든 무슬림들의 행동 모델이 되는 무함마드 자신도 유대인 마을 카이바라(Khaibar)를 공격했을 때 그 마을의 족장 카나나 아내 싸피아(Saphia)를 전쟁 포로로 취하고 즉시 결혼식을 올리고 당일 동침했다는 기록이 있다.

이슬람의 율법에 의하면 남의 아내였던 여인을 아내로 취할 때는 그 남편이 죽었든지 이혼을 했든지 그 여인의 복종에 전 남편의 아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기간이 지난 후에 동침이 가능하다고 한다.(일반적으로는 이 기간을 Iddah라고 하는데 3개월로 정한다.(꾸란65:4)) 때로는 이 기간을 4개월 10일로 기록하고 있는 곳도 있다.(Altafsir.com - The Tafsirs - تفسيرافتحنا, www.altafsir.com. Retrieved 2018-03-21.) 이슬람 율법을 존중하는 무슬림이라면 이 기간이 지난 후에 미망인이나 이혼녀와 결혼할 수 있다고 정해 놓았지만 무함마드는 사피아를 취할 때 이 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그 남편과 가족들을 죽인 그날 싸피아를 아내로 삼고 동침했다. 그러니까 전쟁포로는 아무 때나 범해도 된다는 것이 이슬람의 창시자 무함마드가 보여준 행동생태이며 이슬람의 경전 꾸란의 가르침이아는데는 감히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혈기 왕성한 하마스 대원들은 자신들의 성적 노리게감이 줄어들는 것을 달가와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슬람에서 여성의 인권을 남성과 동일하게 인정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순수한 거짓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슬람에서 아내는 경작지와 같으니 원하는대로 씨를 뿌리라고 가르치고 있다.(꾸란2:223) 이슬람의 창시자 무함마드는 자신의 딸들이 이슬람을 믿지 않는 사위들과 결혼했다는 이유로 모두 이혼하라고 명하고 이혼한 두 딸들을 후에 세 번째 칼리프가 된 우트만 장군에게 아내로 주어버렸다. 여기에 어디 여성의 인권을 찾을 수 있으며 가정을 소중히 여기거나 아내를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모습을 찾을 수 있는가? 정신차리고 속지 말아야 하며 속고 있는 이웃의 무슬림들을 눈을 뜨게하여 참된 인권을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줘야 할 것이다.

세상에 행복을 水 놓는다.

World Top K-water

물로 더 행복한 세상!
한국수자원공사가 국민감동을 위해 거듭나겠습니다.

환경부 | K-water 한국수자원공사

梨花莊(이화장)

정성구 박사
전 총신대-대신대 총장



며칠 전 나는 또다시 梨花莊(이화장)을 방문했다. 필자가 이화장을 방문한 것은 1985년이었으니 벌써 37년이 되었다. 그때 이화장을 방문한 것은 건국 대통령 이승만 박사의 영부인인 프란체스카 도너 여사를 뵈고 예배를 인도하기 위함이었다. 그때는 이인수 박사 내외가 아직 젊을 때였다. 프란체스카 도너 여사가 얼마나 근검절약하게 살았는지 이승만 대통령 재임 시절 양말을 기워 신은 것을 보고 가슴이 뭉클했었다. 그녀는 스위스 제네바의 레만호숫가의 한 호텔에 망명 영국 투사 이승만을 만나 한국의 근대사를 직접 체험하고, 이승만 대통령과 함께 영육을 같이 했다.

프란체스카 도너 여사는 독립투사 이승만의 아내였지만, 영문비서로서 국제 외교의 한 축을 감당했다. 이승만의 외교를 통한 위대한 독립운동은 <프란체스카 도너>라는 동반자가 있어서 더욱 날개를 단 셈이다. 이승만 박사가 하와이에서 쓸쓸히 운명한 후에 그녀는 이화장을 지켜왔다. 이화장은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사저이다. 한때 건국 대통령 이승만 박사 내외는 잠시 <마포장>에서도 기거했었다. 마포장은 한강이 내려다보이는 언덕에 있다. 본래는 일본의 총리의 별장이었으나 해방 후 한국 정부에 귀속되었고, 이승만 대통령이 이화장으로 옮긴 뒤 상이용사들에게 마포장을 하사하였다. 그러나 상이용사들이 그것을 관리할 수 없어서 벽산 그룹 김인득 회장에 넘겼다. 1976년부터 나는 김 회장의 호의로 마포장 아래에 있는 숙소를 얻어 몇 해 있는

동안 여러 차례 마포장에 가서 식사 초대를 받은 적도 있다.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사저 <이화장>의 출입은 금년 들어 빈번하게 되었다. 그 이유는 <한-미동맹 이승만 기념재단>과 함께 하면서,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양아들 이인수 박사와 부인 조혜자 여사에게 세배를 경해서 예배를 인도하기 위함이었다. 이인수 박사는 정치외교학을 전공한 교수였지만, 세칭 정치와는 무관하게 오직 학문 연구에만 주력한 조용한 학자로 살았다. 여러 차례 만나서 대화를 하는 중에도 한국의 초대 대통령의 아들로서 품위를 지키고 은퇴 후에도 고요히 지냈다. 그러나 그는 지난 11월 1일, 92세의 나이로 임종을 맞이했다. 이번에 이화장을 다시 찾은 것은 한-미동맹 이승만 기념재단의 임원들과 함께 홀로된 조혜자 여사를 위로 격려하기 위해서였다. 나는 그 자리에서 시편 33편 12절 말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쁨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봉독했다. 조혜자 여사와 함께한 회원들에게 다음과 같이 간단한 설교를 했다.

“오늘 한국이 이처럼 세계의 선진국이 된 것은 건국 대통령 이승만 박사가 가졌던 <성경적 세계관> 때문이다”라고 했다.

이승만은 한성감옥에서 종신 죄수로 갇혀 있을 때, 그곳은 감옥이었으나 이승만이 성경을 깨닫고 새 생명을 얻게 된 용광로였다. 선교사들이 이승만을 위해 쏟은 정성, 그에게 성경과 세계 기독교 문화와 신앙 서적을 읽게 하고, 영어를 통째로 암기하고 사전을 접필하고 신문에 사설을 쓴 것은 일찍이 역사에 없었다. 사실 한국 근대사는 이승만 전과 후로 나눌 수 있다. 이승만은 배재학당(미국식은 Paie College)에서 성경과 서양 근대사를 통달한 것은 장차 민족중흥의 근거가 되었다. 오늘의 한국이 이처럼 복 받고 잘살게 된 것은 고난과 역경을 이기고 한평생 조국을 위해

서 눈물로 기도한 건국 대통령 이승만 박사를 통해서다. 나는 이승만 박사의 행적을 추적하고 연구하기 위해서 이화장에서 마포장으로, 워싱턴에서 하와이로, 프린스턴으로 수많은 들락거리며 자료를 수집했던 적이 있다. 오늘의 자유대한민국이 공산주의를 막아내고 번영된 나라로서 기초를 놓은 것은 이승만 초대 대통령 때문이다. 그러나 많은 한국 사람들은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이승만을 독재자, 부정선거라는 프레임에 씌어 아직도 저주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고 들었다. 이것은 모두가 붉은 사상들이 조종한 이데올로기에 함몰되어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예배 후 조혜자 여사가 들려준 프란체스카 도너 여사의 추억 몇 가지는 다음과 같다.

손주들의 내복을 모두 프란체스카 도너 여사가 직접 기워서 입혔고, 아이들이 체육 시간만 되면 창피하다고 징징거렸으나 그때마다 <아껴라> <조금, 조금> 하면서 내뺌, 절약, 검소를 몸소 실행하셨다. 프란체스카 도너 여사는 매년 조혜자 씨에게 웃을 사준 일이 없고, 자기가 입던 옷을 고쳐서 입으라고 해서 늘 수선집에 다녔다고 했다.

그날 한국 원자력의 아버지 격인 장인순 박사는 말하기를, “이승만 박사는 1958년에 한국에 원자력을 만들라고 지시했고, 그것이 완성되면 20년이 걸린다는 말을 듣고도 이승만 대통령은 원자력 인재들을 발탁해서 유학을 보냈다. 드디어 그 열매가 맺혀 박정희 대통령 때 20년 만인 1978년에 고리 원자료를 완성했다”고 했다.

이승만 대통령의 비전,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의 추진력으로 대한민국은 일류국가가 되었다. 집에 돌아오니 이승만 대통령이 추진하던 또 다른 원자력의 아버지 <이창건 박사>로부터 이승만 박사의 프린스턴 대학의 Ph.D 사본이 도착했다. 그리고 건국 대통령 이승만을 다룬 <7적의 시작>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눈시울을 붉혔다.

구원론: 성화와 영화 사이, 죽음이란?(2)

최더함 박사
Th.D. 바로선개혁신학교
담임목사



은 집안에 복을 받고 있을 뿐입니다. 아무튼 억지로 무엇을 꿰뚫어 보려면 이렇게 무리수가 발생는 것입니다.

2) 영혼이 잠잔다는 주장
이것은 종교개혁 당시 주로 재세례파에서 내세운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죽음을 잠자는 것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도 죽음을 잠자는 것으로 표현하였습니다. 그중 고전 15장만 살펴봅시다.

“그 후에 오백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고전 15:6)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18)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20)

(이의 마 9:24, 27:52, 요 11:11, 행 7:60, 13:36, 살 전 4:13, 5:10 등이 대표적인 구절들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죽음에 대해 의식이 없는 것으로 묘사했습니다.

“사랑 중에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가 누구리이까”(시 65)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시 115:17) (참조. 사 38:18)

“~ 스올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전 9:10)

그러나 성경이 죽음을 잠자는 것으로 묘사했다고 하여 실제로 잠을 자는 것은 아닙니다. 죽음이 마치 잠을 자는 것처럼 신자들에게는 일시적이라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런 은유를 예수님도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요 11:11)

다시 증언하지만 신자는 죽는 순간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이 바로 낙원입니다. 그곳에는 우리 앞선 허다한 순교자들과 주님의 증언자들이 영혼의 구원을 받고 마지막 날에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속>

주님 오신 날, 오실 날

김한요 목사
베델한인교회



연말이 되면, 고마운 사람들이 떠오릅니다. 예수님이 오신 크리스마스의 계절이라 12월은 더욱 감사가 넘칩니다. 사무실에서 내려다 보이는 주차장에 가득 찬 차량도 미소를 품은 것 같습니다. 교회 옆 야생 보호지역에서 떼로 날아가는 새들이 저기 보이는 골짜기 너머 날아가는 모습

도 감사의 마음을 실어 나르는 바쁜 모습입니다. 예배당으로 걸어 들어오는 좌우 꽃밭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만개해 있고, 본당 앞에도 반짝이는 트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외치며 입장하는 성도들을 반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지 2000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예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연말의 분위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 앞에 자신을 들여다 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들의 심방을 받고 고마워하는 성도님들을 봅니다. 하물며 예수님의 심방을 받은 크리스마스에 우리는 얼마나 더 감사해야 할

까요?
저기 날아가는 새들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기쁜 소식을 한보따리 들고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하는 소리가 예배당 안에만 머물지 않고, 세상 땅끝까지 울려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해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예수님이 다시 일어나는 은혜가 넘쳤습니다. 12월 끄트머리에 크리스마스가 있는 이유가 이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리 어려웠고 힘들었던 한 해였다 해도 예수님 오신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며, 우리와 함께 하였던 예수님 때문에 다시 일어나라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일보

www.christiandaily.co.kr

발행인 김규진 편집인 김진영 인쇄인 임재청

02857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53 / 전화안내 02-739-8119 / 팩스 02-6280-7907

대표메일 corp@cdaily.co.kr
기사제보 press@cdaily.co.kr
구독신청
1개월 15,000원 / 1부 1,000원

구독문의 02-6085-8166
광고문의 02-6082-8165
대표구좌
농협 355-0018-9278-03 (주)기독교일보사

미주 기독교일보 kr.christianitydaily.com
1990년 7월 19일 창간된 기독교일보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KDIC 예금보험공사

희망이 담긴 당신의 예금

예금보험공사가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해 드립니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1인당 최고 5천만 원까지 예금의 지급을 보장해 예금자를 보호합니다

1인 가구 35% '또 역대 최대'... 이 중 61%, 연소득 3천만 원 미만

통계청, '2023 통계로 보는 1인 가구'

지난해 1인 가구 비율이 전체 가구의 34.5%까지 치솟으며 매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이들 중 61%는 연소득이 3000만원 미만이었으며, 절반 이상이 12.1평 이하에 거주하고 있었다.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2023 통계로 보는 1인 가구'에 따르면 지난해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34.5%인 750만2000가구로 집계됐다.

1인 가구의 비중은 전년보다 1.0%포인트(p) 늘었고, 가구 중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1인 가구 중 가장 많은 나이대는 청년층이었다. 29세 이하 1인 가구가 19.2%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 70세 이상 18.6%, 30대 17.3%, 60대 16.7% 순이었다.

1인 가구 중 31%는 주택소유...61%는 연소득 3천만원 미만

1인 가구는 주로 단독주택(41%)에 살았고, 그다음 아파트(34.0%), 연립·다세대(11.7%)가 뒤를 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대는 아파트 비중이 높았고, 그 외 연령대는 단독주택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1인 가구 중에서도 주택을 소유한 비율은 30.9%로, 70세 이상이 48.8%로 가장 높았다. 1인 가구의 주택소유율은 전체 가구 56.2%보다 25.3%p 낮은 수준이다.

2021년 기준 1인 가구 중 절반 이상(54.6%)은 12.1평(40㎡) 이하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 가구의 평균 주거면적은 13.4평(44.4㎡)으로 전체 가구의



통계청 제공

평균 주거면적(68.3㎡)의 65% 수준이었다. 1인 가구의 30.8%는 주거지원 프로그램 중 전세자금 대출 지원을 가장 원했다.

1인 가구의 연간 소득은 3010만원으로 전년 대비 11.1% 증가했다. 이는 전체 가구(6762만 원)의 44.5% 수준이다. 소득원별 비중은 근로소득이 60.5%

로 가장 높았고, 사업소득(15.8%), 공적 전소득(13.5%)이 그 뒤를 이었다. 소득구간별로 보면 1인 가구의 61.3%는 연소득이 3000만원 미만이었다. 이

가운데서도 1000만원~3000만원 미만이 44.5%로 가장 많았고, 1000만원 미만이 16.8%를 차지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 10가구 중 7가구(72.6%)는 1인 가구로 나타났다. 지난해는 1인 가구의 비중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1인 가구의 55.7%는 본인 및 배우자 부담으로 노후생활비를 마련한다고 응답했고, 그 외에는 정부 및 사회단체(29.6%), 자녀·친척 지원(14.8%)도 뒤를 이었다.

2013년 이후 1인 가구의 노후생활비 마련 방법은 본인 및 배우자 부담과 정부 및 사회단체의 비중이 증가하는 반면, 자녀·친척 지원은 감소하는 추세다. 2년 전과 비교하면 본인 및 배우자 부담 비중이 증가한 반면, 자녀·친척 지원, 정부 및 사회단체는 감소했다. 서다는 기자

삼성 500억·SK 120억... 재계, 불황에도 연말 성금은 안 줄였다

삼성그룹이 연말 성금으로 예년과 같은 규모의 500억원을 기부한 데 이어 SK그룹도 전년과 동일한 120억원을 성금으로 냈다. 글로벌 불황 속 실적 부진에도 연말 성금은 줄이지 않는 분위기다.

12월 재계에 따르면 SK그룹은 전날 지동섭 SK수펙스추진협의회 SV위원장인 서울 중구 정동에 있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찾아 성금 120억원을 전달했다.

SK는 지난 1999년 이후 매년 이웃사랑 성금을 기부해왔다. 올해까지 누적 기부액은 2345억원에 달한다.

지동섭 위원장은 "SK 기부가 우리 이

웃들의 더 나은 삶과 행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SK는 앞으로도 이해관계자의 행복을 추구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 경영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그룹도 지난 1일 이웃사랑성금으로 500억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 삼성은 지난 1999년부터 2003년까지 매년 100억원씩, 2004년부터 2010년까지 200억원씩, 2011년은 300억원, 2012년부터는 500억원씩 성금을 전달, 올해까지 누적된 총액은 8200억원에 이른다.

특히 올해는 삼성전자가 주력 분야인 반도체 사업에서 3분기 연속 적자를 내며 올해 1분기부터 3분기까지 누적 영업이익 3조7400억원의 저조한 실적을 기록했지만, 삼성은 연말 성금을 예년과 같이 500억원으로 유지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이번 성금 전달식에서 삼성의 이 같은 노력에 대해 고마움을 전하는 감사패를 수여했다. 삼성이 전달한 성금은 ▲청소년 교육 지원 ▲사회적 약자 지원 등에 사용된다.

LG그룹도 조만간 예년과 비슷한 규모의 연말 성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LG는

지난해 이웃사랑성금 120억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

지난해 4대 그룹이 기부한 연말 성금은 1000억원에 육박했다. 삼성이 500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현대차 250억원, SK와 LG가 각각 120억원씩 전달했다.

재계 한 관계자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아진 경영 환경에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연말 성금 규모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책정됐다"며 "앞으로도 기업은 소외계층 지원을 포함한 사회 문제 해결을 돕기 위해 힘을 합칠 것"이라고 말했다. 서다는 기자

주말·공휴일에 여행사 통한 '항공권 취소' 가능해진다

영업시간이 아닌 시간에도 항공권 판매는 하면서, 구매 취소 및 환불은 제한하는 여행사들의 약관이 개선됐다.

공정위는 12월 노랑풍선, 마이리얼트립, 모두투어네트웍, 온라인투어, 인터파크트리플, 참좋은여행, 타이드스퀘어, 하나투어가 갖고 있는 이용약관 중 2가지 유형의 불공정 내용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8개 여행사 모두 영업시간 외에 항공권 취소·환불 처리 업무를 하지 않는 등 고객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을 두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주말·공휴일, 평일 오후 5시 이후 등 영업시간 외에 국제선 항공권은 판매하면서 구매 취소 업무는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이로 인해 고객들은 취소의사를 전한 날보다 실제 취소 처리되는 날이 늦어지며 취소 수수료를 더 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항공사 시스템상 고객이 항공권을 발권한 당일엔 취소할 경우 수수료 없이 취소처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여행사가 영업시간 외 당일 취소를 접수 받지 않으며 수수료를 더 물게 되는 셈이다.

이에 공정위는 해당 약관을 부당하다고 보고 항공사의 취소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시정했다.

공정위는 여행사를 통해 24시간 내에

수수료 없이 취소할 수 있도록 항공사에도 시스템 개편을 요청했다. 항공사와 여행사 간 환불시스템 자동화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이행 기간은 내년 6월 30일까지 두기로 했다. 여행사·항공사·시스템사업자 등과의 논의를 통해 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합리적인 시간을 고려했다.

아울러 8개 여행사들은 고객의 취소가 확정되더라도 환불을 받는 기간에 대해 접수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20~90일(최장 4개월 이상) 소요된다는 조항을 운영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이런 조항 역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여행사들은 환불 기간을 14~15일 이내로 단축해 정산금을 반환하도록 하고, 환불 기간이 추가로 소요될 경우 고객에게 개별 고지하도록 약관을 고쳤다.

공정위는 여행사에서 항공권을 구매한 고객에게도 24시간 이내 취소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도록 협조한 항공사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실시하는 '항공교통서비스평가'에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협의 중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항공, 여행 등 레저분야에서의 불공정약관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우리 기자

서울시, 방치 자전거 집중수거... 수리 거쳐 '재생자전거'로

올해 방치자전거 2575대 재생자전거로 탈바꿈

서울시는 길가에 방치돼 도시환경과 미관을 해치고 시민들의 자전거 거처대 이용 및 보행에 불편을 주는 '방치 자전거'를 1월까지 집중수거한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시는 기존 지역(지하철역, 대로변, 거처대 등 공공시설물) 외에 대학교, 아파트 등 사유지로 범위를 넓혀 집중 수거를 진행한 바 있다.

사유지의 경우 관리주체가 자체적으로

및 처분금지 완료 후 관할 자치구 자전거 담당 부서에 신청할 시 무상 수거가 이뤄진다.

매해 서울에서 수거되는 방치자전거는 약 1만5000대로, 이 중 일부는 자치구 지역자활센터 수리를 거쳐 '재생자전거'로 재탄생한다. 올해는 2575대의 버려진 자전거가 재생자전거로 탈바꿈했다.

재생자전거는 부품 교체와 수리를 통해

만든 만큼 탄소 저감 효과가 크다. 시에 따르면 올해 재생자전거를 통해 약 15만 6128kg의 탄소배출량을 줄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나무 약 9000그루가 1년 동안 흡수하는 이산화탄소량과 유사하다.

재생자전거는 온라인 매장인 라이트브러더스와 12개 자치구 오프라인매장에서 판매 중이다. 일반 중고자전거보다 저렴한 대당 8~10만원 수준으로 구매할 수 있다. 발생한 수입은 지역자활사업의 활성화에 사용된다. 이우리 기자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재생자전거 구매와 이용은 재활용을 통해 탄소배출을 저감하고, 자활기금 조성까지 다양한 효과로 이어지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폐기를 원하는 소유자는 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우리동네 자전거포'에 자전거를 기증할 수 있다. 기증된 자전거는 부품 교체 등을 통해 재생자전거로 활용된다. 이우리 기자

성명서, 칼럼, 논평 등 언론에 게재된 송암 권태진 목사의 글 모음집 대한민국 현대사 30년을 정리한 '역사 교과서'이자 '역사 지침서'

광야에서 희망을 외치다

권태진 지음 | 170x240mm(양장)
400쪽 | 33,000원 | 성빛출판사
2023년 10월 15일 발간



저자 : 송암(松巖) 권태진

저자는 1978년 10월 15일 천막 하나로 교회를 세운 군포제일교회의 담임목사이다. 설교들과 신앙한 가족이 된 그의 사역을 보고 사람들은 어비목회라 불렀고 끝없는 사랑의 돌봄을 어비목회라 칭했다. 그는 한국 교회의 본질 회복과 연합 운동을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늘 순종하며 섬김으로 나아오는 목회자이다. 예장 합신 총회장,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대표회장,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등 총회와 연합기구의 수장으로 지역, 교단, 교파를 초월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되는 운동을 계속해왔고 일남전(평호부대) 참전용사로서 피 끓는 애국심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쉬지 않았다. 그는 '송암'이란 호를 가진 시인이기도 하다. 1994년 문예사조를 통해 시인으로 등단했으며 국제PEN위원회, 한국문인협회에서 열여덟 권의 시집, 열두 권의 설교집, 열세 권의 에세이 등 총 44권의 저서를 집필했다. 한국원순기개방원의 이사장으로서 찬송 작사가로도 활동 중이다. 그는 '오직 예수님이 희망'임을 삶으로 전하며 쉬지 않고 영원한 나라를 향해 달려간다.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BIRMINGHAM THEOLOGICAL SEMINARY 목회학 박사(D. MIN.), LOUISIANA BAPTIST UNIVERSITY 명예철학박사(Ph.D.),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명예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사단법인 성민원의 이사장이며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 96회 총회장, 한국장로교총연합회 30대 대표회장, 한국교회연합 89대 대표회장 등을 역임했다.

부동산

서울 강서구 단독교회매매
-소재지: 서울 강서구 화곡동
-연면적: 279.8(평)
-건축규모: 지하 2층~ 지상 4층
-매매가: 27억
연락처 ☎ 010-4621-6428

경북 포항 교회 매매
-소재지: 포항시 북구 청하면 청진리
-대지면적(건축면적): 총 212.35평
-매매가: 3억 3천
연락처 ☎ 010-6780-0467

전북 전주시 완산구 교회매매
-소재지: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면적: 대지면적 460평
-주차대수: 약 50대
-매매가: 15억원 (용자 8억)
연락처 ☎ 010-3672-0680

부천교회매매
-소재지: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부근
-면적: 대 423㎡ / 건 364㎡
-매매가: 22억
연락처 ☎ 010-9924-7571

대구 개척교회 임대
-소재지: 대구 달서구 한실로6길130 청솔빌딩402호
-면적: (약40평)엘리베이터 가동중
-해당층수: 4층
-임대료: 3000/월88만원(부가세포함)
연락처 ☎ 010-7506-1009

성남 분당구 서현동 교회임대
-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면적: 330평
-임대료: 30,000 / 1,800만원
-시설: 주차장, 엘리베이터, 로비
연락처 ☎ 010-3702-3251

서울 노원구 교회임대
-소재지: 서울시 노원구 월계동
-건물면적: 146㎡(44평)
-임대료: 2,500/ 90
-시설비: 300만원
연락처 ☎ 010-3899-1626

경기 수원시 교회임대
-소재지: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매물면적: 86평(5층 건물 중 지하)
-임대료: 보증금1000만원/ 월세89만원
(부가세 및 관리비10만원 포함)
연락처 ☎ 010-3283-4047

경남 양산시 찬양산 기도원 매매
-소재지: 경남 양산시 어곡동 1981번지(대지)외 2필
-면적: 총 3필지 약 1만평.
-매매가: 6억 (대출1억 별도)
-주차: 30대 가능
연락처 ☎ 010-6208-3698

부산교회매매
-소재지: 부산 기장군 정관 신도시 부근
-면적: 대 208㎡ / 건 146㎡
-매매가: 5억
연락처 ☎ 010-6707-1374

양평교회매매
-소재지: 경기도 양평군
-면적: 대 552.07㎡ / 건 191.74㎡
-매매가: 3억 5천
연락처 ☎ 010-9218-4375

인천시 교회임대
-소재지: 인천시 서구 검암동 부근
-면적: 건 132㎡
-임대가: 1000/88
-시설비: 800만원
연락처 ☎ 010-2510-0769

경남 창원시 교회매매
-소재지: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부근
-면적: 건 215㎡
-임대가: 3000/66(시설비 1500만원)
연락처 ☎ 010-9363-1400

성남/판교 교회부지매매
-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판교대장 부근
-면적: 1112㎡ (336평)
-매매가: 66억
연락처 ☎ 010-5423-0159

신문 광고

상속한정승인공고
망 천영실(520607-2*****) 2019.5.30. 사망
최후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경화시장로45번길 14 (경화동)
민법 제 1032조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65조의2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공고일로부터 2개월 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 사건번호: 2023년단319 상속한정승인 (부사가정법원)
○ 한정승인수리(심판결정)일: 2023. 6.26.
○ 청구인: 천영철
○ 공고기간: 2023. 12.13. ~ 2024. 2. 13.
○ 신고처: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경화시장로45번길 14 (경화동)
2023. 12. 13.

상속한정승인공고
망 조연남(281105-2*****) 2019. 1.8. 사망
최후주소: 순천시 송광면 유경길 51
민법 제 1032조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65조의2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공고일로부터 2개월 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 사건번호: 2023년단10186 상속한정승인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 한정승인수리(심판결정)일: 2023. 6. 22.
○ 청구인: 1.이강희 2.이강근
○ 공고기간: 2023. 12.13. ~ 2024. 2.13.
○ 신고처: 서울시 양천구 신월로 385, 7층 (신정동, 동진빌딩) 법무법인 강합 변호사 회화진
2023. 12. 13.

상속한정승인공고
망 이미영(570918-2*****) 2020.10.11.사망
최후주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로1길 7 (암사동)
민법 제 1032조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65조의2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공고일로부터 2개월 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 사건번호: 2023년단177 상속한정승인(수원가정법원)
○ 한정승인수리(심판결정)일: 2023.6.20.
○ 청구인: 이다연
○ 공고기간: 2023. 12.13. ~ 2024. 2. 13.
○ 신고처: 경기도 시흥시 매화1로 61, 111동 501호 (매화동, 하이드파크)
2023. 12. 13.

상속한정승인공고(심판결정)
망 김형민(650220-1*****) 2019.9.1. 사망
최후주소: 서울 성북구 대사관로11가길 62 (성북동)
민법 제 1032조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 65조의2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공고일로부터 2개월 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 사건번호: 2022년단8518 상속한정승인 (서울가정법원)
2023조기11771 심판결정 (서울가정법원)
○ 한정승인수리(심판결정)일: 2022. 2. 4.
○ 한정승인결정(심판결정)일: 2023. 6. 7.
○ 청구인: 1.김영규 2.김지현
○ 공고기간: 2023. 12. 13. ~ 2024. 2.13.
○ 신고처: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64, 15층(서초동, 법조타워)
2023. 12. 13.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전문화 목회라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본원은 확실한 개혁주의 신학을 바탕으로 목회자, 선교사, 기관 사역자들과 같은 전문 목회 사명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전도사 양성 과정 (총회신학)

신학	3년	♣ 세례 받은 자 소명자
목회학		♣ 1년 3학기 운영
여목회학	2년	♣ 목회자 사모 목회경력 인정
성경연구		

목사 양성 과정 (목회연구원)

신학	3년	♣ 신학 및 대학졸업자
목회학		♣ 1년 3학기 운영
선교학	2년	♣ 성경지도사 위원 등록
기독교상담		

목사 심화 과정 (목회학술원)

신학	3년	♣ 연구원 및 신학대학원 졸업자
목회학		♣ 총회신학연구원 교수로 활동
선교학	2년	♣ 성경교육사 위원 등록
기독교상담		

통신과정
나와서 수강할 없는 소명자를 위한 과정으로 가정이나 직장에서 공부하여 능력별로 졸업

학적복원 프로그램
• 출신학교가 없어지신 분
• 개인사정으로 서류를 발급받지 못하시는 분

자격증 과정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정식 등록 민간자격증으로 목회에 필요한 각종 자격증을 취득을 위한 과정입니다. (청소년목회상담사, 기독교상담사, 도형심리상담사 등)

• 본원은 장학제도를 활성화 하고 있습니다.
• 본원은 재학 중 전문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졸업 후 소정의 과정을 거쳐 목사로 임직할 수 있으며 선교사 지망자는 파송합니다.
<미국 신학대학교 편입하여 학위 취득이 가능합니다.>
<목사 안수 및 총회 가입도 가능합니다.>

0742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 220 7호선 신동역 3번출구
☎(02)849-9395 www.hdts.or.kr

급 기도원, 연수원, 수양관 매

강원도 평창, 총 3500평
최고의 시설과 조건
사유지 막창 끝자락
계곡, 등산로 독점
전용 진입 도로 300m
도로에서 보이지 않음
수려한 산세와 시원한 조망

☎ 010-6659-2999

유 대 력

탁상용 달력 무료 보금

-탁상형 달력 (230x165)
-현재 사용하는 그레고리력 표기
-성경을 연구하는 모든 분들에게 무료보금
-1세기 초대교회 관련도서 6종도 함께 발송
-주문방법: 주소/성함/원하시는 부수/전화번호(꼭 기입)
-비용은 택배비 3,000원만 착불로 부담하시면 됩니다

※ 혹, 택배비가 부담스러우신 분은, '택배 무료요청' 메시지를 보내 주시면 됩니다

☎ 010-4009-1611

주님은 어떤 감정생활을 하셨을까?

크리스찬북뉴스 서평 '우리 주님의 감정생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히 4:15)

성경은 명백히 예수님의 인성을 인정한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것을 부정하면 이단으로 정죄 받는다. 사도 요한은 거짓 선지자가 적그리스도의 영에 따라 미혹하는 말을 분별하라고 경고하면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다고 말했다(요일 4:2-3). 그런데,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는 말이 함의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사람들은 각자 가지고 있는 생각이 무척 다르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국가 정보요원처럼 과묵하고 감정 표현이 거의 없으며 지극히 내향적이었다고 생각하는 한편,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술 먹는 자리에 늘 함께하면서 호탕하고 농담도 잘하고 사람을 잘 사귀는 외향적인 타입이었을 것으로 추측한다.

사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말해주지 않는다. 하지만, 성경은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었다는 사실을 확실히 증명한다. 그분은 허기와 갈증, 피로를 느꼈다. 육체적 고통을 당하셨고 죽어도 맞보셨다. 즐거워하셨고 자주 기뻐하셨다.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보며 애도하며 기셨고, 죄에 노예가 된 상태에 빠진 자들의 어리석은 선택

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져보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고 눈으로 그분의 삶을 지켜봤다. 아무도 그분을 유령으로 생각하지 않았고, 단순한 인간으로 취급하지도 않았다. 아버지 하나님의 총명한 영광을 육신에 입고 오신 그들의 주요 하나님이었다.

제목부터 참 매력적이다. <우리 주님의 감정생활: The Emotional Life of Our Lord>. 저자는 더욱 매력적이다. B. B. 윌필드.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결심한 순간부터, 당시 거대한 자유주의 신학의 파도를 거스르며 성경의 권위와 무오성, 복음주의 신학을 지켜낸 미국 최고의 신학자이다(1851-1921). 이 책의 서문을 쓴 싱클레어 퍼거슨은 이렇게 말했다: “이 책은 ‘보화’와 같다. 우리 주님의 다양한 감정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쉽게 간과하는 주제다. 그로 인해 그들은 복음의 필수 요소 가운데 하나를 스스로 놓쳐 버리는 잘못을 저지른다. 우리 주님은 참된 인간이다. 그분은 우리와 같이 되셨지만 죄는 없으시다”(11p). 퍼거슨은 칼빈 이후로 이 주제를 집중적으로 탐구한 연구서로서는 이 책이 최고라고 말한다.

윌필드는 특별히 주님의 동정심(공휼하심), 분노(공의로우심), 기쁨에 주목한다. 복잡미묘한 인간의 감정을 모두 다루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성경이 자주 언급하는 주님의 감정을 짚은 것 같다. 그리고 각각의 감정은 우리의 감정처럼 절제되지 못한 형태로 나타난 적이 없다. 또한 하나님의 성품을 거스르거나 선하신 계획에 반항하는 모양으로 표출되지도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감정과 같이 보아면서도 매우 다르다. 우리는 이성과 감정과 의지 모두가 타

락한 존재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강한 감정 자체를 죄로 착각하거나 반대로 느끼는 것은 죄가 아니라고 면죄부를 쉽게 주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예수님의 감정생활은 우리에게 새 사람의 본을 제시하고 동시에 참된 위로를 건네준다.

우리는 주님처럼 자비와 공휼을 베풀어야 한다. 우리는 불의를 볼 때 분노할 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구하고 적어도 내가 책임지는 삶의 영역에서 불의를 몰아내야 한다. 우리는 또한 기뻐해야 한다. 범사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고 그분의 약속을 바라보며 기뻐해야 한다. 이런 감정생활은 우리가 스스로 영위해 나가야 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 앞서 보이신 주님의 감정생활을 뒤따르는 것이다. 주께서 하셨으니, 그분의 영으로 새사람이 된 우리도 주를 닮아가면서 그렇게 살 수 있다. 또한 우리가 연약하여 실 패할 때이다. 그러다가 절제되지 못한 감정을 표출하거나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 감정적인 태도를 취할 때, 주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조절하지 못한 감정의 강력한 힘을 경험해 보셨고, 이기셨다는 사실에 참된 위로를 얻을 수 있다.

개혁실천사에서 출간하고 있는 기독교 고전 소책자 시리즈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짧은 역사적 글의 보존, 2) 새로운 세대의 독자들에게 영적 자원 전달. <우리 주님의 감정생활>은 보존할만큼 가치가 있는 책이다. 독자에게 우리 감정을 누구보다 잘 위로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이다. 우리 감정을 주님처럼 품을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때문이다.

조정희 목사,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인, 유희교회

매일 물어야 할 말

신간 '믿음아 안녕?'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지고, 힘들었던 봉사에서 벗어나고, 피하고 싶었던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지금, 교회를 떠난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저자 박상현 목사(총일교회 담임)는 지금이라는 시간을 보내버리면 영원히 자신의 자리를 잃을지 모른다는 목회적 두려움과 나의 믿음이 안녕한지 스스로 물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이 책을 썼다.

저자는 책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불균형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많은 지도자가 이러한 불균형을 없애자

고 외치고 있으며, 그러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다. 하지만 부의 불균형은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 소득 수준에 따라 그 고통의 정도를 살펴보면 때때로 소득이 낮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더 많은 아픔을 겪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로 인한 빈부의 격차는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다양한 지원금으로 경기를 부양하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무너진 시민들의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역부족이다. 집값은 너무 높아져 집 한 채를 사기 위해 평생 돈을 모아도 불가능한 상황이 우리의 마음을 더욱 좌절하게 만들고 있다. 그렇다면 믿음의 격차는 어떻게 되고 있을까? 코로나 이전과 그 이후,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인원은 60~70%에 불과하다. 물론 교회에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로 믿음의 정도를 측정할 수는 없지만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만으로 얼마나 풍성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는 염려



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기도만 해서 되는 것도 아니며, 찬양만 해서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과의 만남과 더불어 형제자매와의 만남, 이웃과의 만남 속에서 때로는 부딪히고 넘어지며 믿음은 더욱 성장해 가기 때문이다. 세상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빈부의 차이와 학력의 격차를 두고 걱정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믿음의 격차를 두고 기도해야 할 때이다. 빈부의 격차가 이 땅에서의 삶을 결정한다면 믿음의 격차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결정하기 때문이다”고 했다.

끝으로 저자는 “더 이상 벌어지면 쫓아가기 힘들지도 모르겠다는 위기의식이 필요한 때이다. 다시 나의 믿음을 스스로 점검해야 할 때이다. 그리고 혹시 나의 믿음이 안녕하지 못하다면 다시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사랑으로 나의 믿음을 회복시켜 나갈 때 우리는 믿음의 부요함을 누릴 수 있다”고 했다.

최승연 기자

알라딘 올해의 책에 하루키 '도시와 그 불확실한 벽'

인터넷 서점 알라딘은 독자들이 투표한 2023 올해의 책으로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 '도시와 그 불확실한 벽'이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도시와 그 불확실한 벽'은 하루키가 6년 만에 발표한 장편소설로 출간 후 4주 연속 베스트셀러 종합 1위를 기록했다. 총 3부로 구성된 소설은 삼십대의 남자 주인공

공이 십대 시절에 같은 취미를 공유했던 여자친구를 떠올리며, 그녀가 말한 사방이 높은 벽에 둘러싸인, 아득히 먼 수수께끼의 도시를 찾아가는 내용이다.

올해의 책 투표는 지난 11월7일부터 12월8일까지 한달간 진행됐고 약 45만명이 참여했다. 각 도서 후보는 1년간 출간

도서 가운데 판매량, 독자 평점, 미디어 주목도, 알라딘 도서팀 추천 등의 요소를 종합해 정해졌다.

2위에는 올해 연간 판매량 1위를 기록한 자기계발서 '세이노의 가르침이 올랐다'. 3위는 올해 상반기 열풍을 일으킨 '슬램덩크 리소스'가 차지했다.

신재우 기자

12월, 작가들의 말말말



이 책은 부부를 위한 책이지만 부부만을 위한 책은 아니다. 이 결혼이라는 제도는 기독교 교회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이다. 결혼에 대해 시간을 두고 생각한다면, 어떤 사람은 결혼 생활에서 더 배려하는 마음을 갖는데 도움을 얻을 것이고, 누구나 더 많이 기도하는 데 도움을 얻을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전반적으로 기혼자에게 직접 호소하는 바이지만, 결혼에 대해 생각만 하고 있거나 결혼한 부부를 응원하려는 분들도 염두에 두고 있다. 미성년자 관람 불가 장면은 없다. 이 책에는 결혼한 사람들에게 주는 도움, 기도하려는 사람들을 위한 자극,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와 관계없이 교인이라면 누구나 소중히 여겨야 할 하나님 선물인 결혼제도를 변호하고 장려하려는 사람들을 향한 격려만 있다. 이 책이 결혼에 대한 다른 많은 책과 구별되는 세 가지 주요 특징이 있다. 가장 분명한 특징은 간결함이다. 바쁜 사람들이 단 몇 페이지 안에서 성경이 결혼에 대해 변호하는 바와 결혼 생활에 대한 성경의 실제적 지침을 모두 찾을 수 있다.

채드 밴 디크슨 & 에밀리 밴 디크슨 '복음이 빛이엔 결혼'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인간의 삶의 역사를 향하여 적극 참여하고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가장 적합하게 표현하고 있다. 하나님은 적당하게 그리고 알맞은 방법으로 우리의 삶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고 계신다. 이스라엘은 이제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가난한 땅을 향한 순례의 길에 나서고 있다.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용기를 갖고 살아가자.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배반하고 은혜를 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닌 바로 나의 이야기임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삶을 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분이요, 인간의 약한 믿을 강하게 해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강건하게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다.

홍인식 '이집트 탈출기'



'설교라는 큰 산에 조금이라도 가까이 접근하기 위한 안내서의 개념으로 주관적인 사항이 많이 첨부되지만 편하게 만들고자 계획하였다. 그래서 생각해 낸 것이 바로 수필을 쓰는 것과 같이 짧지만 쉽게 설교에 대해 이야기 글을 만들기로 하였다. 태양 빛을 받아 태양계에서 반짝이는 조그만 별빛이라도 되겠다는 심정이었다. 요즘의 설교 트렌드는 설교자 중심이 아니라, 청중에게 들리는 설교를 해야 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이 책 안에는 청중에게 들리는 설교를 해야 한다는 격려와 지침이 많이 나타난다. '금강산도 식후경'인 것처럼 청중에게 설교자가 복음을 전하며, 말씀을 풀이하고 있다고 하여도 가슴에 들리지 않으면, 배고픈 사람에게 천하경관이 소용없듯이, 그런 설교는 그냥 땅에 떨어져 버리게 된다. 그러므로 이 책도 똑같은 원칙을 세워서 독자들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한다는 기본 방침을 세웠다.

이경만 '가슴에 들리는 설교 이야기'

추천사
크리스천투데이

돌들이 소리지르리라
저자 이효준 장로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느냐?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사랑으로 행하라!

현 시대 기독교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외침!

평신도 그리스도인 리더, 장로의 눈으로 바라본 하나님, 신앙, 그리고 이 세상! 그 두 번째 이야기

돌들이 소리지르리라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느냐?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사랑으로 행하라!

현 시대 기독교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외침!

평신도 그리스도인 리더, 장로의 눈으로 바라본 하나님, 신앙, 그리고 이 세상! 그 두 번째 이야기

따뜻한 신앙인들

신앙의 뿌리를 재점검하다!
정직하고 성실한 그리스도인 되는 법

장로님께서 칠수를 맞이하여 출간하게 된 이 책은 그동안 인생의 긴 여정을 소상하게 나타내 주어 깊은 감명을 주고 있습니다. 김형갑 경교 (구세군 전주교회)

참된 이해 없이 맹진적으로 받아들었던 말씀들에 대한 새로운 삶의 길과 방법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영적 성숙을 향한 좋은 길잡이입니다. 배준일 목사 (범어중앙교회)

준엄한 엘리야의 심정으로 터지듯 피어난 꽃 한송이 앞에서 기쁨의 눈물을 감추지 못하는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구성지게 읊어낸 책입니다. 박오현 목사 (양원내안교회)

매일묵상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2)

9:3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은 누구의 죄로 인해서 그가 그렇게 되었다는 결론을 단호히 거부하시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그렇게 되었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를 맹인 되게 하셨다는 말이 아니요, 이 말씀은 과거와 현재, 누군가의 잘못을 따지면서 비극 가운데 절망 가운데 누군가를 탓하면서 원망 가운데 우리가 갇혀 살아갈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비극을 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미래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고 미래에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 모두를, 모든 상황을 바라보고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과거와 오늘, 현실의 비극 가운데 갇히지 않으셨던 것이요, 모든 비극을 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면서 살아가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동일하게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아무리 비참하다 할지라도 문제가 많다 할지라도 비극적인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아니 도리어 비참하면 비참할수록 그 가운데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기대하시고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 삶을 인도해가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이 계시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있을 수 있는 것이요,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먼저 오늘 나 자신을 바라볼 때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시각을 가질 수 있기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아무리 상황이 절망적이고 절망로 어려운 난관과 극복하기 힘들어 낙심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시각을 가질 때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미래에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통일성을 지향하게 되어있다고 합니다. 그가 생각하는 대로, 바라보는 대로, 말하는 대로 믿게 되고 결국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있다고 합니다. 이런 세계가 참으로 무서운 것이요,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무엇을 바라보고 어떤 말을 하며 살아갑니까? 부정적인 생각과 잘못된 것을 바라보고 부정적인 말을 입에 담고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내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모르고 말입니다. 이것이 분명 어김없는 사실인데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까? 바로 예수님이 가지셨던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눈으로 오늘 우리의 상황,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늘의 모든 비극과 문제를 바라보고 가야겠습니다.

로마서의 핵심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믿음이란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더러움과 우리 안에 있는 죄 성과 문제점, 너무 많은 심각한 결함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십자가에서 나를 용납하시고 나를 끝까지 붙들어주시고 당신의 영광으로 인도해가신다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내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이 믿음이 확고히 서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믿음에 견고히 서 있지 않고서는 여전히 우리는 과거 안에 갇혀서 오늘의 나, 쫓겨 맞은 모습, 비참한 모습을 벗어날 수 없고 하나님이 열여주시는 찬란한 미래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돌고 돌게 될 뿐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제일 안타까워하시는 게 믿음 없는 모습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당신을 믿지 못할 때 슬퍼하십니다. 우리가 과거와 오늘의 비참함에 갇혀서 미래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갈 때 안타까워하십니다.

많은 사람들 안에 고통, 마음 안에 어둠, 불안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사



랑과 인도하심, 그분의 섭리를 믿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불안합니까? 왜 혼란과 불안을 경험하고 염려하고 낙심하며 살아갑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함에 대한 믿음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나를 사랑하십니까? 여전히 나와 함께 살까? 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사랑에 대한 불신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죄인을 용서하시고 그 모든 죄를 아들의 십자가에서 사하시고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대한 믿음이 없으므로 내면에 평안함이 없습니다. 성령의 자유함이 없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신다는 믿음,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셔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늘 불안과 염려, 어둠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어둠을 밝혀주시는 빛이 되십니다.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말씀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나면서부터 절망의 자리에서 아무 빛을 보지 못하는 캄캄한 삶의 정황에 빠져있는 이 맹인에게 희망의 빛을 비추주셨습니다. 그를 과거와 현재의 비극적인 모습을 가지고 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미래의 모습으로, 미래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 주님 안에 있었던 밝고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시각, 주님의 밝은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므로 우리의 어두웠던 눈이 떠져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내다볼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비극을 넘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떠지길 원합니다.

오늘 나는 나 자신을, 내 행체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과거를 통해서 바라보니까? 오늘의 못난 모습, 비극적인 상황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나와 그의 미래를 담아놓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어떠한 모습, 못난 모습, 죄된 모습, 함정고 비참한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 부르셨습니다. 그것을 모르고 부르신 게 아닙니다. 다 속속들이 다 우리의 깊은 곳의 모든 것까지 다 아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고 했습니다. 주님

은 모르시는 게 아니라, 그것에 개의치 않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과거와 현재의 쫓겨 맞은 우리의 모습, 추악한 모습, 비극적인 상황을 바라보지 않으시고 미래에 나타날 영광스러운 모습, 그것을 믿음으로 앞당기셔서, 미래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나로 우리 모두를 인도해가십니다.

그러므로 오직 의인은 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나에게 어떤 비참함과 절망스러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저런 문제점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가 그것으로 무너지지 않고 극복하라는 것을 믿으시는 주님의 믿음,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사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 때 우리는 참으로 주께서 주시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요, 우리의 죄를 묻지 않으시고 미래의 아름다운 변화될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 이 주님의 시각으로 오늘의 나를 보고 형제들을 바라보십니다. 그리할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세계로 곧장 나아가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교회 제공

믿음의 열매들을 찾아서

요엘

투지를 불태우는 선지자

요엘은 구약성서의 선지자였으나 그리스도교도들도 자주 그를 언급한다.

초기 그리스도교와 관련된 몇 가지 중대한 사건들을 예언했기 때문이다. 요엘 2장에서 신은 이렇게 약속한다.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

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그리스도교도들은 그 예언이 실현되었다고 믿는다. 사도행전 2장에서 말하듯이 초기 신도들에게 성령의 힘이 주어졌던 것이 그 증거라고 생각한다.

요엘서에는 또 다른 놀라운 구절도 있다.

보습을 쳐서 갈을 만들지아라.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아라.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요엘 3:10).

요엘은 심판의 골짜기라는 구절을 썼는데, 이 말은 소멸과 영화의 제목으로 자주 이용되었다. 다른 선지자들처럼 요엘도 만약 사람들이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면 파멸이 닥치겠지만, 마음을 바꾸 울바르게 살아가면 신의 환대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들녘 출판사 제공

NIV 영어성경 따라잡기

1 Peter 5:6 NIV

Humble yourselves, therefore, under God's mighty hand, that he may lift you up in due time.

- humble yourself: 겸손하게 처신하다
- mighty: 강력한, 장대한, 웅장한
- hand: 힘, 영향력, 역할
- may: '목적(purpose)'을 말하기 위한 조

동사

- lift (up): 들어 올린다
- in due time: 때가 되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여러분을 들어 올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강력하신 힘 아래 겸손하게 처신하십시오.

카카오톡 | 영어성경 독해 연습

식물로 못고치는 질병은 약으로도 치유되기 어렵다

홍천마를 잘 알면 질병이 두렵지 않다

질병과 건강 때문에 아직도 고민하십니까?

홍천마 진액 골드가 있습니다

동의보감에서 극찬한 천마

■ **천마의 종류**
국내에 분포하는 천마는 크게 나누어 꽃대색이 적황색인 홍천마와 담황색인 청천마가 있다.

■ **천마의 유효성과 신비**
천마는 미려한 아름다움에서 비롯되는 마목(木目)이라 하여 마비가 되는 증상을 다스린다 하여 하늘 천(天) 마목의 마(馬)를 더하여 천마(天馬)라 불리 왔으며 예부터 정풍초(正風草)라 불리기도 했고 천(天) 정풍초란 이름 그대로 바르게 풍을 다스리는 홍천마라는 뜻.

천마는 난초과에 여러 해 살이 풀로서 자연에 따라 편차는 있지만 자연산은 5월~6월에 마치 꽃대같이 싹이 올라와 작고 흰 꽃을 피우는데 꽃을 피울 때면 그 천마는 1개월 정도만 싹을 볼 수 있기에 채취 기간이 짧아 싹이 막 올라오는 시기가 최적인 채취기간이다.

이때 채취하지 않으면 늦가을에 채취를 하는 것이 통상적이나 늦가을에는 새싹이 없어 발견하지 어려우므로 전문 약초원들은 그 장수를 늘리기 위하여 고구마처럼 생겼으며 기로로 일정한 간격의 줄무늬를 나타낸다.

천마의 색에는 흰이 풀이 나지 않고 꽃대처럼 올라와 작고 흰 꽃을 피우며 그 색도 푸른빛의 색과 분홍색의 홍천마가 있다. 푸르기가 상향했을 시에는 마치 고구마처럼 생겼으며 기로로 일정한 간격의 줄무늬를 나타낸다.

천마는 천마라 명칭하며, 줄기는 적연(赤連) 또는 정풍초(正風草)라 부른다.

천마는 천마 뿌리에 버섯처럼 균근에 의해 자라는 반 기생 식물이다.

천마는 노 질환 계통의 질병에 최고의 신약이며 특효약으로 잘 알려져 있다.

고혈압, 당뇨, 시중독, 디스크, 백혈병과 각종 암, 발기부전 등에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영 모양에 기술된 내용을 살펴보자.

(영모양보장)
모든 해(毒)와 어지러운 중세에 천마가 아니면 치료하기 어렵다.(非天麻不)

천마는 두통과 고혈압, 어지럼증에 특효약이라 할 만하다. 어지럼증은 한의학에서 '현훈'이라고 부르는데 대부분 간과 신장의 기운이 손상되어 간의 열이 위로 오르고 몸 안에 열과 열이 서로 응지거나 풍 속의 수액이 제대로 흐르지 못하여 생긴다. 몸이 어지럽고 속이 메스꺼우며 구토가 나고 귀에서 소리가 나며 어지러움에 시달린다. 이럴 때에 천마를 사용하면 천마는 간의 열을 내리고 바람과 습기를 없애며 마음을 진정시킨다.

목회자분들께는 섬김과 봉사의 마음을 담아 특별선물을 드립니다.

기존가격 (198,000원)에 제품은 기존(1x1=2박스) x 추가 1박스 총 3박스(180포)를 보내 드립니다.

홍천마진액골드는 특산물 3년산으로만 추출제조하여 제품이 아주 탁월합니다.

1SET 가격으로 3SET 드립니다!

1SET + 1SET + 1SET = 3SET
80m 60팩 80m 60팩 80m 60팩 80m 180팩

198,000 + 198,000 + 198,000 = 594,000

공급가액 = ₩198,000 (부가세 별도)

우울마진 확 줄여 직거래마케팅 소비자에게 돌려드리는

우울증, 어지럼증, 만성두통, 귀속의 잡소리 등 이것 저것 다해봐도 아무소용 없으신 분께 혈액순환에 탁월한 홍천마를 강력하게 권장합니다.

B.T.N 홍천마 라파식품 B.T.N

www.hhma.co.kr
부산 연제구 거제동602-7
TEL:051)853-2678

080-080-2678

국민은행 116601-04-077942
예금주 : 이주영

안녕하세요!

홍천마를 생산하는 라파식품이 하나님의 은혜로 17주년을 맞이 하였습니다. 모두 고객님들의 기도와 성원덕분입니다. 라파식품은 부산 본사의 제조생산 공장을 신설 확장하고, 오직 국내 3년산 울 주원료로 사용하여 저온 40시간 추출제조 공법으로 신제품 '홍천마진액골드'를 제조 공급하고 있습니다. 고객님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종전 제품보다 몇 배나 훌륭한 품질의 '홍천마 진액골드'를 기존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그동안 홍천마(진액골드)를 복용하신 교역자님, 장로님, 성도님, 수많은 고객님들께서 질병이 치유되고 건강이 회복되어 새로운 삶을 사신다는 체험사례 소식을 접할 때마다 기쁨과 보람을 느끼며 먼저 하나님께 감사사를 드립니다. 복용하고 목사님,장로님,성도님,홍천마를 통하여 더욱 건강을 지키시고 후시 질병으로 고통 받고 있으시다면 '홍천마'를 복용해 보십시오. 절대로 후회하지 않으시고 기쁘고 즐거운 체험을 하십시오. 사람은 혈액순환만 잘되면 무병장수하십니다. 식품으로써는 홍천마가 순환기에 최고의 건강식품 인니다. 이는 질병이든 믿고시고 복용해 보십시오. 놀라운 체험과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한글 동의보감편에 보시면 특히 각종 암·중풍·고혈압·당뇨·만성두통·우울증·순환기질환에 홍천마가 탁월하다고 극찬하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라파식품은 이익만을 추구하지 않으며 모든 성도님의 건강을 위한 기업이 되겠습니다. 많은 기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현호 시무장로
부산시민교회(합동)

강지윤 칼럼 '행복한 가정'을 위한 새해 계획

새해엔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소망을 가지고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한 여러 가지 계획들... 그 계획들 속에 가정을 위한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면 어떨까요.



강지윤 박사

행복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을 보면 그 얼굴에 표가 납니다. 온화한 미소와 편안한 이미지, 그리고 안정적인 움직임... 그런 사람을 만나면 어느새 그 아름답고 따스한 표정에 도취되어 나도 금세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행복한 표정의 사람들을 찾아가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너무 굳어있고

고통이 새겨진 표정으로 마음을 닫아 건 사람들이 너무 많이 보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굳어지고 행복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행복한 가정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가족이 사랑을 담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어야겠다고 결심하고 힘써 노력해야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새해엔 모든 사람이 행복한 가정에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지 않은 것에 너무 익숙해져서 이제는 행복한 느낌마저 잊어버린 것은 아닌지 자신의 감정을 들여다보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

상의 모든 사람이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성경 전체를 들여다보고 또 봐도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고 사랑이 가득한 사람들이 되길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지상의 사람들은 점점 더 행복을 잃어버리고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불행한 삶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불행이 다가오는 것을 방지해두거나 행복한 삶을 위한 노력을 중시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새해에 새로운 가정행복의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널리 화자되고 있는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12가지 비결'을 소개합니다. 12가지가 너무 힘들다면 우선 한 가지씩 실천해 보면 확실히 가정에 생기가 돌고 화색이 돌 것입니다. 가정이 행복



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가정에 사랑이 가득 생기면 가정은 저절로 행복해집니다. 사랑은 저절로 샘솟듯이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면 그 사랑이 흘러 넘쳐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1년 365일 늘 같은 얼굴을 대하는 부부나 가족이 늘

변함없는 사랑을 가지기란 참으로 힘이 들 것입니다. 그래서 노력이 필요합니다.

1. 날마다 잠자기 전에 손잡고 기도한다.
2. 날마다 5분 이상씩 사랑의 대화를 나눈다.
3. 하루 한번 이상 포옹을 한다.
4. 출근할 때와 퇴근할 때 서로에게 가벼운 입맞춤을 한다.
5. 하루 2번 이상 칭찬과 격려를 해준다. 잔소리로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
6. '여보, 사랑해' 라는 말을 한번 이상 해준다.
7. 아침에 눈을 뜨면서 배우자를 쳐다보면서 감사의 기도를 한다.
8. 사랑하는 당신을 위해 내가 뭘 도와

줄까 항상 생각한다.

9. 서로가 떨어져 있을 때 배우자를 위해 1분 이상 축복기도 하라.
10. 한 주의 한 번은 부부만의 데이트를 한다.
11. 결혼기념일에는 반드시 부부만의 1박2일 여행을 간다.
12. 한 달에 한 번 사랑하는 당신에게로 시작되는 편지를 쓰라.

사랑하는 자들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다(요한1서 4:7-8)

강지윤 박사(한국상담심리치료센터 대표)

신앙의 아름다움(10): 남김(결실)의 '아름다움'

권혁승 박사의

날마다 말씀따라 새롭게(38)



권혁승 박사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테반을 치니 스테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에 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행 7:58-60)

신앙의 '아름다움'은 어떤 열매를 맺느냐로 마지막 평가를 받는다. 신앙 안에서 삶의 관상용이 아니라 과실수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포도원 주인이시고 우리들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께 붙어 있는 가지들이요(요 15:1-2).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가꾸시는 목적은 아름답고 풍성한 포도열매를 얻기 위함이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요 15:8)

탐스럽게 열린 열매는 농부에게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과 만족이다. 열매는 농부에게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같은 유익을 안겨준다. 포도열매로 만든 포도주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사 55:1)이다. 참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의 가지인 우리들도 풍성한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어야 한다. 자기만족에 그치는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과 만족이 되는 값진 열매, 그것이 신앙의 '아름다움'이다.

남김의 '아름다움'을 보여준 성경의 대표적 인물 중 한 분은 기독교 역사에서 최초의 순교자였던 스테반이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일곱 집사 중의 하나였던 스테반은 사도들과 함께 초대교회를 부흥시킨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인물이었다. 그는 교회 행정을 맡은 평신도 지도자였지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할 만큼 카리스마적 능력을 소유한 인물이기도 하였다. 그런 스테반이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순교를 당했다.

개인적인 역량으로 볼 때 얼마든지 더 큰 일을 할 수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박해로 일찍 세상을 떠났다. 갑작스러운 죽음이라 허망해 보이기도 하지만, 스테반은 적어도 다음 세 가지의 아름다운 결실을 뒤에 남겨 놓았다.

첫째로, 그는 영감 넘치는 한 편의 명설

교를 남겼다. 사도행전에는 여러 편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다. 오순절 성령강림 후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베드로가 전한 설교, 선교여행 중 바울이 전한 설교, 그리고 순교로 이어진 스테반의 설교 등이다. 베드로와 바울은 사도행전의 전반부와 후반부를 주도했던 초대교회의 두 기둥들이었다. 그런 두 위인들 사이에 스테반의 설교가 자리하고 있다. 스테반은 베드로나 바울처럼 정규적인 신학 수업을 받은 바도 없지만, 아브라함에서 시작되어 솔로몬에 이르는 이스라엘 신앙 역사를 일목요연하게 전하는 그의 설교는 더욱 돋보인다. 그의 설교는 단순히 성경 역사의 지식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찌를 정도로 성경과 지혜로 충만한 영감 있는 설교였다(행 7:54).

둘째로, 스테반은 위대한 인물 사도 바울을 남겼다. 바울은 스테반을 돌로 치는 증인들의 옷을 맡아보았다. 그것은 바울이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순교 당하는 스테반의 거룩한 마지막 모습을 지켜볼 수 있었음을 보여준다. 스테반의 순교 장면은 바울에게 커다란 충격을 안겨주었고, 그것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 바울이 예수를 만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 스테반의 거룩한 순교 장면은 화살이 되어 바울의 심장에 꽂혔고, 화살 맞은 바울은 날뛰는 사슴처럼 다메섹으로

달려가다가 예수께서 쓴 화살을 한 차례 더 맞은 다음 고꾸라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스테반의 순교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이었다. 바울을 남긴 셈이다. 사람 키우는 일은 미래를 창조하는 위대한 사역이다. 예수께서도 대부분의 시간을 열 두 제자 양육하는 일에 집중하셨다. 비록 갈릴리라는 좁은 지역에서 한정된 12명만을 가르치셨지만, 결국은 세계를 복음으로 정복하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다.

셋째로, 스테반은 위대한 기도를 남겼다. 스테반이 순교 당하면서 유언처럼 남긴 기도의 내용은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와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이다. 첫번째 기도는 믿음으로 생애를 산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면서 남길 수 있는 마지막 정리이다. 영혼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고 삶의 소망을 하늘나라에 둔 사람이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다. 두 번째 기도는 남을 위해 산 사람이 드릴 수 있는 내용이다. 평생을 살아오면서 자신보다는 남의 유익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인 자만이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다. 자신에게 돌로 치는 자들의 영혼을 마음 깊이 사랑했고 그들의 행동이 무지에서 비롯되었음을 스스로 이해했기에 그런 기도를 남길 수 있었다. 그 기도의 첫번째 결실은 사도 바울의 회심으로 나타났다 할 수 있다.

이 땅에서 얼마나 아름답고 값진 삶을 살 것인가? 이 질문은 평생 동안 잊지 말아야 할 우리의 관심사이다. 최종적 평가는 이 땅을 떠날 때 무엇을 남겼는가에 달려있다. 죽음과 함께 뒤에 남겨 놓을 마지막 '아름다움'은 우리를 자신이 살아온

삶의 축적된 요약이요 정리이다. 그런 점에서 무엇을 남길 것인가는 지금 여기에 서 우리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와 직결되어 있다. 현재의 모습이 그대로 연장되어 남음의 '아름다움'을 장식하기 때문이다. 권혁승 박사(전 서울신대 구약학 교수)

은혜 한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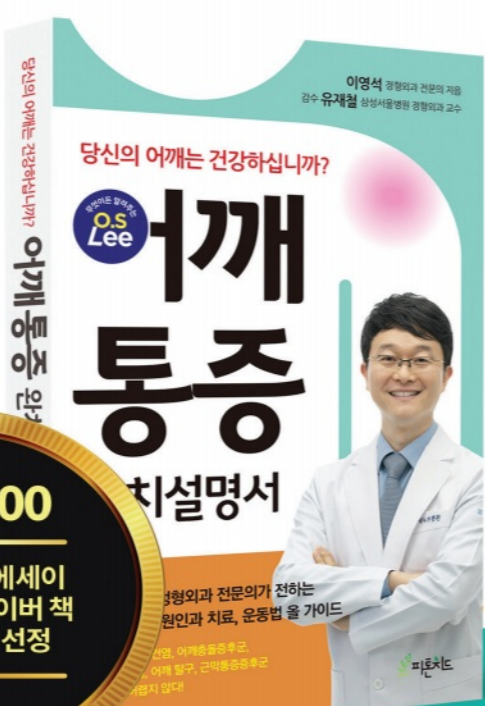
이제 **홀연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사도행전 16:26

기독일보 www.cdaily.co.kr

통증없이 건강한 어깨로 100세 살기!

오십견·석회성건염·어깨충돌증후군·회전근개 파열·어깨 탈구·근막통증 증후군 완전 정복 어렵지 않다!



어깨통증 완치설명서

은평구 성누가병원 정형외과 대표원장 이영석 전문의가 전하는
어깨통증의 원인과 치료, 운동법 올 가이드

SAMSUNG 삼성서울병원 정형외과 유재철 교수 감수

YES24·교보문고·영풍문고·주요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판매 중!



허성수 작가 단편소설 유산(5)



허성수 작가

형의 무거운 짐을 직접 떨어지지 못하는 동생의 입장에서 삼촌이 두 누나들의 피난처를 마련한 것인데 아무런 양친으로서의 그 어려운 시기를 잘 넘길 수 있었다. 그러나 함부로 말하기에는 부끄러운 일이다. 양친은 물론이고 형과 누나들도 늘 소리 죽여 쉬쉬... 하며 두 누나들이 있는 곳에 대해 동네 사람들에게 소문나지 않도록 입 조심을 시켰다. 굳이 두 누나들이 있는 곳을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는 대구의 작은집에서 지낸다는 말로 대담하곤 했다.

마침내 두 누나들은 오랜 고아원 생활을 접고 우리들 곁으로 돌아왔다. 내가 4학년 때 5학년이었던 경자 누나가 전학을 와서 덕곡초등학교를 같이 다니게 되었고, 중학교 2학년에 다니던 경숙이 누나는 공부를 포기하고 돌아왔다. 그렇다고 우리의 살림이 썩 나아진 것도 아니었다. 양친은 가족들이 늘어난 만큼 일손으로 잘 활용하기 위해 소작의 규모를 더 늘렸다. 보리밭이라도 넉넉히 먹기 위해서는 농사철에 온 식구가 나서야만 했다. 부गत집 눈을 부쳐 먹는 방법 가운데 '꽃이모라는 것을 주로 우리가 많이 애용했다. 그것은 이모작이 가능한 눈을 빌려서

지주를 위해 모내기를 해주고 대신 가을에 보리를 갈아 먹는 방법이었다.

우리는 모내기 철마다 우리 식구들만으로도 모자라 일꾼을 여러 명 사서 일주일을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거머리와 싸워가며 모를 심곤 했다. 그렇게 열 마지막 이상 모를 심어두 우리는 쌀 한 톨 맛볼 수 없다는 사실에 내심 속이 상하기도 했다. 우리가 모내기 해주면 지주가 그 후의 일은 자신이 책임지고 재배해서 쌀을 거둬 곳간에 쌓아놓고 먹는 것이다. 소작농은 모내기해준 대가로 그 땅에 보리농사를 지어 먹기로 되어있었다. 그래서 우리의 주식은 보리쌀이었다. 영양가도 없는 콩보리밥을 1년 열두 달 먹어야 했는데, 겨울철에 일찍 떨어지게 되면 이듬해 초여름 보리타작할 때까지 연명해 나가는 것이 여간 고통스럽지가 않았다. 양친은 늦가을 보리갈이를 끝낸 후 도회지로 나가곤 하셨다. 겨울철 내내 보파리 장사를 해서 돈을 벌여 구정 전에 돌아오시곤 했다.

호구자책이 막연한 가운데 가족은 계속 늘어났다. 그 시절 가족계획을 한창 계몽하던 때였지만 양친은 전혀 관심을 갖지 않으셨다. '아들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는 것이 정부의 강력한 인구 조절책이었음에도 아버지는 콧방귀를 뿜며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다.

"들만 낳아 기르다가 둘 다 돼지면 우짤라고. 제 먹을 복은 다 타고 나는 가리!"

사실 우리도 불만이었다. 풍족하게 먹을 수 없는 형편인 데다 두 칸 방밖에 없는 좁은 집도 문제였다. 1-2년 터울로 동생들이 자꾸 늘어나더니 결국은 10남매의 대기록을 세웠다. 만형과 누나들이 돈을 벌기 위해 도회지로 나가기도 했지만 그래도 집은 늘 비좁았다. 이웃 사람들이 유난히 많은 우리 식구들을 보고 놀랄 때는 민망하기 짝이 없었다. 동네 아이들이 수시로 놀라기도 했다. 가족계획에 생활을 걸다시피 한 정부에 대해서도 미안했다. 가난해도 식구 수가 적은 집을 보면 마냥 부러웠다. 명절 때 도회지에 간 오누이들이 다 돌아오면 그야말로 대가족을 이루 새삼스럽게 주목의 대상이 되곤 했다. 우리 가족이 한 개편에 동네에 나가기라도 하면 몇몇 누나들은 부끄럽다며 따로 떨어져 남처럼 걸어도 좋았다.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어렵게 살면서도 우리 형제들 하나 안 흘치고 지금까지 키우셨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텔레비에 아침마당을 보면 먹고살기 힘든 시절 자식을 키우기 힘들어 버렸다가 수십 년 만에 다시 찾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단노."

형님이 KBS-TV에서 수요일 아침마다 방영하는 이산가족 찾아주기 프로그램

을 들먹이며 말했다. 나도 그 프로그램을 가끔 볼 때는 그 어렵던 시절 자식을 버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다. 오죽 먹고 살기 힘들었으면... 찢어지는 가슴을 안고 피붙이를 버려야 했던 부모들에게 어느 누가 돌을 던지랴. 버려졌던 자녀들도 부모를 원망하려고 하지 않았다. 전파의 힘을 빌려 감격적으로 다시 만나 서로 용서하며 포옹하는 장면을 볼 때는 눈물이 저절로 났다.

"그때 우리도 훌쩍 뿌릴 거 아يا기. 그러면 우리도 저렇게 텔레비에 나올 텐데.."

고아원 생활을 잠깐 했던 두 누나들이 이런 너스레를 떨기도 했지만 사실은 웃자고 하는 소리였다. 그러나 양친은 그때 그 어린 누나들을 5년간이나 고아 아닌 고아로 사실에 맡겨야 했던 일을 늘 가슴 아파하셨다.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

자식들 사이에 다름이 있거나 누군가를 편애하는 듯한 인상을 줄 때 아버지는 곧잘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다.

이제 우리 남매들은 모두 결혼해서 제각각 자식들을 낳아 잘들 기르며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부모님처럼 그렇게 많이 낳지 않았다. 가족계획 세대로서 주로 2명씩 낳았으나 예외적으로 형은 딸만 넷

으로 가장 많다. 둘째 누나는 셋이다. 이번에 모이니까 상주가 50명 가까이 될 것 같았다. 우리 3대 가족들만으로도 빈소가 가득 찼다. 해외에 멀리 나간 식구들이 좀 있어 다 참여하지 못했는데도 그 정도였다. 다행히 병원 지하 2층의 장례식장을 우리가 독점적으로 썼다. 같은 층에 예닐곱 개의 빈소가 있었지만 특실 두 개를 빌려 쓰는 우리 말고는 사흘 내내 비어 있었다. 어린 조카들이 통로의 빈 공간에서 장난을 쳐도 큰 문제가 없었다.

가족이 많이 모이니까 좋았다. 명절은 말할 나위 없고 특히 김홍사 때 가족이 없으면 얼마나 외롭고 쓸쓸할까? 슬프고 어려운 일 당할 때는 동기간이 많아야 서로 위기가 되고 큰 힘을 얻을 수 있다. 그 점에서 우리 3대는 너무나 행복했다. 과거 그렇게도 부끄러웠고 정부에 대해 미안했었는데, 이제는 우리 가족에게 상을 줘야 마땅했다.

"요즘 아이 많이 나오면 정부에서 출산 장려금도 주는데, 우리 어머니한테는 소급해서 주면 안 되나?"

이제 사 낮아진 출산율을 고민하며 온갖 장려책을 쓰고 있는 정부가 그 당시 그렇게 다산을 하며 고생하셨던 어머니를 외면했던 것이 야속해서 내가 빨아봤다.

아버지도 생전에 늘 대견해하셨다. 이

제 어머니 홀로 남게 되었지만, 전혀 외로워하는 기색을 엿볼 수 없었다. 젊었을 때는 보파리를 머리에 이고 낫선 곳으로 장사 다니셨던 어머니의 몸은 한층 작아지고 쪼그라들어 꼬부랑 할머니가 되었다. 평생 그렇게 고생했지만, 자신이 기른 자식들이 이렇게 때를 지어 와서 대사를 치르고 있으니 흐뭇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문상을 오는 사람들도 너무 많은 상주들을 보고 놀라는 눈치였고, 하나같이 부러워했다.

"형님은 함양읍에서 사기꾼에게 속혀 집을 날린 후부터 평생 말도 못 하게 고생했지"

삼촌은 할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나신 데다 그때 아버지의 나이 20대로서 판단력이 부족하고 인생 경험도 없었던 것이 실패의 원인이라고 덧붙였다. 형님도 할아버지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한다. 할 아버지는 형님이 서너 살 무렵 돌아가셨는데, 성품도 깨끗하고 매사에 빈틈이 없을 정도로 사리 판단이 뛰어나셨다고 한다. 그런 할아버지가 좀 더 사셨더라면 우리 집은 건실하게 유산을 지키며 남부럽지 않게 살았을 것이라고 우리는 종종 아쉬워하곤 했다.

창조문에 제공. 허성수(1995년 <크리스찬신문> 소설 부문 당선. 장편소설 『작은자의 왼손』이 있음)

신앙과 가정 여호와와 닮은

모세는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곳 이름을 여호와 닮은이라 하고 "주의 깃발을 높이 들어라 주께서 때때로 아말렉과 싸울 실 것이다" 라고 외쳤다. (출 17:15-16 표준 새번역)

가나안을 향해가는 백성들의 걸음을 방해하는 아말렉과 전투!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사람들을 택하여 전쟁터에 나아갈 것을 명하고 모세 자신은 산꼭대기에 올라 주를 향해 손을 들었다.

그런데... 전쟁의 승패가 군대의 힘에 있지 않았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손이 그 전쟁을 주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11절)

모세의 기도와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은 세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법칙이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가시는 방식이다.

주를 향하여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그들이 패배하는 자리. 그러기에 모세가 선 기도의 자리는 그 어떤 자리보다도 더 실제적인 전쟁터였다.

여호와 닮은!! 제단을 쌓고 그 곳의 이름을 정한 모세는 아말렉과 싸우는 모든 이들에게 주를 향해 깃발을 높이 들라고 하였다.

성도의 기도! 가나안을 향해 가는 우리의 걸음을 방해하는 모든 것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말하고 있다.

선교지를 누비며 영적 싸움에 돌입한 선교사들의 어떤 전략보다 중보하는 교회의 기도는 훨씬 크고 강력한 힘이다.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 교회의 존재 이유와 가치를 말해주는 말씀이다.

열방을 위한 교회의 기도. 하면 좋고 힘들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니라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우리의 싸움이다. - 출17장 묵상 - 창골산 봉독사



한국도로공사 안전동화 시리즈 | 해와 달 편

위급한 순간의 생명을 안전띠

안전띠 미착용 시 사망률은 4배 이상입니다.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띠,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융합(Blending)과 균형(Balance)



이선우

찬양대 지휘자님과 나눌 나의 열세 번째 이야기는 합창의 실제적 요소 중 융합(Blending)과 균형(Balance) 관한 얘기입니다. 합창음악이란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개성 있는 소리가 하나로 모이는 것, 또 하나의 개성으로 통일되고 융합되는 것입니다.

전체 합창단원(성가대원)이 내는 소리의 지향점을 통일시켜 같은 소리를 만들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각 파트 간을 융합해야 하며 또 같은 파트끼리도 융합이 잘 되어야 합창의 성공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한 파트 내에서도 같은 소리가 안 만들어지고 각각의 소리만을 고집한다면 그건 합창으로서 실패할 수밖에 없고 합창단이 아닌 독창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소리의 질(質)이 같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의 발성에 관한 얘기도 따지고 보면 얼마만큼 훌륭하게 집약된 소리를 만들어 내는가 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합창음악에 있어 최

고의 이상이, 가장 훌륭한 발성을 구사할 수 있는 멤버들이 모여 그 합창단만의 개성 있는 합창소리를 만들어내는 것이라면 개개인의 발성기량은 높으면 높을수록 이상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간혹 음질이 이상인 사람이 있어서 전체 융합에 이상을 가져오는 경우가 간혹 발생합니다. 우선 이런 경우는 먼저 허밍으로 합창 톤을 고르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 정돈된 두성만이 순수한 합창울림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여러 사람이 연합하여 단 하나의 톤(Tone : 즉, 합창의 소리)이라 생각되는 음향을 생산해 낼 때 융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합창에 있어서 반드시 이뤄야 할 작업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융합과 함께 균형 또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데, 이 균형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각 성부가 같은 수준의 힘으로 노래함으로써 적절한 무게 중심을 균형감 있게 유지해야 하는 요소입니다.

즉, 균형은 다른 파트와의 소리, 색깔, 힘, 세기, 무게 등의 동등한 균형을 의미하는데 특히 화성음악(Homophony)에선 주선율 파트가 다른 파트보다 분명한 선

을 만들면서 진행되어 잘 들리도록 힘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융합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균형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원들 간의 융합은 좋다 하더라도 파트간의 소리, 레벨이 맞지 않으면 좋은 합창음악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은 당연한 귀결이 아닌가 싶습니다.

발성적인 측면에서 볼 때 특히 남성파트, 그 중에서도 베이스 파트가 옥타브 위의 음역이 될 때 밸런스에 문제가 생기며 내성의 알토나 테너 파트도 그 파트에 상응하는 발성이 되지 않을 때 밸런스는 깨지고 마는 법입니다.

합창의 밸런스는 숫자적 배열도 중요하고, 또한 곡의 성격 파악 또한 중요하다 하겠습니까. 그 파트에 부적합한 사람, 알토적인 소프라노든지, 베이스적인 테너가 있다면 지휘자는 즉시 파트를 교체해 주는 것도 좋은 합창을 위한 방법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지휘자는 합창의 융합을 위해 각 성부에서 파트의 균형을 식별하여 각 성부를 조절할 수 있는 귀가 필요하며 특히 합창단 내에서는 각 개인이 정확한 화음감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대개의 경우 혼성음

을 이루지 못하는 원인은 단원들이 서로 듣지 못하기 때문이며 지휘자가 원하는 단원들이 서로 듣지 못하기 때문이며, 지휘자가 원하는 소리의 분명한 개념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휘자는 합창단에게 요구하는 소리가 어떤 종류의 것인지 분명하게 전달해야 하며 자신이 필요로 하는 소리의 개념을 정립하기 위해 좋은 합창단의 소리를 많이 듣는 훈련도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합창음악, 합창소리를 내는 문제에 있어서 각 파트간의 힘과 무게와 세기, 음색 등의 일정한 균형은 각 성부마다 이것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균형 감각에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어느 한 파트가 특별히 강하게 표현하고 있을 때 지휘자가 이를 적절히 제어하지 못하면 그로 인해 전체의 앙상블(Ensemble)이 망가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균형을 맞춰 같은 힘으로 노래해야만 한다는 사실이며 이는 각 성부에서 화음에 적당한 음량이 주어지도록 성부 사이의 균형을 각각 조절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처럼 지휘자는 합창의 훌륭한 조화

를 위하여 각 성부의 강약을 조절할 수 있는 훈련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주지하는 바입니다. 일반적으로 균형 유지가 어려운 점인 소프라노 파트와 테너, 베이스에 비해서 강하고 무거워서 합창의 중요한 요소인 조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아름다운 음색을 만들어 내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훌륭하고 능력 있는 성가대원이나 합창단원들은 그들의 목소리를 합창단에 잘 어울리도록 맞추어 노래할 수 있어야 하며, 음악의 표현을 위하여 소리를 절제하고, 목소리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융합을 위하여 성부의 음질과 특히 모

음을 통일하고 힘의 수준과 비브라토(Vibrato)를 조절해야만 할 것입니다. 합창의 균형 훈련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연주회장이나 연습장소일 것입니다. 연습 시 단원들이 자기 소리를 듣기 어려운 장소에 있게 된다면 이로 인한 음향상태가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사실에 주의해야 합니다.

즉, 다른 파트의 소리를 듣지 못하면 좋은 균형은 기대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때 지휘자는 균형을 조절하는 조정자가 되어야만 한다는 사실에 유념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 융합과 균형편은 다음에 한 번 더 이어집니다)

◆이선우

미국 유니온대학교 동대학원에서 작곡과 합창지휘를 전공하고 바이올라 대학원에서 지휘과정을 수학하였다. 특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음악에 관심을 가지고 21세기한국교회음악연구협회이사장을 역임하였고, 한국교회합창단 총연합회이사장, 한국교회음악협회등에서 이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한국교회음악출판협회주최 합창제미나인 <씨징세미나>의 주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 백석예술대와 백석콘서바토리아에서 후학을 가르치고 있으며 96년부터 합창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아이노스합창단을 창단하여 지금까지 사역하며 백석대학교교회 사무장으로, 시온찬양대의 지휘자로 섬기고 있다.

예배음악 통전화: 예배음악 통전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 1

예배음악 통전화의 필요성

사람들이 자신들의 성장기에 익숙했던 음악을 귀중하게 여기는 것처럼, 신앙인들도 신앙생활을 시작할 시기에 접했던 찬양들이 마음에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게 되는 것이다.

전통 찬송가는 중세기를 거쳐 믿음의 선조들이 불렀던 곡들로 기성세대는 이런 곡들이 은혜가 되기 때문에 애창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젊은 층들은 별로 즐겨하는 찬양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각자가 좋아했던 멜로디가 다르기 때문이며, 예배음악도 선호도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젊은이들의 경우 그동안 CCM을 비롯한 복음성가를 중심으로 예배하여 왔는데 전통 찬송가 중심의 예배를 드리기 어렵지 않기 때문이다.



윤영대 목사

예배음악통전화가 중요한 것은,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가 각각 자신들의 문화를 존중해 주는 예배만을 선호하다 보면 결국 예배공동체 교회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자신들이 좋아하는 음악만을 고집함으로써 같은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세대가 분리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 아니며 바른 예배도 되지 못할 것이다.

예배학자 웨버 박사는 우리가 계속 드러야 하고 앞으로 미래의 개인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는 예배의 형태로 '혼합예배(Blended Worship)'를 제시하였다.

이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먼저 교회 지도자들의 예배음악에 대한 바른 이해와 인식의 정리가 필요하다.

기성세대와 젊은이들이 함께 하는 예배를 위해서는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찬양의 통전화가 요구된다.

예배하는 회중도 전통 찬송가와 복음성가에 대한 이해와 함께 선입견을 버리고 내용과 구조적 측면으로 상호보완적

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이 둘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틀 안에서 각각의 편견과 가치관을 내려놓고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 영혼을 구원하심에 기준을 두어야 할 것이다.

찬양인도자의 발굴과 예배신학 확립

찬양인도자는 공적 예배 현장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자이다. 예배의 형태를 만들며, 예배의 모범을 제시하며, 예배를 가르치고 예배를 삶으로서 보여주는 자이다.

예배의 구조와 형식을 결정하는 것의

◆윤영대

미국 Reformed Theological Seminary에서 교회성장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고, 백석대학교 기독교학부 교수로 젊은이들을 섬기고 있다. 한국영성신학회와 청교도개혁신앙연구회 회장을 역임하였고, 지금은 한국복음주의 실천신학회와 행복누리교회 목사로 사역하면서 '예배회복과 교회성장'과 '갱신을 주제로 다수의 논문 및 서적을 쓰고 있다.

근거는 예배신학으로, 신학이 없는 예배는 감상주의적이고 반역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예배음악 통전화를 도모함에 있어서 찬양인도자의 중요성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청·장년 통합예배의 성사 여부도 찬양인도자에게 전적으로 달려 있는 것이다.

찬양인도자는 회중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중재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건전한 예배신학을 정립해야 한다.

현재 신학교육에 있어서 실천신학 분야의 중요한 기초학문은 예배신학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소홀한 실정이다.

목회자와 찬양인도자가 예배신학의 정립이 부족한 경우에는 노회나 총회 차원에서의 재교육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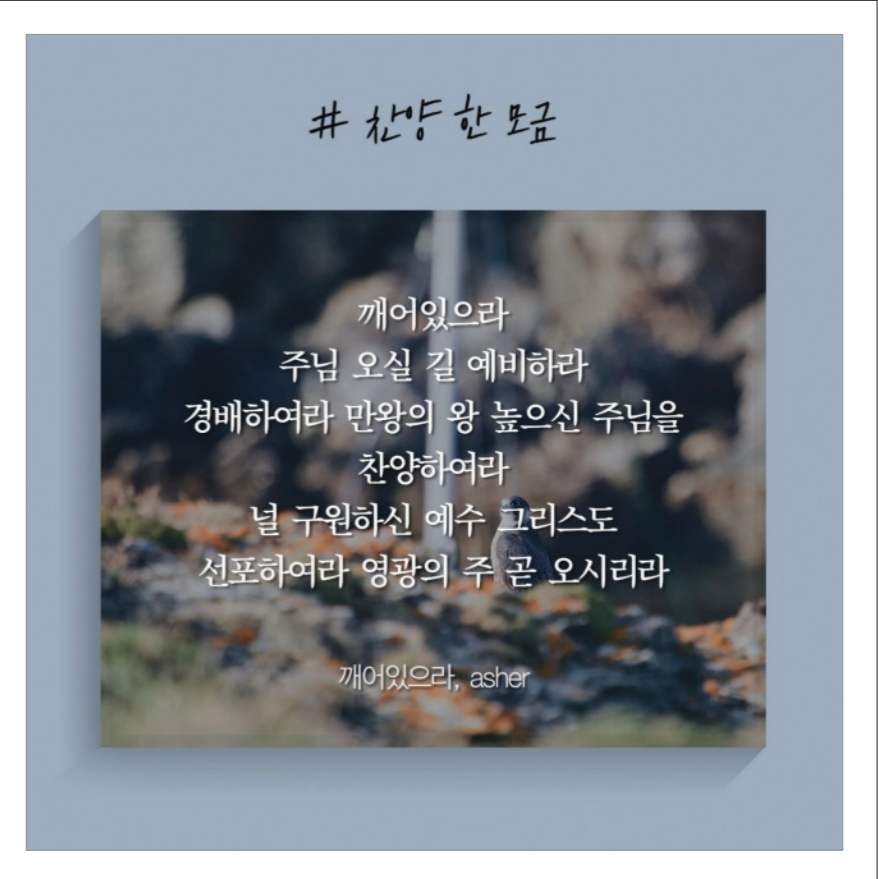
아울러 찬양인도자를 발굴하여 양성

하는 일야말로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찬양인도자가 되기 원하는 평신도들의 경우에는 음악적 재능을 갖춘 전공자라도 예배신학을 비롯한 기본 신학과

정을 필수적으로 이수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예배음악에 대한 재능을 가진 평신도 지도자들을 지속적으로 배출하는 제도적 보완이 있어야 예배음악은 발전하게 될 것이다.



나랑 가까워서 좋고 나를 잘 알아서 좋은 우리동네 좋은 병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e음" 앱에서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를 확인하세요



CCM 가수 김수지, 아프리카 '거리의 아이들' 위한 성탄 콘서트

15일 서울 선릉에 위치한 JADE 409에서

몇해 전 가수 아진아의 편곡으로 불려지며 대중에게 인기를 끌었던 CCM 곡 '이 시간 너의 맘 속에'의 원조 CCM 가수 김수지가 크리스마스 콘서트로 대중에게 돌아온다. 4년 전, 19년 만에 6집 앨범을 발매하

며 돌아왔던 김수지가 '길 위의 콘서트'라는 제목으로 CCM가수 남궁송옥, 김도현 등이 함께 참여한다. 이번 콘서트의 제목은 아프리카 케냐의 고아들, 나이로비의 거리에서 살고 거리를 헤매다 대부분 젊은 나이에



죽음을 맞이하는 일명 '거리의 아이들'을 돌보는 사역을 하고 있는 JTS(Jesus to Street) 미나스트리를 지원하는 행사이기 때문이다. 거리의 아이들에게 빵과 음료를 나눠주고, 상처를 감싸고, 씻을 곳과 잠자리를 제공하는 그들의 사역을 후원하기 위해 웰위워십과 JADE 409를 비롯해 미션 파트너스(대표 한철호) 등 국내 여러 믿음의 단체들이 연합해 자리를 마련했다.

특별히, '성령의 오셨네'의 김도현과 '죽으면 죽으리라'의 남궁송옥, 그리고 웰위워십밴드(드럼 권낙주, 베이스 김상규, 기타 김종양, 건반 육해정)가 함께하여 작은 마을 초라한 말구유에 누이셨던 아기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자리에 함께 크리스마스 콘서트 무대가 펼쳐질 예정이다. 이번 콘서트는 15일 선릉에 위치한 JADE409에서 개최된다. 이상진 기자

국내 최초 발달장애인 창작 뮤지컬 '사랑의 선물'

발달장애인 종합예술단인 다소니 예술단의 공연, 루터리아워 주최

루터리아워가 국내 최초 발달장애인인 을 해온 다소니 예술단은 장애인 인식개로 구성된 종합예술단인 다소니 예술단의 창작뮤지컬 '사랑의 선물'을 22일 저녁 루터중앙교회(담임 최주훈 목사)에서 개최한다. '다소니'는 순 우리말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다소니 예술단은 국내 최초로 발달장애인으로 구성된 종합예술단으로다. 챔버 오케스트라단, 합창단, 뮤지컬단의 3개의 예술분과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은 지난 2011년 6월 창단 연주회를 시작으로 약 600회가 넘는 공연활동을



다소니 예술단 단원들. ©루터리아워

2024 겨울 프론티어 청소년 캠프, 강은도·임우현·임은미·오선화 등

2024년 1.18-27까지 전남 담양 바이블칼리지에서

종합문화선교프론티어(대표 감광중 목사)가 2024 프론티어 겨울캠프를 내년 1월 18일부터 27일까지 전남 담양에 위치한 바이블칼리지에서 개최한다.

'부르심'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집회의 주제 말씀은 8장 28장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중략) 선을 이루느니라'이며, 총 3차례에 걸쳐 137차는 18일부터 20일, 138차는 22일부터 24일 139차는 25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캠프의 메신저로는 박형민 목사

(대전주향감리교회), 강은도 목사(더푸른교회), 임우현 목사(번개탄tv), 이종화 목사(부산세움교회), 임은미 선교사(케냐), 오선화 작가(살자클럽), 김보성 목사(울산신성교회),

탁지원 소장(현대종교), 고광재 목사(브니엘고등학교), 김광중 목사(프론티어), 이우혁 목사(프론티어 예배인도자) 등이 있다. CCM 공연에 초청 가수로는 주리(자유 노래), 강찬 목사(사명자), 민호기(정금같은사랑), 할랑남녀, 같이걸어가(기교), 게벳의 노래 등이 있다. 이상진 기자



방송 편성표 ※ 편성표 일정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시간	CTS 기독교TV	Good TV	CGN TV	CBS TV	Cchannel
오전	5:00 00 CTS 새벽예배 40 힐링송 50 신앙예배	40 힐링스토리 50 조건희 목사의 찬양과 나눔	00 생명의 삶 20 바이블 프로젝트 (구약) 30 직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들)	00 은혜의 시간 30 TV 설교/군포제일교회 권태진 목사:성령으로 오신 예수님	00 말씀 관동 이음 목사의 성경 묵상기 40 김병삼 목사의 매일만나 365 (주님은 나의 최고분)
	6:00 00 새벽을 말씀과 함께-오영택 목사(하늘비전교회) 30 생명의 말씀/성령의 새바람	00 365 새벽기도 생방송 2부 30 한국교회와 함께 큐티를 보다 40 GOODTV 오늘의 기도 50 GOODTV 뉴스	40 [말씀] 김윤성 목사(영락교회)	00 TV 설교/[생명의 양식]성문교회 고동훈 목사:감사의 기준을 바꾸다 30 주만찬 50 오늘 만나는 QT	00 생방송 명성교회 새벽기도회 40 새에덴강단
	7:00 00 CTS 뉴스 20 주성민 목사의 주담길 35 생명의말씀-박석진 목사(포항장성교회) 50 생명의 말씀-이창교 목사(창원상남교회)	10 힐링스토리 20 말씀의 생터 전주시온성교회 황세형 목사 50 비전설교 한성교회 도원욱 목사	20 [말씀] 이영훈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	10 찬양예배 주님께 맡기는 시간 30 TV 설교/주님기쁨의교회 김대조 목사	40 김윤희 박사의 성경에انس 신약 50 노변담화
	8:00 20 신앙예배 30 CTS 두란노 성경교실-송태근 목사의 강해설교	20 세상을 깨우는 말씀 훈민복음 50 휴먼다큐멘터리 사랑은 강물처럼	0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20 [말씀] 정갑신 목사(예수형남교회)	20 CBS성서학당-갈릴리 산책 28강 - 조성욱 목사 "예수님의 열정을 본받으라"	00 성지가 좋다 30 비전메시지 - 은혜드림교회 최민선 목사
	9:00 00 내가 매일 기쁘게 50 힐링스토리	20 세계성지탐방기행 50 낮은 곳으로 임하시어 미나디큐	00 [말씀] 홍민기 목사(라이트하우스무브먼트) 40 [말씀] 최성은 목사(지구촌교회)	10 새롭게 하소서	00 성지가 좋다 - 국내편 30 정서영의 포토에세이 40 나의 십자가 : 세계의 십자가가 나의 결으로
	10:00 00 장경동 목사의 잘 살아보세 30 지식인 미래를 세우다	00 여의도순복음교회 수요일예배 생방송 이영훈 목사	20 [말씀] 임재영 목사(서부성결교회)	00 오직 주님만 슬로 30 CBS 뉴스	00 선교는 지금 50 오정현 목사의 온전한 은혜로
	11:00 00 백세인생 20 7000마라톤 50 [생방송] CTS 뉴스	30 말씀의 생터 화광교회 윤희훈 목사	00 온누리교회 수요일성경예배 40 저스트 텐 미닛 (달빛마을) 50 내 삶에 신학 - 기독교교과	00 율포원	00 소문난 성경교실 30 C채널 매거진 굿데이 50 비전메시지 - 대림교회 최대한 목사
오후	12:00 30 생명의 말씀-유영만 감독(하늘중앙교회)	00 GOODTV 뉴스 20 힐링스토리 30 말씀의 생터 광주청사교회 백운영 목사	10 바이블 프로젝트 (구약) 20 [말씀] 권준 목사(시애틀형제교회)	00 TV 설교/둔든한교의 장항희 목사 30 TV 설교/포도나무교회 여주봉 목사	20 비전메시지 - 청운교회 이필산 목사 50 말씀의 창 - 마라나타교회 이영은 목사
	13:00 00 생명의 말씀-이승희 목사(대구반야월교회) 30 CTS 두란노 성경교실-송태근 목사의 강해설교	00 말씀의 생터 군포사랑의교회 성권용 목사 30 2023 천사후원방송 복음스튜디오 등불켜기	00 어린이 공동체성경읽기 고고 바이블 20 [말씀] 정현구 목사(서울영동교회)	20 교회가는 길	20 배진기 목사의 생수의 강 30 말씀의 창 - 구례제일교회 김명서 목사
	14:00 00 [생방송] 콜링갯 50 내가 매일 기쁘게	30 2023 천사후원방송 복음스튜디오 등불켜기	0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20 레디온	00 TV 설교/양곡교회 지용수 목사 30 새롭게 하소서	00 장종현 목사의 신학은 왜 학문이 아니니까 40 다시보는 성지가 좋다
	15:00 40 7000마라톤	00 생방송 기적을 이루는 기도 달리다공	00 [말씀] 박성일 목사(필라델피아기쁨의교회) 40 생명의 삶	20 영혼의 양식/양친교회 김동인 목사 30 TV 설교/한성교회 도원욱 목사	00 2023 한소망교회 감사특방
	16:00 10 신앙예배 20 주성민 목사의 찬양의 기도 30 생명의 말씀-김성룡 목사(한마음교회)	00 말씀의 생터 성찬교회 오원호 목사 30 말씀의 생터 수영로교회 이규현 목사	00 어린이 공동체성경읽기 고고 바이블 20 케빈 드영의 창세기 50 [말씀] 안광복 목사(상당교회)	00 CBS성서학당-골로새서 11강 - 송태근 목사 "세 가지 금기사항" (본문 - 골로새서 2:20-23) 50 CBS 교회소식	00 내 삶의 행복 50 오정현 목사의 온전한 은혜로
	17:00 00 사랑의 시간-오정현 목사 50 오정현 목사의 비전목상 3분 미래	00 말씀의 생터 순복음죽복교회 오영대 목사 30 말씀의 생터 순복음금정교회 김형근 목사	30 [말씀] 김다위 목사(선한목자교회)	00 믿음의 대화 36.5 40 크리스천칼럼 50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00 말씀의 창 - 동일로교회 김오용 목사 30 (오직주님) 명성의 워십
	18:00 00 생명의 말씀-김익이 목사(그레이스힐링교회) 30 신앙예배 40 백세인생	00 행복플러스 30 여의도침례 수요 필 워십	10 [살&가정] 그림으로 만나는 아이 마음 50 [말씀] 권혁민 목사(씨드교회)	10 잘 믿고 잘 사는 법 30 TV 설교/남양주한마음교회 남상진 목사	30 말씀의 창 - 성중중앙교회 객태권 목사
저녁	19:00 00 지식인 미래를 세우다 30 광림의 시간-김성석 감독	00 조용기 목사, 명설교	30 두란노 해외선교회 TIM 30주년 미래선교전략 컨퍼런스	00 TV 설교/영광제일교회(이기용 목사) 30 TV 설교/정동제일교회 천영태 목사	00 말씀의 창 - 인천제교회 노원석 목사 30 영성교회 수요기도회
	20:00 30 생명의 말씀-주진 목사(세한교회)	00 명사들의 명강 30 말씀의 생터 감일교회 차영아 목사	10 바이블 프로젝트 (구약) 20 풍당 비디오가게 4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00 하나님을 기쁘시게 7004	30 오정현 목사의 온전한 은혜로 40 복음강단 - 서울은혜교회 김태규 목사
	21:00 00 CTS 뉴스 40 사랑과 구원의 발자취	00 세상을 깨우는 말씀 훈민복음 30 다큐 더 로드 50 GOODTV 뉴스	00 창동염광교회 주일예배	00 CBS성서학당-갈릴리 산책 28강 - 조성욱 목사 "예수님의 열정을 본받으라" 50 CBS 뉴스	10 다시보는 성지가 좋다 30 삶의 씨앗이 되는 소리 C'seed(씨드)
	22:00 10 내가 매일 기쁘게	10 2023 천사후원방송 복음스튜디오 등불켜기	10 저스트 텐 미닛 (달빛마을) 20 잇쉬의 서재 시즌2 50 갯분	10 새롭게 하소서	00 예루살렘 데이트라인 20 소문난 성경교실 50 김윤희 박사의 성경에انس 구약
	23:00 00 CTS 두란노 성경교실-송태근 목사의 강해설교 30 장경동 목사의 잘 살아보세	10 2023 다니엘기도회	00 J.D. 그리어의 다윗의 삶 30 생명의 삶 50 바이블 프로젝트 (구약)	00 주만찬 20 오늘 만나는 QT 40 찬양예배 주님께 맡기는 시간	00 이석 목사의 잃어버린 복음을 찾아서 50 정서영의 포토에세이
	24:00 00 콜링갯 50 하나님의 숨결	00 젊은이의 예배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	0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20 CGN 비전특강	00 CBS 아카데미 숲 50 성경꽃집	00 사랑의교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1:00 10 지식인 미래를 세우다 40 CTS 특신다큐	00 GOODTV 오늘의 예배 30 월드미션투데이	00 [말씀] 이용준 목사(갈보리교회) 40 [말씀] 김용훈 목사(열린문장로교회)	00 다니엘 기도회 40 CBS비전특강/CBS 비전특강	00 한소망 비전워십
	2:00 40 백세인생	00 명설교 남서울중앙교회 피종진 목사 30 이음 목사의 성경의 맥	20 [말씀] 김형서 목사(지구촌교회)	30 TV 설교/양곡교회 지용수 목사	00 말씀의 창 - 뉴욕센트럴교회 김재열 목사 40 김병삼 목사의 매일만나 365 (주님은 나의 최고분)
	3:00 00 장경동 목사의 잘 살아보세 30 Let's talk in English	00 GOODTV 다큐스페셜	00 [Global Sermon] R.T. Kendall's Word & Spirit 30 [말씀] 류중열 목사(와싱톤중앙교회)	00 율포원	00 서재의 재발견 2
	4:00 00 클래식 생명의 말씀-김선도 감독 20 오늘의 양식 30 TV새벽예배	00 새벽을 깨우는 기도 30 새벽을 깨우는 말씀 예능교회 조건희 목사 55 365 새벽기도 생방송 1부	10 [말씀] 박성근 목사(남가주세우리교회)	00 CBS성서학당-출애굽기 38강 - 김기서 목사 "새로운 역사의 여명" (본문 - 출 40:1-38) 50 CBS 교회소식	00 다시보는 성지가 좋다 20 성지가 좋다 - 국내편 50 힐링토크 회복 플러스



2023 iF 디자인 어워드 - 주거인테리어 부분 수상
2023 굿디자인 어워드 - 공간/환경 디자인 부분 선정

BRIGHTEN N40



<브라이트 N40 실제 촬영 컷>



눈부신 삶을 기다림 없이.
다시 없을 마지막 기회

즉시 입주 가능 1577.0889

126㎡ 외 전타입 마감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40번지

* 상기 이미지, 내용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되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현장에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SHINYOUNG 포스코이앤씨